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5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5

지은이 : 경북연구회

옮긴이 : 최범순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박승주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외래교수)

윤경애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려옥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정찬휘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발행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발행일 : 2024년 12월 15일

ISBN :

일러두기

- 본 자료는 일본 관점의 표현과 용어가 많지만 1차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원문의 표현과 용어는 그대로 옮겼다. 이에 해당 표현과 용어 등은 옮긴이의 입장이나 역사 인식과 별개임을 밝힌다. 단 ‘내지, 내지인, 일본해, 일청전쟁, 일러전쟁, 이조시대’ 등은 ‘일본 본토, 일본인, 동해,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시대’ 등으로 바꾸어 옮겼다.
- 본 자료가 1차 자료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사진과 이미지 등도 최대한 빠짐없이 옮겼다.
- 일본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설명이 필요한 어휘 등은 각주를 달아 설명했다.
- 원자료의 연도 표기는 모두 일본 연호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서기로 변환해 옮겼다.
- 일본인 인명은 원자료에 성(姓)만 표기된 경우라도 확인이 가능한 인명은 이름을 추가해서 옮겼다. 일본인 이름 발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이름 한자의 음독 발음으로 옮겼다.
- 지명은 한반도 일본인 거주 구역의 일본식 지명이라 하더라도 한자의 한글 발음으로 옮겼고, 일본의 지명은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했다.
- 각종 단위는 원자료 단위를 그대로 옮기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 각주를 달았다. 단, 거리 단위 ‘리(里)’는 일본과 한국의 ‘리’ 단위 차이로 인한 오독을 막기 위해 한국 ‘리’ 단위로 변환해서 옮겼고, 원자료 화폐 단위 ‘圓’은 ‘원’으로 번역했다.

1750

新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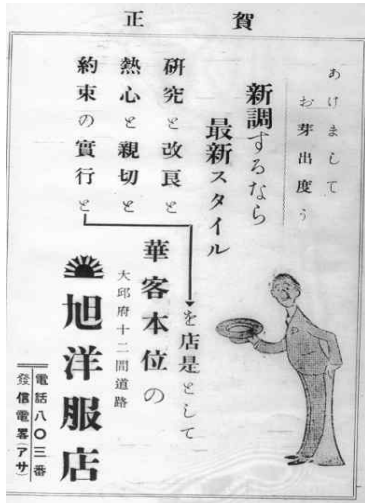
號一第年二第



號年新

行發會究研北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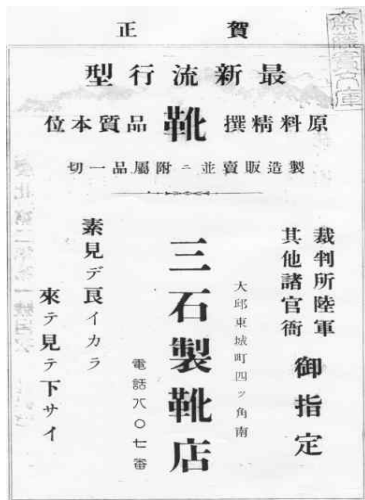
大正十二年一月三日印刷
 大正十二年一月五日發行(每月一回)



아사히 양복점

대구부 12간 도로
전화 803번
발신 전신약호 (ア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양복을 새로 맞춘다면 최신 스타일로.
연구와 개량과 노력과 친절과 약속 실행을 가
계의 방침으로 삼아 단골손님 본위



미이시 제화점(三石製靴店)

대구부 동성정 사거리 남쪽
전화 807번
최신 유행형
원재료 엄선과 품질 본위의 구두
제조 판매 및 부속품 일체
재판소, 육군, 기타 제 관아 지정점

보기만 하는 것도 관찮으니 와서 보십시오

□ 목 차

경상북도 근대 공보지 『경북』 5 (1923년 1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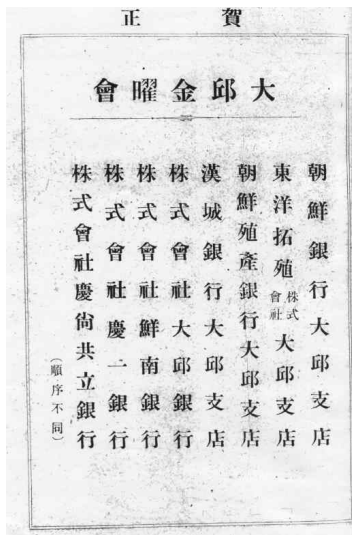
- ◆ 사이토 조선총독 각하 제자(題字) / 13
- ◆ 대구의 3대 제사장 / 14
- ◆ 메이지 신궁(明治神宮)과 전국 봉납미(奉納米) / 15
- ◆ 효산운(曉山雲) … 권두언(卷頭言) / 21
- ◆ 현대 청년의 사명(강연 필기) … 하타 슈사쿠(秦秀作) / 24
- ◆ 국운 신장의 원천을 찾아서 … 다쓰노 분이치(龍野文一) / 34
- ◆ 예산의 순응성을 논하다. … 노무라 겐지로(野村銀次郎) / 54
- ◆ 도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의 취지에 관하여(앞 호에 이어)
…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 62
- ◆ 조선의 술(강연) … 노지로(野白) 심사원 / 69
- ◆ 도로 이야기(강연) … 다니 고키로(谷幸次郎) / 76
- ◆ 통계 개론(앞 호에 이어) … 하리가에 리헤(針替理平) / 82
- ◆ 경산군의 제지 … 마기성(馬基成) / 90
- ◆ 탁상유희 … 백양정(白楊亭)과 흑선풍(黑旋風) / 97
- ◆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앞 호에 이어) … 도미나가 가즈지(富永一二) / 104
- ◆ 울릉도 기행 … 조지 윈 / 113
- ◆ 도소기언(屠蘇奇言) … 오키나가(息長) / 123
- ◆ 접골술의 명인 … 하타(秦) 내무부장 이야기 / 129
- ◆ 진중일기(2) … 하루타 간포(治田冠峰) / 132
- ◆ 무열등화와 공중음악 / 146
- ◆ 봄의 세상 … 영수생(寧水生) / 151
- ◆ 경상북도의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 / 156
- ◆ 휘보 경상북도 산업자문화 / 166
- ◆ 창작 : 어느 기혼자의 일기 … 노가미 이사오(野上隼) / 186
- ◆ 해제 / 202



기무라 시계점

대구부 상정 도청 옆
전화 555번
대체 계좌 경성 9532번

영업 품목
각국 시계, 쌍안경 종류, 귀금속 /
각종 안경, 순금 반지,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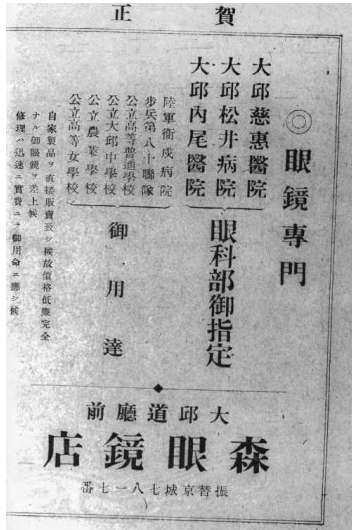


대구 금요회

조선은행 대구지점
동양척식주식회사 대구지점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한성은행 대구지점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선남은행
주식회사 경일은행
주식회사 경상공립은행 (순서 부동)

모리 안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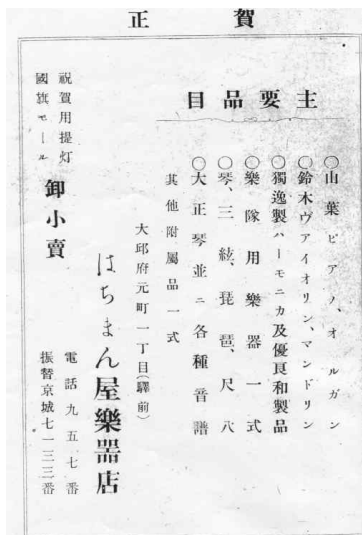
대구도청 앞
대체(계좌) 경성 7817번



◎ 안경전문
대구자혜병원 안과부 지정
대구 마쓰이(松井)병원 안과부 지정
대구 우치오(内尾)의원 안과부 지정

육군위수병원 어용
보병제80연대 어용
공립고등보통학교 어용
공립대구중학교 어용
공립농업학교 어용
공립고등여학교 어용

자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므로 가격은 저렴하며
완전한 안경을 드립니다.
수리는 쾌속하게 실비로 주문(요청)에 응하겠습니다.



하치만야 악기점

대구부 원정 1정목(역 앞)
전화 957번
대체계좌 경성 7133번
주요품목

○야마하 피아노, 오르간
○스즈키 바이올린, 만도린
○독일제 하모니카 및 우량 일본제품
○고토(琴)¹⁾, 삼현비파, 샤쿠하치²⁾
○다이쇼고토(大正琴)³⁾ 및 각종 악보
기타 부속품 일식(한 벌)
축하용 제등, 국기 봉 소매

- 1) 일본식 거문고.
- 2) 일본식 퉁소.
- 3) 두 줄의 쇠줄을 매고, 건반을 갖춘 간단한 현악기로 다이쇼 시대(1912~1926) 초기에 발명된 일본 전통악기.

김천-춘양(春陽)⁴⁾

김천에서 춘양 방면			춘양 방면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춘양행	오전 8:00	오후 3:40	춘양 출발	오전 7:30	오후 3:10
예천행	오전 8:00	오후 12:20	예천 출발	오전 8:00	오후 12:30
영주행	오전 9:30	오후 3:40	영주 출발	오전 7:30	오후 1:10
예천행	오후 2:20	오후 6:40	예천 출발	오후 2:30	오후 6:30
상주행	오후 2:20	오후 4:00	상주 출발	오전 8:00	오전 9:40
상주행	오후 4:20	오후 6:00	상주 출발	오후 5:30	오후 7:10

김천-문경

김천에서 문경행			문경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문경행	오후 2:20	오후 6:20	문경 출발	오후 7:30	정오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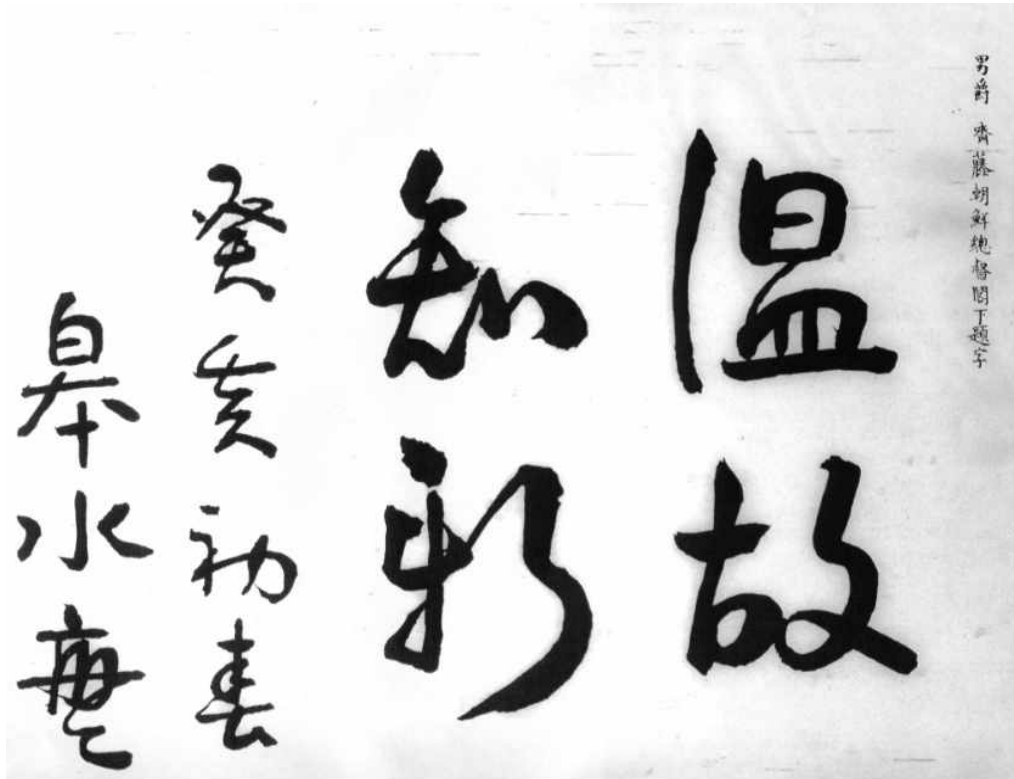
김천-선산

김천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김천행		
행선지	김천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 출발	오후 2:30	오후 4:00	선산 출발	오전 8:00	오전 9:00

구미-선산

구미에서 선산행			선산에서 구미행		
행선지	구미 출발	도착 시각	행선지	출발 시각	도착 시각
선산행	오전 9:00	오전 9:50	선산 출발	오전 11:00	오전 11:50
선산행	오후 4:00	오후 4:50# ⁵⁾	선산 출발	오후 5:00	오후 5:50

4) 경상북도 봉화 지역의 옛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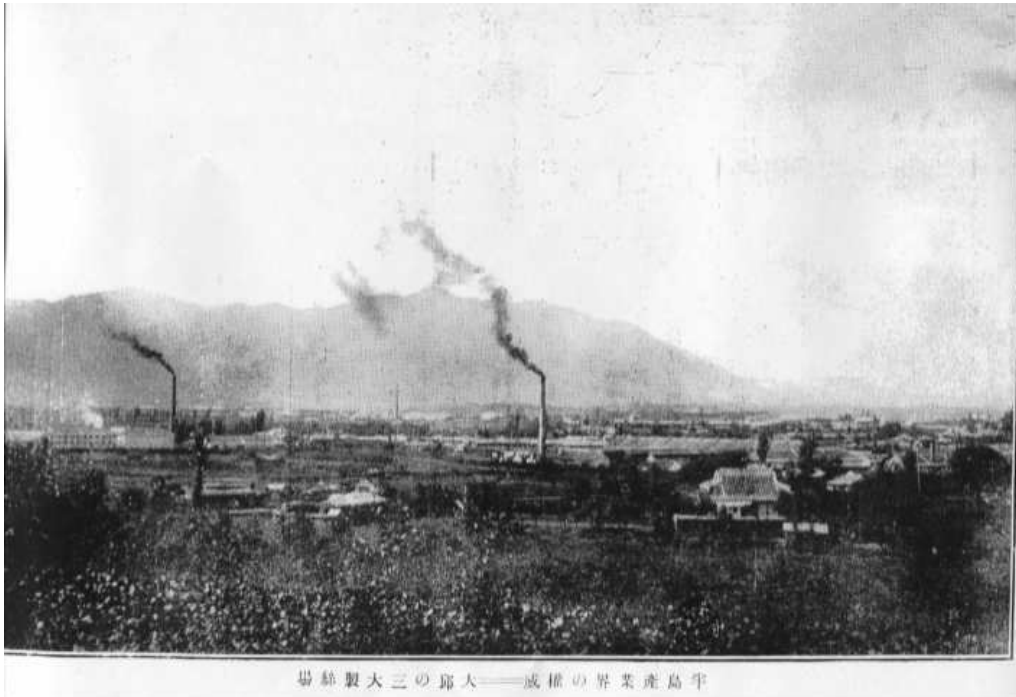


사이토 조선총독 각하 제자(題字)⁶⁾

고수암 계해년 초춘(初春) / 온고지신(溫故知新)

5) 원자료에는 도착 시각이 오후 4:00로 되어 있다. 이는 출발 시각과 동일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오전의 동일 구간 출발 도착 시각을 참고해서 오후 4:50으로 정정해서 옮겼다.

6) 책머리·비석·화폭 위에 써 놓은 글자.



大邱大三大製絲場——半島産業界の權威

대구의 3대 제사장

조선에 있는 기계 제사공장 5곳 중 3곳이 경상북도의 수도인 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총 가마 수는 약 1400개에 달하고, 제사 능력은 약 20만 근에 이르며, 올해 누에고치 소화 능력은 약 4만 2천 석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전체 산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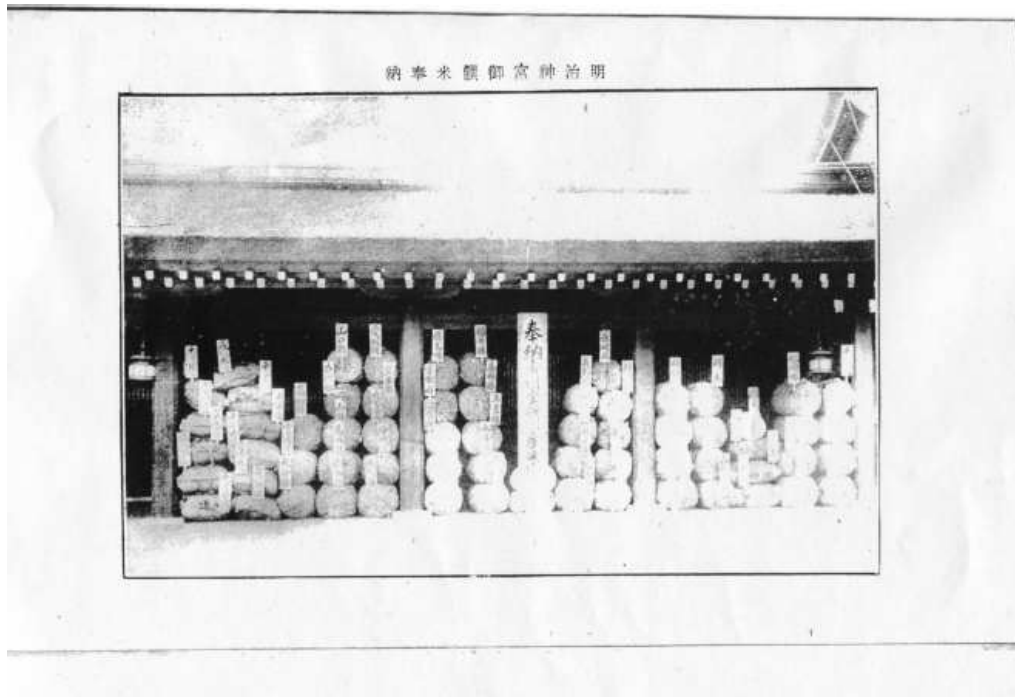
사진 속 오른쪽 첫 번째 굴뚝은 신슈(信州)⁷⁾ 스와(諏訪)에 본점을 두고 있는 야마주구미(山十組) 제사 공장으로 1918년에 창업하였다. 현재 가마 수는 650개, 누에고치 소화 능력은 1만 8천 석이다. 현재 주임은 오구치 하지메(小口肇) 씨이다.

다음으로 중앙에 있는 굴뚝은 도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일본 제사업계의 권위자인 가타쿠라제사방직주식회사(片倉製絲紡績

7) 나가노현(長野県)의 옛 지명.

株式會社)의 대구 제사소로, 1919년에 창업하였다. 현재 가마 수는 380개, 누에고치 소화 능력은 1만 2천 석이다. 현재 소장은 후루타 추에(古田忠衛) 씨이다.

세 번째 굴뚝은 1919년 조선에서 처음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조선생사주식회사(朝鮮生絲株式會社)로, 가마 수는 400개, 누에고치 소화 능력은 1만 2천 석이다. 지배인은 가미야마 마사키(神山正樹) 씨이다.



메이지 신궁(明治神宮)과 전국 봉납미(奉納米)

1922년 11월 3일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진좌삼년제(鎮座三年祭) 및 메이지천황 10년제를 행하는 데 즘음하여 도쿄회미(廻米)⁸⁾도매조합은 전국 도부현(道府県) 및 만주, 대만, 조선, 사할

8) 생산지에서 미곡 시장으로 운송되어 온 쌀.

린에서 수확한 쌀을 각각 한 가마니(俵)씩 모아 공양미(饌米)로 봉납하였다. 이 사진은 그때 모습으로 경상북도의 산미(産米)는 달성군 수성면의 다케우치 시로(竹内四良) 씨 본인이 경작한 고쿠료미야코(穀良都)⁹⁾ 한 가마니(呷)¹⁰⁾를 목욕재계하여 조달한 것이다. 여기서 대제(大祭) 당일의 광경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봉헌미는 모두 신궁 대전(大前) 동쪽 회랑에 바쳐져 3일 대전 당일, 섭정궁(摂政宮) 전하¹¹⁾를 비롯한 각 황족 전하께서 친히 살펴보셨다. 특히 섭정궁 전하께서 산미에 관해 하문(下問)하셔서 궁사(宮司)¹²⁾가 열과 성을 다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사무소(社務所)¹³⁾는 봉헌자 구마쿠라 료스케(熊倉良助)¹⁴⁾에게 통지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물을 그대로 두게 하여 관민, 일반 참배자들의 관람을 허락하였다. 이렇듯 제국 전역의 대표 쌀을 모아 헌상한 것은 실로 유사 이래 처음이어서 사무소에서도 특별히 신경써서 처리하고 있다. 실로 이번 일에 관여한 각 관계자들은 모두들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 일본의 산미개량에 있어 위대한 효과를 낳으리라 믿는다(도쿄회미도매조합 통신 중 한 절)

9) 야마구치현(山口県)의 농민, 이토 오토이치(伊藤音市, 1856 - 1912)가 1889년에 재래종을 품종개량한 것.

10) 俵는 원통형, 呷은 봉투 모양.

11) 훗날 쇼와천황(昭和天皇)이 된다. 당시 황태자였던 히로히토(裕仁)는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건강 악화로 1921년부터 섭정궁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12) 신사(神社)의 제사를 맡은 최고 직위의 신관(神官)

13) 신사의 사무를 취급하는 곳.

14) 도쿄에서 미곡점을 경영하던 실업가.

日本刀 研
白鞘 柄 卷
金銀 ニツケル

中村武次

大邱府上町七七番地

나카무라 다케쓰구

대구부 상정 77번지
일본도 연마
칼집, 손잡이 제작
금, 은, 니켈

大弓具 附屬品一式
劍道具 柔道具一式

齒科器械及材料
外ニ文房具、雨具類
防水布、張傘

大邱東城一丁目

牧瀨伊左衛門商店

振替京城三一〇八番

마키세 이자에몬 상점

대체계좌 경성 37081번
활, 검도, 유도 장비 일습
치과 기계 및 재료
그 외 문방구, 우비류
방수포, 종이우산

萬表裝屏 風襖製造

表具一式

懇切ニ致マス

大邱東城町二丁目四三

長谷川表具店

電話九四八番

하세가와 표구점

대구 동성정 2정목 43
전화 948번
병풍 표장(表裝)
방풍 맹장지
표구 일습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드립니다

和洋其 西洋飲 洋御飲 食御飲 辨料一 當理切

氣の利いた 料理で定評ある

大邱驛階上の 喫茶店

午前十一時より翌 日午前四時まで營業

세련된 요리로 정평이 난
대구역 계단 위 찻집

일본 및 양식 도시락
서양 요리
기타 음료 일체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영업

和洋紙類ト 各種印刷

現代的文房具ト 新式事務用品

伊藤吉商店

パイロット萬年筆特約店

大邱府大和町大通角 電話一三三番 振替京城二七六番

이토 기치 상점

대구부 대화정 큰길 모퉁이
전화 123번
대체계좌 경성 276번
일본 종이류, 서양 종이류와 각종 인쇄
현대적인 문방구와 신식 사무용품
파이롯트 만년필 특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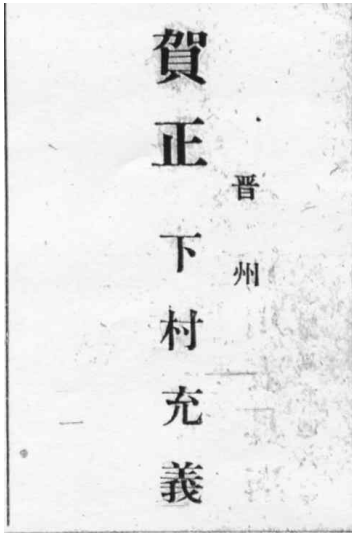
旅行中に付年頭の 禮を缺き申し候

慶北研究会編輯主任

西江靖

여행 중이므로 새해 인사를 부족하나마 이렇게
아닙니다

경북연구회 편집주임
니시에 야스



하정
진주
시모무라 미쓰요시

和洋家具 各種運動具 製造販賣部
官衙、學校、御家庭向キ
用具ノ設計見積歡迎
工場 大邱府大和町八一番地
事務所 北内町二三番地
平澤工務所
電話二一八番
(御照會の節は事務所の方へ)

히라사와 공무소
공장 대구부 대화정 81번지
사무소 북내정 23번지
전화 218번
일본, 서양 가구, 각종 운동기구 제조
판매부
건축설계부
관청, 학교, 가정 용구의 설계, 견적 환영
상담은 사무소로

寫眞機並ニ材料一式
燒付現像
大邱東城町一丁目
長藤寫眞機店

나가토 사진기점
대구 동성정 1정목
사진기 및 재료 일습
소부(燒付) 현상¹⁵⁾

15) 인화지에 원판 음화(陰畫)를 덧대어 빛을 비추어 명암이 실제와 같이 보이는 사진인 양화(陽畫)를 말한다.

요시다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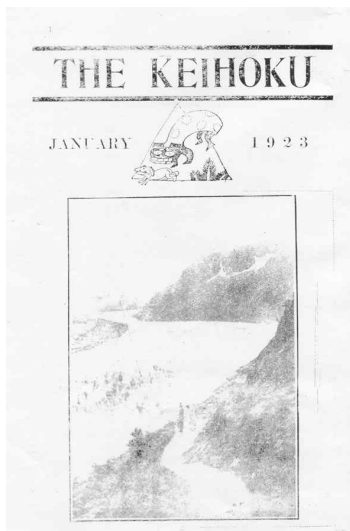


신규 개업
여행용 도구 전문점
가방, 버들고리(柳行李)¹⁶⁾, 바스켓(basket)/바구니

우리 가게 자랑
특별 맞춤
대구 특산
동양기류회사(東洋杞柳會社) 제작

제조, 수선을 원하시면 응합니다.
가치, 상품, 그리고 비평까지

대구역 앞 12간 도로(동아각(東亞閣) 옆)
(전화 : 동아각 중개 349)
월부 판매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16) 버드나무로 만든 상자 모양의 그릇.

효산운(曉山雲)

(송정지사(迎正之辭)¹⁷⁾)

깊고 두터운 성은은 모두가 밤낮으로 느끼는 바이며 자애로운 천황폐하의 넓고 크신 마음 또한 본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오로지 이를 생각하며 감격하는 바이다. 대전(大典)¹⁸⁾ 영절(令節)¹⁹⁾이 되니 특별히 더 그 마음이 깊고 간절한데 어찌면 그 감정을 사물에 비유하여 다소나마 표현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나라의 성대한 의식에서는 대부분 와카를 읊으며, 제왕의 덕은 향시 이와 함께 기리는 것을 예로 한다. 바야흐로 일본은 동아시아제국의 건국 2,583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왔다. 금상폐하²⁰⁾ 즉위 제12년-섭정 궁 전하 섭정 제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천황가의 번영과 우리 가정의 번창을 위해 경사스럽고 복된 마음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타카이하지메(歌會始)²¹⁾ 에서 제시하신 표제어를 삼가 배송(拜誦)²²⁾하면, ‘효산운’이라 명하셨다. 이는 본디 황상(皇上)이 풍속을 관찰하는 자질로 삼으시는 바이나, 우리 신민들에게는 일시적으로 만 가지 감은(感恩)²³⁾중의 하나를 피력하는 좋은 제목

17) 정월을 맞이하는 인사말.

18) 다이쇼 천황(大正天皇) 즉위식

19) 좋은 계절

20) 다이쇼 천황

21) 새해 초에 실시하는 와카(단가) 경연 모임. 현재는 연초에 궁중에서 열리는 ‘와카 경연 의식(歌會始の儀)’이 유명하다. 이 경연의식에서는 매년 와카를 짓는 표제어가 제시되는데 1922년의 표제어는 ‘효산운’이었다.

22) 남의 글월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히 읽음.

23) 은혜에 감동됨, 은혜를 감사함.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각 민족의 흥망성쇠를 돌이켜보면 구름이 흘러가고 이슬이 사라지고 번개가 치고 물살이 빠르며 혼백이 사라지는 것도 실로 심상치 않다. 석가모니를 배출한 당시 인도는 어떠한가. 조로아스터를 낳은 페르시아는 어떠한가. 무릇 또 용맹하기로 널리 알려진 로마와 문화로 이름이 난 그리스는 어떠한가. 이후 수많은 민족은 봄에 번창하고 가을에 쇠퇴하여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 하였다. 지금 그 유적을 빙조(憑弔)²⁴⁾하려면 어디에 다 물어봐야 하는가. 얼마 전 일본제국이 전 세계 3천년의 흥망과 무관하게 외연히 동쪽 바다에 우뚝 솟아오른 것은 바로 태산(泰山)이 자약(自若)²⁵⁾하여 효운이 알아서 오가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요즘 강대국이 되어 열강을 자처하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건국이 내 눈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제처럼 생생한데도, 군대는 강하고 재정은 풍부하며 땅은 넓고 사람이 많음을 자랑삼는다. 이 나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밖으로 근심 없으면 안으로 화목하지 않고, 위가 바르지 않으면 아래가 순종하지 않는다. 서로 다투고 빼앗고 약탈하니, 일본제국 천황의 시화(施化)와 밝은 치도(治道)²⁶⁾에 비하면 그들의 거리감은 비단 천리(千里)만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과 작년 일만 보더라도 뭔가 맹수가 서로 다투고 독수리와 물수리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러시아의 붕괴와 현재의 무참한 상황을 굳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인도는 어떠한가. 이집트는 어떠한가, 터키는 어떠한가. 프랑스는 어떠한가, 영국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이웃나라인 중국은 어떠한

24) 과거를 생각하고 애도하다.

25)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다.

26)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가. 밖으로 근심이 없는 나라는 내부에 쟁란이 끊이지 않으며, 안으로 내분이 소강되어도 밖으로 침략하느라 바쁘다. 이런 때에 일본제국은 천황이 있어 백성이 있으며 백성이 있어 나라가 있다.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상하 뜻을 함께 하고자 서로 다투지 않는다. 특별한 나라에서 태평한 열락을 향유하는 것은 흡사 저 태산과 거기에 요예(搖曳)²⁷⁾하는 효운이 초연히 진흙 속에 떠 있는 먼지처럼 유유히 그 주변을 흐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더구나 제국의 무단전제(武斷專制)의 적습(積習)²⁸⁾은 바야흐로 점점 쇠퇴하고 유속(流俗)²⁹⁾의 기호는 더욱 고결한 기품으로 흘러들어 흡사 태산과 효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아 실로 제목에 부응하는 조짐이 많구나. 아아, 예부터 문사는 비통한 소리를 많이 하는 법이다. 우리는 무슨 행복이라, 이 나라에 태어나서 광휘로운 태평을 송가(頌歌)³⁰⁾하는 영광을 얻었도다! 이것으로 새해인사(迎正之辭)를 대신한다. 무릇 야인(野人)의 한낱 무사(蕪辭)³¹⁾에 불과하다.

계해년 새해
경북연구회
편집부 동인(同人)

27) 1. 흔들흔들 움직임이다. 2. 이리저리 거닐다.

28) 예로부터의 관습.

29) 1. 예로부터 전하여 오는 풍속. 2.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풍속.

30) (신의 영광, 군주의 덕, 영웅의 공적 따위를) 칭송하는 노래.

31) 1.잡초처럼 더부룩이 우거진 거친 말이라는 뜻으로, 되는대로 조리 없이 늘어놓는 난잡한 말. 2.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

현대 청년의 사명 (강연 필기)

경상북도 주최 '청년수양강습회'에서
경북연구회 부회장 하타 슈사쿠(秦秀作) 강연

유럽 전란³²⁾의 결과가 세상의 모든 방면, 특히 사상 방면에 큰 자극과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상의 변화는 우리 조선에도 파급되어 혈기 왕성한 청년의 두뇌를 크게 자극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상의 변화에서 시작된 사회 전체의 엄청난 혼돈, 궁박(窮迫)³³⁾, 음울(陰鬱)이 착종하는 시대에 앞으로 양어깨에 사회를 짊어질 현대의 청년들이 귀추(歸趨)³⁴⁾해야 할 곳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기탄없이 말하자면 종래에 조선 각 지방에서 족생(簇生)³⁵⁾한 청년회(靑年會)는 설립 동기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고 회원 가운데 자칫 불온한 사상을 품은 청년도 없지 않았다. 관(官)은 작년 무렵까지는 이런 종류의 청년회를 단지 소극적으로만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심 전체가 안정되고 각 지역 청년단도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는 바람직한 경향이 현저해졌기 때문에 당국도 종래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청년 사회의 중견 인물들에게 선의의 제후를 제안해 서로 진정을 피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 전체의 지도와 유액(誘掖)³⁶⁾을

32) 1차세계대전을 가리킴.

33) 몹시 쪼들림, 빈곤이 극심함.

34) 사람의 마음이나 사물의 돌아가는 형편.

35) 뭉쳐서 생겨남.

36) 이끌어서 도와줌.

도모하며 사회의 장래를 계소(繼紹)³⁷⁾할 인물로 만들어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이번에 제군과 같이 지력(智力), 문벌, 체력 등에서 탁월하고 지역에서 청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표적 유력자들과 이렇게 풍광이 명미(明媚)³⁸⁾한 영지(靈地)³⁹⁾에서 며칠에 걸쳐 숙식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강연, 체조, 의견 교환 등을 하고 청년 전체에 대한 지도 방안을 연구하면서 현대 청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제군들을 중심으로 일치 협력해 지역의 청년을 선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이유이다. 나는 덕도 부족하고 배움도 얕아서 제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만일 강연 내용 가운데 조금이라도 제군이 공감하는 것이 있고 훗날 제군이 지역 청년을 유액(誘掖)하는 데에 참고할 것이 있다면 다행스러울 따름이다.

중요한 시기

청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신체와 더불어 특히 정신은 아직 발달중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왕왕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세상에 관한 경험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믿고 쉽게 유혹되어 무모한 거동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청년기는 수양을 많이 쌓을 필요가 있다. 수양은 주로 학문에 기초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 교사, 그 밖에 친절한 선배의 말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독단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실패를 초래해 장래를 망친다. 내가 아는 청년 가운데 고일청(高一淸)⁴⁰⁾이라는 청년이 있다. 평안북도

37) 이어받아 계승함.

38) 경치가 맑고 아름다움.

39) 신령스러운 땅.

의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슬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현재 처지도 자신의 독단으로 함부로 행동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결코 사회인으로서 타고난 재질이 부족한 남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태어난 마을(鄉黨)의 또래(濟輩)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재주가 매우 뛰어났으며 슬기로움(慧敏)을 타고났다. 그는 타고난 해민함으로 자연스럽게 향당(鄉黨) 청년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조선에서 일어난 어떤 음모 사건이 폭로되었고 그는 연루 혐의자의 한 사람이 되어 제주도로 유적(流謫)⁴¹⁾당했다. 이렇게 2년을 지내는 동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

40) 1886년에 태어났고 사망 일자는 미상이다. 일제 강점기 관료이다. 본적은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이다. 1908년(융희 2) 대한협회 회원을 지내고, 1910년(융희 4)부터 1911년까지 평안북도 용천군 서기를 지냈다. 1912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3·1운동 이후 조선인 관리 동맹퇴직을 결의하고 상해로 탈출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재무부 비서국장, 임시공채관리국장,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7년 임시 정부기금 5만 원을 횡령해 독일로 유학, 베를린 대학 법문과를 졸업하고 1927년 귀국하였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는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면장을 지냈으며, 1933년에는 평안북도 도회의원이 되었다. 1935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로 활동하였으며, 1940년과 1942년 신의주 보호관찰심사회 예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일본의 통치에 협력하는 많은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1939년에는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강연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내선일체의 강화와 일제의 황국신민화를 정책적으로 선전하였다.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1944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로서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였다. 일제의 정책에 부응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금활동에 앞장섰다. 1937년 전적기념관 건설 기금모집단체인 보승회 회장을 지내며 10만 원을 모금하였고, 같은 해 고사포 헌납 기금모집 모임의 좌장으로 육천 원을 모금하기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38년에는 수년 간 사회교화에 종사하여 그 공을 인정받아 사회교화공적자표창을 받았다. 조선총독부가 1935년 편찬한『조선공로자명감』에 학식과 포부가 남달랐고, 인격과 수완이 평안북도 제일이었다는 평이 실려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41) 죄인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그곳에 있게 하던 형벌의 한 가지.

데 제주도에서 보낸 2년의 생활은 그에게 그야말로 절호의 수양의 시간이 되었다. 그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었는지는 돌아온 이후 그가 보여준 진실한 고백과 자책적 행동에 역력히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인재가 헛되이 묻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상사에게 헌언(獻言)⁴²⁾해 그를 도의 고원(雇員)⁴³⁾으로 채용했고, 그의 타고난 혜민함은 과연 제반 업무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판임관(判任官)⁴⁴⁾으로 등용되어 장래가 촉망되었다. 만일 그가 충실하게 직책을 유지했다면 아마도 지금은 군수가 될 수 있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마(天魔)⁴⁵⁾는 끝내 그를 흘렸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상하이로 갔다. 이후에 들어보니 상하이의 조선 임시정부 재무국장 자리에 낚여서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유럽에 망명해 참담한 생활을 하며 고향이 그리울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가끔 편지로 자신의 가벼운 행동을 깊이 참회하면서 절절한 망향의 애정(哀情)을 보내오는데 만일 그가 항상 선배와 친구의 말을 청취할 용의가 있어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자문하는 세심함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상하이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으로 망명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애절한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을 것이며 고향에 남겨 둔 처자를 비참한 생활고에 통곡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2) 임금에게 의견을 아뢰던 일.

43) 관청에서 사무를 돕기 위하여 두는 임시 직원.

44) 일제 강점기에 장관이 마음대로 임명하던 하위 관직. 천황의 위임을 받은 대신이나 지방 장관 등 행정관청의 차이 임명한 관리로 고등관 밑에 위치한다. 1946년에 폐지.

45) 사마(四魔)의 하나. 선인(善人)이나 수행자가 자신의 궁전과 권속(眷屬)을 없앨 것이라 하여 정법(正法)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魔王)을 이른다.

청년기는 유약한 신체와 정신이 점점 발육하고 발달하는 때이므로 신체가 가장 강건해지고 정신이 가장 왕성해질 시기이다. 따라서 유년 시절의 유약함이나 노년기의 쇠약과 비교하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단행하는 용기와 과단(果斷)⁴⁶⁾이 넘쳐서 일에 임할 때는 몸이 아픈 경우 말고는 보통 머뭇거리거나 나태해지는 일이 없다. 이처럼 크게는 사회의 일부터 작게는 자신과 일가의 일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결행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발해서 성취한 일들이 많았다.

무모함은 청년 시절에 가장 금물이지만 일단 해도 좋다고 결정한 것은 용기와 활력을 갖고 매진하는 것이 청년기에 가장 적합하다. 만일 청년이 아름다운 일과 선행으로 세상의 도리와 사람들 마음을 이롭게 해야 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며 용기를 조금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년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활기는 항상 청년이 발휘하고 유지한다. 이 점에서도 청년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업의 본래 취지(本旨)

무릇 인류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이 있어야 한다. 직업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의 의의를 얻을 수 있다. 즉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사회가 지탱되고 사회의 진보와 발달을 꾀할 수 있다. 예컨대 백성은 농사로, 상인은 상업으로, 직공은 공업으로, 군인은 군무(軍務)로, 관공리는 직무에 힘씀(勵精)⁴⁷⁾으로써 생산이 증가하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방을 주도면밀히

46) 일을 딱 잘라서 결정함.

47) 마음을 가다듬고 성의껏 힘씀.

하여 인류 공동의 원만한 생존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은 넓은 의미에서 인생의 권리이고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취생몽사(醉生夢死)⁴⁸⁾하는 삶은 단지 한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에 그칠 뿐이어서 엄격한 인생관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생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으로 태어나 크건 작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법률과 다른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가령 이와 같이 사회의 의무를 게을리하며 놀고먹는 사람들만 있는 것을 상상해 본다면 어떠한가? 사람들은 곧바로 기아에 허덕이고 사회는 무질서에 빠져서 약육강식의 야만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사회가 멸망하는 동시에 인류도 멸망한다.

이처럼 사람은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그 직업이란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과 두뇌를 주로 사용하는 직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종래에는 모두가 전자를 천하게 여기고 후자를 고상하게 여겨 후자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직업의 차이와 더불어 인류 사회에 계급이 발생했다. 일본에서는 ‘사농공상’으로 나누고 사(士)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 즉 주로 정신적(心勞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조선에서도 양반과 상한(常漢)⁴⁹⁾의 차이가 지금까지 여전하고 유럽에서도 귀족과 종교인 계급은 귀하게 여기고 서민은 천하게 여기면서 국가 제도와 사회적 지위에 구별을 두었는데 그 폐해가 극단에 치달자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 여하에 따라 사람을 위아래로 차별하는 것은 근대 사

48)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에 꾸는 꿈속에 살고죽는다’는 뜻으로 한평생을 아무 하는 일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9) 상놈.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던 말.

상에 반하는 것으로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국가와 사회는 관공리와 같이 정신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군인만 강하다고 해서 융성하는 것도 아니며 농민 또는 상공인만으로 유지할 수도 없다.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각자 그 직무에 전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번창을 꾀할 수 있다. 독일을 보라. 지금은 유럽 전란의 상처로 거의 멸망 상태에 빠져 있지만 전쟁 전에는 유럽, 아니 전세계 패권을 휘두를 정도로 왕성했다. 이는 ‘카이저(Kaiser)’⁵⁰⁾가 위대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군대가 강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보다 독일의 백성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이다. 독일 백성의 근면함은 칭다오(淸島)의 독일 포로로서 지금 강원도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독일 상인이 박리다매 주의로 전세계에 단골 고객이 있고, 제조업자가 견고하고 실용적인 것을 생산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일은 농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노력해 국력을 왕성하게 한 것이다. 농업과 기타 모든 직종의 노동(力役)⁵¹⁾에 종사하는 계급이 자신들의 힘과 분발과 노력으로 국가가 융성해진다고 자각한다면 농민과 기타 노동자들이 어찌 불만과 불평을 품겠는가.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완전히 수행했다고 느낄 때는 유쾌함과 만족감만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진보와 향상이 있고 영달(榮達)⁵²⁾이 있다. 이에 반해 자기 직업에 불평을 쏟아내고 자

50) 독일 황제의 칭호.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51)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제도. 주로 성곽이나 관아를 축조하거나, 도로를 고치는 따위의 토목 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던 것을 이른다.

52)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됨.

포자기하는 자에게는 영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직업에 따라 사람에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지 않거나 업무에 힘쓰지 않는 자의 인격이 열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따라서 정신적 노무에 종사하기만을 바라면서 인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농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낡은 사상과 진부한 관념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 생각임을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 청년이 시대 흐름에 맞추지 못한 채 오히려 시대착오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현대의 청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무릇 빈손으로 무위도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근로한 결과를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자 직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그러나 사람은 연령, 건강, 신체 차이 등으로 인해 업무상 능률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고 어린이, 노약자, 불구자, 환자와 같이 노무에 전혀 종사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도 적지 않다. 설령 노무에 다소 종사할 수 있다고 해도 능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청년은 대개 정신과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어떤 방면의 업무라도 충실하게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즉 청년기가 인류 생존을 위해 사회조직에 가장 많이 공헌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 점이 바로 청년이 사회의 중견인 이유이다.

사회봉사 정신

사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의 집단적 생존 조직을 가리킨다. 무릇 인류는 본래 고독하게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즉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관계를 벗어나

서는 결코 온전하게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은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사회에 의해 생존하는 존재이므로 그 누구라도 사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활상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개별 농가가 쌀을 수확했다고 해도 사회에서 이것을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산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양잠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팔지 못한다면 다른 필수품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반드시 사회에서 팔고 사회에서 사야 생활을 원만하게 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팔고 사면서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저축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저축할 수 있는 잉여 재산은 사회적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기 쉬운 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혼자 힘으로만 재산을 늘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치 성장한 후에 유년기 부모의 양육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나 자신이 매일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요컨대 사회적 관계의 은혜 덕분이며, 우리 인류는 사회를 벗어나서는 하루도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인류는 항상 사회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봉사 관념이 널리 고양된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사상이 진보한 결과로써 실로 기뻐할 일이다. 사회봉사의 정신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옛날에 관리가 인민을 거만하게 대하고 재산가와 문벌가가 자신의 힘을 믿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모질게 대했던 것은 오늘날과 같이 진보한 상황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사회조직이 복잡하므로 사회봉사의 방법이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때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공중(公衆)을 위한 교량 수축(修築), 도로수선, 홍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임시 구제 조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공동 식림 사업, 농사 개량 공동시설, 약자를 위한 빈민·병자·고아·행려병자 구제 등은 모두 진정한 사회봉사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들 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 또는 몇 명의 힘보다는 다수의 단결된 힘에 기초한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 따라서 사회봉사 사업은 동지(同志)의 매우 고상하고 보답하려는 정신에 기초한 협력을 중시해야 한다.

사회봉사에서 특히 청년에게 기대하는 것은 청년이 사회봉사를 본연의 의무로 자각하고 항상 서로 협력해서 사회봉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청년은 정신과 신체가 모두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의 여력을 할애해 사회봉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장 쉽고 가장 적합하다. 그 때문에 일본 본토에서도 청년단의 사회봉사 사업은 날로 활발해졌고 현재 각종 사회적 사업은 많은 경우 청년의 협동으로 커졌는데, 이는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경상북도에서도 점차 각지 청년단의 강한 자각과 분발로 각종 사회적 사업에 노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기쁜 현상이고 이후 전체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현대 청년이 사회에 임하는 방법과 사명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를 실천하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극기(克己), 겸양, 근검, 진지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경조부박(輕佻浮薄)⁵³⁾한 마음으로 허명을 알리려는 천박한 심리를 발동하는 것은 배척해야 한다.

(문책은 기자에게 있음)

53) 경솔하고 얕은 소견.

국운 신장의 원천을 찾아서

다쓰노 분이치(龍野文一)

1858년 ‘안세이(安政)의 개국’⁵⁴⁾ 이래로 최근 50여년 동안 일본 문화의 진보와 국운(國運)의 발전은 세계에서 기록적인 것으로서 서구인은 이를 기적으로 여기면서 어떤 불가해한 힘이 일본 국민 사이에 존재하기에 이와 같이 발달·진보한 것인지를 의구심과 함께 바라보는 동시에 일본 민족의 팽창에 대해 벌써 공포와 우려를 품는 사람들조차 있다. 일본의 선각자들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야마토 정신(大和魂), 무사도(武士道), 혹은 일본 민족 고유의 특징을 논하면서 외래문화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 민감하고 향상과 진보를 목숨처럼 여긴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정곡을 찔렀다고 할 수는 없다. 돌이켜 보면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부터 에도(江戸) 시대 초기에 이르는 약 200년 동안 일본의 선조는 대양의 파도를 가르며 유럽의 여러 국민과 교류하고 식민시(植民市)⁵⁵⁾를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건설했는데, 이들 식민시는 본국 정부의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54) ‘안세이(安政)의 개국’은 1858년에 도쿠가와 마구의 대로(大老)였던 이이 나 오스케(())가 미일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 개국한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대하는 다이묘 등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을 탄압해 대거 투옥한 ‘안세이의 대옥’이 이었다.

55) ‘식민시’는 고대 도시국가가 식민을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한 도시에서 유래했다. 모국에 종속되지 않는 자치 독립의 도시국가였다. 페니키아가 건설한 카르타고가 유명하다. 그리스인들은 흑해와 지중해 연안에 특히 많은 식민시를 건설했다. 로마 시대의 식민시는 군사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 많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무로마치 시대 말기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동남아시아 지역에 구축한 무역 거점을 지칭하고 있다.

채 식민시 상호 간의 연계도 없이 식민의 움직임이 격렬한 가운데 동포의 단결력이 매우 견고해서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 대항해 항상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인도 및 유럽의 넓은 지역 문화의 결실을 활발하게 흡수하고, 이들 국가의 진화이물(珍貨異物)을 수입해 그들 문화와 일본 문화의 장단점을 비교 고찰해서 장점을 흡수하면서 그 정수(精髓)를 고유문화와 융합했다. 한편 유럽 열강이 신영토 획득에 급급해 침략의 손길을 사방에 뻗칠 때 의연하게 동방의 바다 입구에 버티고 서서 국위를 떨어트리지 않고 위엄있게 서력동점(西力東漸)의 대세에 맞서지 않았다면 아무리 야마토 정신과 무사도가 있고 향상과 진보를 생명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겨우 50년만에 이와 같은 진보와 발달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현대 일본의 국운 발전과 문화 진보는 이미 300년 전에 배태되었고, 도쿠가와 시대 220년의 쇄국 시대라고 부르는 잠재적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에 선행하는 준비는 실로 16세기 후반기부터 17세기 전반기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시대야말로 일본 국민의 제1차 동서 문화 접촉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문화의 유래를 밝히고 국운 신장의 요인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이 시대 일본 국민의 대외 활약 역사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역사를 조사해 보면 일본 국민의 해외 발전 기운이 왕성했던 것은 무로마치 시대 말기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이르는 약 200년 기간으로 그 선구는 이른바 왜구(倭寇)였다. 호탕하고 속박받지 않은 변방의 민(民)은 가마쿠라 시대부터 이미 국내에 안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대륙의 연안을 항해하며 무역을 활발히 했고, 때때로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겁탈

과 노략을 했으며 멀리 남태평양까지 항해하면서 가는 곳마다 침범과 약탈을 일삼아 그 행동은 거의 해적과 다를 바 없었다. 방약무인해서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사람들은 귀신처럼 여기며 무서워해 ‘왜구가 온다’는 말은 우는 아이의 울음도 곧잘 멈추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구의 유래를 찾아보면 그 시작은 중국과 조선의 간상(奸商)이 서로 모의해 일본인을 속여 화물을 탈취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리 및 호족과 결탁해 함부로 토벌하고 병력을 동원해 일본 땅을 구축(驅逐)하려고 시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호탕하고 표한(標悍)⁵⁶⁾한 우리 일본인이 어찌 이 부당한 모욕에 침묵했겠는가. 왜구는 이에 분연히 일어나 응수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처음부터 약탈과 침략을 목적으로 도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황명실기(皇明實紀)』를 보아도 분명하다. 왜구의 자취와 기원, 행동의 시비에 대해서는 필자도 다소 소견이 없지 않지만, 이 글의 목적은 다른 부분에 있으므로 왜구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쓰도록 하겠다. 아무튼 일본 국민의 해외 웅비의 선구가 왜구라는 것은 덮을 수 없는 사실이다.

왜구 세력이 왕성할 때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명나라를 통해서 무역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이 있었다. 이에 1379-80년(덴주(天授)⁵⁷⁾ 5-6년)에 두 번에 걸쳐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 수교를 요청했지만 명나라 황제는 문서(辭)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이후 요시미쓰는 머리를 밀고 미치요시(道義)라 칭하며 금각사에 퇴거(退居)⁵⁸⁾하고 있었는데 막부의

56) 날렵하고 사나움.

57) 일본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연호의 하나이다. 남조의 주케(長慶) 천황 때의 연호로 1375년-1381년 기간에 해당한다.

58) 속세에서 떨어져 조용히 생활하는 것.

곳간이 비어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쓰쿠시(筑紫)⁵⁹의 상인 고이도미(肥富)⁶⁰가 명나라와의 통상이 유리하다는 것을 진언하자 미치요시는 다시 마음을 움직여 1401년(오에(應永)⁶¹ 8년)에 고이도미를 정사(正使)로 해서 자세를 낮춘 문서(辭)를 보내 수교를 요청했다. 명나라의 혜제(惠帝)⁶²는 이를 받아들여 답서를 보냈다. 혜제의 문서는 매우 거만하고 미치요시를 일본국왕에 봉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미치요시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 1403년(오에 10년)에 승려 게미쓰(圭密)⁶³와 보운(梵雲)⁶⁴ 등을 보내어 보빙(報聘)⁶⁵했다. 게미쓰와 보운 등이 돌아올 때 명나라 성조(成祖)⁶⁶는 조거인(趙居仁)을 정사로 보내어 답빙(答聘)하게 했고 미치요시에게 왕자의 관복과 약간의 방물(方物)⁶⁷을 보내는 동시에 감합부(勘合符)⁶⁸를 보내 통상의 신뢰

59) 지금의 기타규슈시(北九州市).

60) 무로마치 시대 규슈 하카타(博多)의 상인. 위에 있듯이 1401년에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사신으로 명나라에 건너가 무역 개시 교섭을 했다.

61) 일본 연호의 하나이다. 1394년-1428년 기간에 해당한다. 원문의 ‘永應’은 ‘應永’의 오류이다.

62) 명나라의 2대 황제이다. 명태조 주원장의 손자이자 의문태자 주표의 둘째아들이며 연호는 건문이다. 정난지변 후에 행방불명되었다.

63) 겐추 게미쓰(堅中圭密).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고승.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정사로서 명나라에 건너가 다음 해에 명나라 사신과 함께 귀국했다.

64) 쇼안 보운(祥庵梵雲). 겐추 게미쓰(堅中圭密)가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정사로서 명나라에 갔을 때 동행했던 승려 가운데 한 명. 원자료에서 ‘보운(梵雲)’에 해당하는 한자는 오식.

65) 예빙(禮聘)이라고도 한다. 예의를 다해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상황에 적용하면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승려 겐추 게미쓰를 명나라에 보내어 명나라 사신을 초청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66) 명나라 3대 황제이다. 1402년에 황제로 등극했고 연호가 영락(永樂)이었기 때문에 영락제, 혹은 영락대제로 불린다. 남북 변방의 수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여러 차례 정화(鄭和)를 서양에 보내어 대외교류를 강화했다.

67) 토산품.

68) 왜구와의 사무역을 막기 위해 명나라 조정에서 무로마치 막부에 주어 정식 무역선의 증표로 삼게 한 부절을 가리킨다.

를 이를 것을 전했으며 영파(甯波)⁶⁹를 무역장(貿易場)으로 정했다. 조거인 등은 1404년(오에 11년) 5월에 입경해 미치요시를 알현하고 양국의 맹약을 맺었다. 이로써 처음으로 양국 정부는 평화와 친목의 관계를 맺고 통상무역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이 감합부는 감합인(勘合印)을 찍어서 나눈 부절(割符)⁷⁰로 무역의 자유를 보증하는 일종의 증거문서이고 감합인저부(勘合印底簿)라는 장부가 있어서 하나하나 이와 대조해 감합인의 진위를 감별했다. 이 방법은 일본어 감합부 100장과 일본측 도장 저부(底簿) 2권, 중국어 감합부 100장과 중국측 도장 저부 2권을 만들어 일본어 감합부 100장과 일본·중국 양측 도장 저부 각 1권은 명나라 예부(禮部)에 보관했고, 중국어 감합부 100장과 일본측 도장 저부 1권은 일본에 보내 아시카가 막부가 보관했으며, 중국측 저부 1권은 복건(福建)에 있는 포교부(布教府)에서 이를 보관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출발한 무역선은 아시카가 막부에서 중국어 감합부 1장과 선박수, 승선인, 적재품 목록을 기재한 증서를 발급받아 영파항에서 명나라 관리에게 제출하고 명나라 관헌은 감합부와 도장 저부(底簿)를 대조해서 도장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 않을 때 무역을 허가했다. 일본으로 돌아올 때는 명나라에서 일본어 감합부 1장을 받아 귀국한 후에 막부에서 보관하던 도장 저부와 대조해 감별했는데, 감합부는 중국측에서는 왜구를 방지하는 수단이었고 일본측에서는 변방의 불령한 무리가 이웃나라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선린국보기(善

69) 일반적으로 ‘寧波’로 표기한다. 원자료의 한자 ‘甯波’는 오식일 가능성이 있다. 영파는 중국 절강성 동북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당·송대부터 대외 해상무역항으로 명성이 높았다. 고대 이래로 대외무역항이었던 영파는 ‘해상 실크로드의 동북 출발지 항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

70) 후일에 맞춰 보아서 증거로 하는 문서나 감찰 따위.

鄰國寶記』⁷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치요시는 명나라의 감합부를 받자 오우치 모리미(大內盛見)⁷²⁾에게 그 사무를 맡겼고, 이로써 명나라와의 무역은 이후 오우치 가문이 대대로 관장하게 되었다. 감합부를 받아 명나라에 항행(航行)하는 자는 일본 여러 지역의 슈고(守護)⁷³⁾를 비롯해 오산(五山)과 남도(南都)⁷⁴⁾의 승려 및 효고(兵庫)⁷⁵⁾ 인근의 상인 등이 매우 많았고 막부도 진공선(進貢船)이라고 이름붙인 통상 선박을 보냈다. 진공선에는 공물(貢物) 이외에 상품도 실어서 큰 이익을 얻으면서 명나라와의 무역이 점차 활발해졌다. 그런데 아시카가 요시미치는 명의 봉책을 받아 스스로 신하(臣)로 칭하고 일본 조정을 능욕한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고 임종할 때 유명(遺命)으로 수교를 단절했다.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⁷⁶⁾가 그 말을 지켜 몇 번에 걸쳐 명나라 사신을 거절해 국교가 중단되려던 때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⁷⁷⁾가 요시모치를 습격하고

71) 일본 교토의 상국사(相國寺) 승려 즈이케 슈호(西溪周鳳)가 한문으로 작성한 외교 자료집. 일본 최초의 외교사 책으로 알려져 있다. 총 3권이다. 서문에는 1466년, 후서(後書)에는 1470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다. 단 일부 문서에는 1486년이라고 적힌 것도 있어서 1473년에 기록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72) 무로마치 시대 무장이었다. 규슈 지역을 세력 기반으로 했다.

73) 일본 무로마치 시대 직책명. 군사 및 경찰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했다. 무로마치 시대에 점차 영지 지배가 진행되어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라고 불리게 되었다.

74) 오산(五山)은 교토에 있었던 5개의 선종 사원을 가리킨다. 무로마치 시대의 아시카가 요시미치 대에 성립되었다. 남도(南都)는 남도칠대사(南都七大寺)를 가리킨다. 나라시대 때부터 조정의 보호를 받았던 7개 관사(官寺)를 가리킨다.

75) 현재 일본 관서 지역에서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76) 아시카가 요시미치의 뒤를 이어 무로마치 막부 제4대 정이대장군이 된 인물이다.

77) 무로마치 막부의 제6대 정이대장군이 되는 인물이다. 제3대 아시카가 요시미치의 아들이다. 그는 난을 일으켜 요시미치를 패사시켰다. 그는 종래에 공포정치를 펼친 폭군으로 평가되었다.

1432년(예쿄(永享)⁷⁸) 4년)에 다시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빙(貢聘)⁷⁹하도록 했다. 이에 국교가 다시 이전처럼 회복되고 명나라 사신이 일본에 왔으며 사신과 함께 감합부 200장이 왔다. 이후에도 계속 감합부를 받아 명나라와의 무역은 점점 활발해져 명나라를 왕래하는 공상(公商)과 사상(私商)이 줄지어 늘어섰다. 이처럼 도항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은 여차하면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호탕한 기상을 드러내 고가(沽價)⁸⁰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명나라 사람의 대우나 응접이 적당하지 않으면 갑자기 경솔하게 폭행했다. 1465년(간쇼(寬正)⁸¹) 6년)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⁸²가 사신으로 보낸 승려 세이케이(清啓)⁸³는 종자가 명나라 사람에게 부상을 입혀서 명나라 관리가 종자를 체포해 명나라 법에 따라 벌하려 하자 “범법자는 본국의 형벌로 다루어야 하므로 귀국해서 이를 법에 따라 논할 것이다(犯法者當用本國之刑宣還國如法論之)”라며 일종의 치외법권(人外法權)을 주장해 끝내 명나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했다. 1446년(분안(文安)⁸⁴) 3년)에 오우치 요시오키(大內義興)⁸⁵가 사신으로 보낸 승려 소세쓰(宗設)은 명나라 관리의 불법에 분노해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다. 사신으로 간 승려가 이와 같았으니 다른 무리의 행동은 이

78) 무로마치 시대 일본 연호의 하나. 1429년부터 1441년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79) ‘공납(貢納)’과 같은 의미로 공물 등을 받치는 것을 의미한다.

80)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일본에서 조정이나 막부에서 지정한 시장의 공정가격. 위에서는 거래 가격의 의미 정도로 판단된다.

81) 일본 무로마치 시대 연호의 하나. 1460년부터 1466년까지를 가리킨다.

82) 무로마치 막부 제8대 정이대장군. 아시카가 요시노리의 아들이다. 1449년부터 1473년까지 정이대장군을 지냈다.

83) 덴노 세케이(天与清啓). 그는 간쇼 원년에 명나라에 파견되는 정사(正使)에 임명되었다.

84) 일본 무로마치 시대 연호의 하나. 1444년부터 1449년까지를 가리킨다.

85) 무로마치 시대 무장. 1477년부터 1529년까지 생존했다.

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오우치 요시다카(大内義隆)⁸⁶⁾는 1547년(덴분(天文)⁸⁷⁾ 16년)에 ‘도당선법도(渡唐船法度)’ 26개조를 정해서 평화적 통상을 촉진하는 데에 힘썼다. 그러나 1551년(덴분 20년) 9월에 오우치 요시다카를 그의 신하 스에 하루카타(陶晴賢)⁸⁸⁾가 살해하면서 오우치 가문은 멸망했고 감합부(勘合符)도 병란으로 소실되었으며 이때부터 일본은 전국시대(戰國時代)가 되어 전쟁과 소요가 그치지 않았다. 이에 명나라에 감합부를 다시 요청할 여유도 없었고 동시에 아시카가처럼 굴욕적 수교를 할 후계자도 없어서 이상과 같이 발달했던 일본과 명나라의 통상무역은 이때 어쩔 수 없이 일대 좌절을 보게 되었다. 당시 무역품은 일본에서는 대검, 부채, 동, 유황, 황, 병풍, 갑옷, 창, 호박, 소목(蘇木)⁸⁹⁾, 우피, 첩금(貼金)⁹⁰⁾, 사금(灑金)⁹¹⁾, 주자(厨子)⁹²⁾ 등을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도검(刀劍)은 일본의 정영(精英)⁹³⁾으로서 수출품 가운데 주요품목을 차지했고 가격도 고가였다. 수입품은 백사(白絲:생사), 면사, 실·직물, 명주, 면, 수홍사(繡紅絲)⁹⁴⁾, 수은, 침, 연철(鍊鐵), 철석(鐵錫), 자석, 고서, 고화(古畫), 약재, 전##(氈##)⁹⁵⁾, 마배전(馬背氈)⁹⁶⁾, 분작(粉醋) 등이

86) 무로마치 시대 무장. 오우치 요시오키의 아들이다.

87) 일본 전국시대 연호의 하나. 1532년부터 1555년까지를 가리킨다.

88) 일본 전국시대의 무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우치 요시타카의 중신이 되었다. 1551년에 아마구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오우치 요시타카를 자살하도록 했다.

89) 콩과에 속하는 상록 교목, 또는 그것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90) 종이같이 얇게 만든 금조각.

91) 금가루를 뿌린 천.

92) 두 개의 문짝이 달린 귀(장).

93) 정예롭고 뛰어난 사물이나 사람.

94) 홍사는 붉은 물을 들인 실이다. 이에 수홍사는 자수용 붉은 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95) 털로 짠 모직물, 양탄자.

96) 말 안장 위에 까는 모직물.

었고 이 가운데 백사(생사)가 주요품목이었다.

중국 연안에서 일본인의 활약은 이상과 같았는데 동남아시아 및 남태평양 방면으로 눈을 돌리면 1511년(에세이(永正)⁹⁷) 8년)에 이미 일본인은 멀리 말라카(Malacca)에서 통상을 했다. 이후 아시카가 가문이 멸망하면서 일본의 서남쪽 지역의 지사는 낙락(落落)⁹⁸ 영웅심을 누르기 어려워 기회가 있으면 서로 모여서 해외 웅비를 기획해 한 척의 작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와 중국해의 파도를 돌파해 베트남(安南), 캄보디아(柬埔寨), 필리핀 루손(呂宋) 등에 상륙해 집단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유로운 식민시(植民市)를 건설했다. 이후 1543년(덴분(天文) 12년)에는 포르투갈 사람이 일본에 처음 내항하는 등 유럽 국가와의 통상무역도 시작되어 내항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졌는데 그 시점에 기독교 선교사 가운데 불령한 일을 꾸며 일본의 통치권에 동요를 일으키려는 징후가 있었다. 대담한 동시에 세심한 주의력을 지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일찍이 선교사의 기획을 간파하고 1584년(덴세이(天正)⁹⁹) 15년)에 시마즈(島津) 가문을 보내 규슈를 평정하게 했으며, 같은 해 6월 19일에 기리스탄 금교령을 국내에 포고하고 20일 기한을 설정해 사제(伴天連)¹⁰⁰의 퇴거를 명령했다. 이전에 사제들이 점거한 나가사키의 땅을 몰수해 공령(公領)¹⁰¹으로 삼기도 했지만, 외국과의 통상·무역에 관해서는 포르투갈 사람의 내항을 포함해서 조금도 구속하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역선은 무역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

97) 일본 무로마치 시대 연호의 하나. 1504년부터 1521년까지를 가리킨다.

98) 도량이 넓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다.

99) 일본 연호의 하나. 1573년부터 1592년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100) ‘바테렌’은 선교사를 의미한다. 포르투갈어 ‘파드레(padre)’에서 유래했다.

사제와 신부를 의미하고 사제직에 있는 성직자를 가리킨다.

101) 공권력이 지배 대상으로 하는 토지.

에 이번 금교령과 별개이므로 이후에도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불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인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기독교도 국가에서 오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허락한다(一黑船之儀商賣之事候間格別之事年月經諸事賣買可仕候一, 自今以後佛教之妨不爲輩商人之儀 不及申何 切支丹國 往返不苦候條可得其意事)’라고 포고령을 내려 금교(禁教)와 통상의 큰 방침을 국내외에 선언했다. 또한 국내외 해적을 진압해 해상 왕래의 평안을 기하는 것이 해외 무역을 왕성하게 하는 데에 급선무였기 때문에 1585년 7월 8일에 다음과 같은 엄령(嚴令)을 발표해 건실한 통상을 장려하면서 국가의 부를 배양하는 데에 노력했다.

1. 일본 각지 해상에서 해적 행위를 하는 배를 엄금했는데 이번에 빈고(備後)¹⁰²⁾와 이요(伊豫)¹⁰³⁾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이쓰키 섬(伊津喜島)에서 해적 행위를 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는 불법이다. (諸國於海上賊船之儀堅被成御停止之處今度備後伊豫兩國之間伊津喜島にて盜船仕之族在之由被聽食曲事に思食事)
2. 전국 방방곡곡의 선두(船頭)와 엽사(獵師) 모두 배를 사용하는 자는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지두(地頭) 혹은 대관(代官)이 책임지고 신속히 취조해서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명하고 연판(連判)해서 국주(國主)가 그 서약서를 수합해 올리도록 하라.

102) ‘備後’는 에도 시대 지역 국명(國名)의 하나. 현재 행정 구역의 히로시마 현 동부 지역에 해당한다.

103) ‘伊予’는 에도 시대 지역 국명(國名)의 하나. 현재 행정 구역의 에히메 현 전 지역에 해당한다.

(國々浦々船頭獵師何れも舟つかひ候もの其所の地頭代官をして速に相改向後聊以海賊仕ましき由誓紙申付連判をさせ其国主取あつめ可上申事)

3. 앞으로 급인(給人)¹⁰⁴과 영주(領主)의 부주의(油斷)로 해적 행위를 하는 자가 나타난 경우는 처벌(成敗)하고 불법한 위치에 있는 자를 엄벌하며 지행(知行)¹⁰⁵ 이하는 영원히 몰수하도록 한다. (自今以後給人領主致油斷海賊之輩於在之者被加御成敗曲事之在所知行以下末代可被召上事)

이상을 엄하게 명령한다. 만에 하나 이를 어기는 자는 곧바로 엄하게 단죄할 것이다.

(右條々堅可申付若違背之族在之者忽可被處嚴科也)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외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교토(京都), 사카이(堺), 나가사키(長崎) 등지에서 대자본을 소유한 부상(富商)을 선발해 1592년(분로쿠(文祿)¹⁰⁶ 원년)에 주인장(朱印狀)을 주어 해외 무역에 대한 특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주인선(朱印船)의 효시이다. 분로쿠의 주인선 제도에 관해서는 사료가 부족해 자세하지는 않지만 『나가사키 지(長崎誌)』에 따르면 “분로쿠 원년부터 나가사키, 교토, 사카이 사람은 주인장을 받아 광남(廣南)¹⁰⁷, 통킨(東京)¹⁰⁸, 참바(占城)¹⁰⁹, 캄보디아, 타이(六昆),

104) 일본 중세 시대에 막부나 주군으로부터 은급을 받았던 사람, 또는 영주의 명령을 받고 영지를 지배했던 사람.

105) 일본에서 봉건 시대에 무사들에게 지급되었던 봉토와 봉록.

106) 일본 연호의 하나. 1592년부터 1596년까지 기간을 가리킨다.

107) 중국 운남성에 위치하는 지역,

108) 현재의 베트남 북부 지역.

109) 현재의 베트남 동남부 지역.

말레이시아(大泥), 삼(暹羅), 타이완(臺灣), 루손(呂宋), 마카오(阿媽港) 등지에 상업을 위해 건너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는 나가사키에서 5척, 교토에서 3척, 사카이에서 1척”이었다고 적혀 있다. 이렇게 주인장을 받은 사람은 나가사키에서는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¹¹⁰⁾, 후나모토 야헤이지(船本彌平次)¹¹¹⁾, 아라키 소타로(荒木宗太郎)¹¹²⁾, 이토야 즈이에몬(糸屋隨右衛門)¹¹³⁾ 4명, 교토에서는 차야 시로지로(茶屋四郎次郎)¹¹⁴⁾, 스미노쿠라(角倉)¹¹⁵⁾, 후시미야(伏見屋)¹¹⁶⁾ 3명, 사카이에서는 이세야(伊勢屋)¹¹⁷⁾ 1명이었다. 이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정권을 잡은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이어받아 주인선을 활발하게 해외로 파견해 통상무역을 장려하면서 주인선 제도는 형식과 내용을 정연하게 갖추었다. ‘주인선’이란 주인장을 가진 배를 뜻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경칭해서 ‘어주인선(御朱印船)’이라고 불렀다. 주인장은 어떤 특권을 부여할 때 수여하는 증서로 쇼군(將軍)¹¹⁸⁾의 공인(公印)을 찍었으며 노중(老中)¹¹⁹⁾이 쇼군의 뜻

110) 1546-1630. 에도시대 초기의 무역 상인. 나가사키의 대관(代官)이었다.

111) 주인선 무역 시대에 활약했던 일본 나가사키 지역의 호상. 원래 무사였다가 나가사키에 와서 무사를 폐업하고 상인이 되었다고 한다.

112) 위의 아라키 소타로 등과 함께 주인선 무역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 후나모토 야헤지도 아라키 소타로와 마찬가지로 한 척의 배로 주인선 무역에 참여한 인물로 확인된다.

113) 1586-1650. 에도시대 초기의 무역 상인. 나가사키 사람이다. 주인선 무역에 종사하면서 필리핀 루손 섬에 24회 도항했다고 한다.

114)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걸쳐 공의오복사(公儀吳服師)를 세습했던 교토의 호상.

115) 스미노쿠라 료이(角倉了以, 1554-1614).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활약했던 교토의 호상.

116) 인명이 아닌 상호이다. 상호로 추론하면 오사카 방면의 교토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었던 상점으로 추정된다.

117) 사카이는 현재 오사카 남부 지역이다. 이에 ‘이세야’는 위의 ‘후시미야’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에 있던 상점으로 추정된다.

을 받들어 이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봉서(奉書)’라고도 하고 주인선을 ‘봉서선(奉書船)’이라고도 불렀다. 주인선 가운데는 외국에 도항하는 배와 국내를 항해하는 배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국에 도항하는 주인선을 말한다. 주인선 제도는 분로쿠 원년에 시작해 도쿠가와 시대에 이르러 정비된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에 주인장 교부는 노중(老中)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¹²⁰가 이를 관장해 주인장 교부 청원이 있을 때 신분, 품행, 자산 등을 조사해 허가 여부를 전결했다. 주인장을 제작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 사무에 관여한 교토 선종 사찰의 장로(長老)¹²¹로 최초로 선발된 것은 호코지(豊光寺)¹²²의 조타이(承兌)¹²³였고 그가 죽자 엔코지(圓光寺)¹²⁴의 겐키츠(元佶)¹²⁵가 그 뒤를 이었다. 1612년(게이초(應長)¹²⁶) 17년에 겐키치가 사망한 이후에는 곤치인(金地院)¹²⁷의 스덴(崇傳)¹²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주인장 제작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를

118)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의 줄임말. 여기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최고 권력자를 가리킨다.

119) 일본 에도 막부의 정무를 총괄했던 최고직.

120) 1565-1637.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생존했던 무장이자 다이묘. 에도막부의 노추(老中)를 지냈다.

121) 학식과 경험이 많고 깨달음이 깊으며 덕망 있는 승려.

122) 교토에 있는 사찰로 임제종 쇼고쿠지 파(相国寺派)에 속한다. 쇼고쿠지 경내 북서쪽에 있다.

123) 사이쇼 조타이(西笑承兌, 1548-1608).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생존했던 임제종의 승려. ‘쇼고쿠지 조타이(相国寺 承兌), 타이초로(兌長老)’라고도 불렀다.

124) 교토에 있는 임제종 남선사파(南禪寺派) 사찰이다.

125) 산요 겐키츠(三要元佶, 1548-1612).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 초기에 걸쳐 생존했던 임제종 승려.

126) 일본 연호의 하나. 1596년-1615년 기간을 가리킨다.

127) 일본 교토에 있는 사찰로 일본 난젠지(南禪寺)의 태두이다.

128) 이신 스덴(以心崇傳, 1569-1633). 일본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 생존했던 임제종 승려. ‘곤치인 스덴’이라고도 불렀다.

작성하는 필경자(筆耕者) 역할에 그쳤고, 노중 혼다 마사즈미가 작성한 문서를 송부해 막부 대장군의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주인장으로서 효력을 지녔다. 선주(船主)는 주인장을 제작하는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제작자에게 ‘필공(筆功)’이라고 해서 백은(은 43돈(匁))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흰 종이 한 장으로 감쌌기 때문에 ‘한 장 포(一枚包)’라고도 불렀다. 작성자는 주인장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도항지에 따라 분류한 장부를 비치했고, 장부 명칭은 작성자에 따라 달랐다. 조타이와 겐키치가 작성한 것은 『이국어주인장부(異國御朱印帳)』라고 불렀고, 스덴이 작성한 것은 『이국도해어주인장부(異國渡海御朱印帳)』라고 불렀다. 이처럼 2대 막부 대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에도 변함없이 주인선을 해외에 파견하고 통상 교역을 장려하면서 이를 조금도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장을 받아 해외로 도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교토의 난젠지(南禪寺)가 소장하고 있는 『이국어주인장부』에 기재된 것만 보아도 80여명을 넘는다. 이를 통해 주인선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당시 무역품은 일본에서 수출한 것은 동, 도검, 동기(銅器), 칠기, 마키에(蒔繪)¹²⁹, 우산, 질부채(扇子), 병풍, 장뇌(樟腦)¹³⁰, 유황(硫黃), 맥분(麥粉) 식료품 등이었고, 외국에서 수입된 화물은 생사, 직물화포(織物花布)¹³¹, 설탕, 약재, 가라(伽羅)¹³², 정자(丁子)¹³³, 당목(唐木)¹³⁴, 사슴 가죽, 산호, 도자기, 소방(蘇枋)¹³⁵,

129) 금은 가루로 칠기 표면에 무늬를 놓는 일본 특유의 공예.

130) 녹나무를 증류하여 얻는, 특유의 향기가 있는 화합물. 방부제, 구충제, 강심제 등을 만드는 데 쓴다.

131) 짙은 감색 천에 하얀 꽃모양을 넣은 목면.

132) 팔꽃나뭇과의 상록 교목. 나뭇진을 향료로 사용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133) 다색계 식물성 염료의 하나이다. 모로코가 우너산지이다. 열매의 봉우리가

철기, 철 등이 주요품목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책은 기독교는 단호히 금지하면서도 외국에서 오는 상선에 대해서는 이른바 자유무역 제도 아래서 상품거래를 방임하면서 검속과 제한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국선박에 대항해 해외로 주인선을 적극적으로 파견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영국인을 고용해 조선술(造船術)을 연구하게 하는 등 동서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외국인을 대할 때 모든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른바 ‘화이일체원이일양(華夷一體遠邇一樣)’¹³⁶⁾을 제일로 여겼다. 위정자가 이러했으니 어찌 향상과 진보를 생명으로 삼고 해외 웅비의 기상이 넘쳤던 일본인이 국내에 안주하면서 얼마 안되는 주인선 무역에 만족했겠는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려는 사람이 많아 향료 제도(香料諸島)¹³⁷⁾, 루손, 캄보디아, 시암(暹羅) 등은 일본인의 자유로운 식민시(植民市)가 되었고 혁혁한 용기와 착실하면서 도리를 갖춘 행동은 모든 외국인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1606년(게이초 11년)에 네덜란드의 코르넬리스 마테리프(Cornelis Matelief de Jonge)가 11척의 함대를 이끌고 인도에 와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말라카 시를 습격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을 도와 마테리프의 공격을 격퇴한 것, 1619년(겐나(元和)¹³⁸⁾ 5

되는 것을 건조시킨 것이며 이것을 정자 또는 정향이라 하여 대대로 전해 온 유명한 향료였다.

134) 단단, 백단 등 열대산 목재의 총칭.

135) 다목. 열대 지방에서 나는 수목의 하나. 다목나무를 삶은 검붉은 물감을 가리키기도 한다.

136) ‘중국과 다른 외국은 하나이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은 모두 같다’는 의미.

137) 인도네시아 동부 슬라웨시섬과 뉴기니섬 사이에 있는 섬들. 적도 무풍대에 속하며 과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쟁탈지였으나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이다. 정향, 육두구 따위의 산지이다.

년에 영국 함대가 동인도에서 네덜란드의 근거지를 습격했을 때 일본인 일부가 네덜란드 수비대와 함께 그 지역의 성채(城寨)를 방어한 것, 1615년(겐나 원년)에 야마다 나가마사(山田長政)¹³⁹⁾가 시암(Syam)에 재류하는 일본인을 이끌고 시암 왕을 위해 리고르(六崑, Ligor)를 토벌해 무위를 빛낸 것은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 포르투갈인, 네덜란드, 그리고 현지의 군왕과 추장도 일본인의 무력과 의협심에 기대어 외적을 막고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일본인의 용맹은 동남아시아를 압도한 느낌이었다. 이를 통해 해외 웅비의 상황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543년(덴분(天文) 12년)에 포르투갈인이 처음 일본에 내항해 나가사키 땅을 점거하고 천주교를 퍼뜨렸는데, 당시 일본은 종교 혁명운동의 여세로 국민의 열광적 신앙심이 고무되어 국민들이 천주교에 많이 기울어 마침내는 상도(常軌)를 벗어난 행동을 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호하게 천주교를 금지·탄압하고 선교사를 추방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무역선은 무역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금교령과 별개이므로 이후에도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로 무역을 제약하지 않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기독교가 국가에 이롭지 않다고 하여 이를 금지했고 천주교 포교는 절대적으로 불허했지만, 해외 교통의 발달과 통상무역의 진전은 계속 열망하면서 전혀 구속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이렇게 통상은 오히려 장려했는데 포르투갈인이 몰래 천주교를 포교하는 일은 근절되지 않았다. 심지어 교토에서 백주대야에 설교를 하는 외국 선교사도 있어서 천주교가 다시 왕성해지려는 경향을

138) 일본 연호의 하나. 1615년-1624년 기간을 가리킨다.

139) 일본 에도시대 전기에 타이의 일본인 구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한 인물. 1590년경에 태어나 1630년에 세상을 떠났다.

보이자 1632년(간에이(寬永)¹⁴⁰) 9년) 장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¹⁴¹)가 죽고 그의 아들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가 대장군 직을 계승하자 외국인 무역장을 나가사키(長崎)와 히라도(平戸) 두 곳으로 한정하고 주인선 이외에는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내치의 정비와 기독교 근절을 계획했다. 그러나 천주교 신도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몰래 열렬한 신앙을 유지했고 외국 선교사 또한 상인으로 가장해 비밀리에 포교했다. 막부는 그 세력이 매우 커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도쿠가와 막부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연결되면서 마침내 1637년(간에 14년)에 시마바라(島原)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세력을 정벌하던 이타쿠라 시게마사(板倉重昌)가 전사하는 등 규슈의 다이묘들은 어찌 할 바를 몰랐다. 다음 해 2월에 마쓰다이라 노부쓰나(松平信綱), 도다 우지카네(戸田氏鐵) 등을 보내어 겨우 성을 함락했다. 이처럼 기독교의 폐해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자 막부는 사교(邪教) 금지를 단행하고 1639년(간에이 16년) 7월 5일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일본인의 해외 도항도 엄격히 금지하고 외국을 향해하는 큰 배의 건조를 금지했다. 소수의 중국인과 네덜란드인만 나가사키에 한정해서 무역을 허락받았는데 이로써 국가 전체를 쇄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의 해외 무역은 또다시 크게 좌절되었지만 밀무역은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은 간분(寬文)¹⁴²) 연간(1661-1673)의 이토 고자에몬(伊藤小左衛門)¹⁴³), 엔포(延

140) 일본 연호의 하나. 1624년-1644년 기간을 가리킨다.

141) 원자료 오류 수정. 원자료에는 ‘히데쓰구(秀次)’라고 되어 있으나 에도막부 2대 대장군은 ‘히데타다(秀忠)’였다.

142) 일본 연호의 하나. 1661년-1673년 기간을 가리킨다.

143) ?-1667. 출생 연도 미상. 일본 에도시대 초기 후쿠오카번의 인물. 하카타 지역에서 2대에 걸쳐 활약한 호상이다.

宝)¹⁴⁴ 연간(1673-1681)의 스에쓰구 헤이조(末次平藏), 교호(享保)¹⁴⁵ 연간(1716-1736)의 산스이 긴우에몬(先生金右衛門)¹⁴⁶, 가에이(嘉永)¹⁴⁷ 연간(1848-1854)의 제니야 고헤이(錢屋五兵衛)¹⁴⁸가 있다. 이밖에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막부는 몇차례 발하(拔荷)¹⁴⁹ 금지령을 내리고 사형과 몰수(缺所)¹⁵⁰ 등으로 다스렸지만 끝내 근절하지 못하고 1857년 안세이(安政)의 개국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오늘날 융성한 것은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때에 따라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했지만, 수백년 혹은 수십년 관점에서 보면 그 추세가 멈추지 않고 면면히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흐름은 깊고 넓어서 마르는 일이 없었고 지금은 요원의 불처럼 날이 갈수록 타오르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다른 민족이 이 대세를 막으려 하면서 ‘황화론(黃禍論)’¹⁵¹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일본 화폐 배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각한 경우는 일본인을 학살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장래에 국운이 발전하면 반일본주의 운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격렬해지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일본 민족의 팽창은 대세여서 이것을 힘으로 억누를 수 없다. 거시적으로 보면 저들의 배척 운동과 같은

144) 일본 연호의 하나. 1673년-1681년 기간을 가리킨다.

145) 일본 연호의 하나. 1716년-1736년 기간을 가리킨다.

146) 생몰 연도 미상. 현재의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중국인 복장으로 일본을 안내하는 등 1630년 경에 중국과 일본 간 무역에서 활약하면서 ‘최고 수괴’로 지목된 인물이다.

147) 일본 연호의 하나. 1848년-1854년 기간을 가리킨다.

148) 1774-1852. 일본 에도 시대 후기에 활약한 현재 가나자와 지역의 상인이자 해운업자이다. 가나자와 번의 어용상인이기도 했다.

149) 에도 시대에 금지령을 여기면서 몰래 행해지던 밀무역을 가리킨다.

150) 결소는 일본 에도 시대에 추방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의 재산과 영지를 몰수한 일.

151) 설명 추가

것은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파란과 복잡함은 오히려 일본 민족 팽창의 대세를 조장하는 동시에 광휘(光輝)를 더해주는 것이지만, 일본 민족의 전도가 결코 순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생각을 모으고 특유의 정신을 더욱 연마해 시대에 적응한다는 각오와 결심을 다질 필요가 있다. (완결)

외국어의 일본화

□ 어떤 나라 사람이든 외국어를 국어로 표기할 때는 항상 자국어 발음에 가까운 말로 손질해 고치는 버릇이 있다. 이것은 일본인만의 버릇이 아니다. 예컨대 러시아어 ‘뿌리쉐이즘’은 영미에서는 ‘폴리시즘’이 된다. 이는 세계의 공통된 사실인 것 같다.

□ 우리는 항상 아직 충분히 일본화되지 않는 외국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른다. 한 예로 최근에 문제가 된 이탈리아의 ‘피아시스테이’라는 호칭이 있다. 이탈리아어로는 정확히 ‘파시스테이’라고 발음한다. 그런데 몇몇 신문·잡지에서는 ‘파스티스티’나 ‘파티스티’로 되어 있다. 전혀 확정하지 못해서 엉망진창이다. 또한 ‘파시주의’는 ‘파시즘’이 아니라 ‘파시스모’라고 발음해야 한다.

□ ‘사포타쥬’라는 프랑스어가 일본에 수입되었을 때 고베에 있는 유명한 모 시인과 다른 두 세 사람은 번번이 ‘사보테지’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했다. 출판물에서 정확한 발음과 부정확한 발음이 한동안 무언의 전쟁을 이어갔다. 그 결과 정확한 발음이 이겨 일본에 정확한 말이 하나 늘었다.

□ 마찬가지로 경우로 일본의 선진 학자가 수입한 ‘생디칼리즘(syndicalisme)’¹⁵²⁾이라는 새로운 학술용어가 있다. 프랑스의 노

152) 국가통제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며 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산업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사상이다.

동계급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종의 사회주의를 나타낸 말인데 앞 부분은 프랑스어 발음이고 뒷부분은 영어 발음이다. 앞서 든 예에 따라 프랑스어를 따른다면 ‘상디칼리즘’이라고 발음해야 하고, 영어를 따른다면 ‘신디칼리즘’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아무튼 엉뚱한 읽기가 보급된 셈이다.

예산의 순응성을 논하다.

노무라 겐지로(野村鈕次郎)

무사는 먹지 않아도 이를 이썩시개로 썩신다(武士は食わねど高楊枝)¹⁵³⁾는 말도 일면의 진리라면 일단사, 일표음, 재누항. 인불감기우. 회야불개기악. 현재회야(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는 문장에서도 인간 생활의 진리가 있다.¹⁵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생활과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생활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비교하는데 사랑을 찬양하는 구리야가와 하쿠손(厨川白村)이 있는 반면, 먹지 못해 부인과 이별한 영국 시인 퍼시 비시 셰리(Percy Bysshe Shelley)의 예를 들어 풍자하는 고지마도쿠야(小島徳彌)가 있다.¹⁵⁵⁾ 이는 인생관의 한 면을 관찰한 것으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이거야말로 세상은 살풍경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 진리를 완전히 등한시한다면 거기에 또 자갈 같은 세상이 출현할 것이라고 상상하게 한다.

곳곳에 있는 물질적으로 빈약한 가정을 관찰하면 가계부의 균형

153) ‘武士は食わねど高楊枝’는 무사는 비록 가난한 처지에 있어 음식을 못 먹더라도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이썩시개를 물어야 한다는 무사의 고결함을 나타내는 일본 속담이다.

154) 『논어(論語)』 6권「옹야(雍也)」편 9장. 공자(孔子)의 말로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인 안회(顔回)가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모습을 어질다고 평가하며 칭찬하는 내용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나무 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로 누추한 동네에 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이 변치 않으니 어질구나 회여’

155) 퍼시 비시 셰리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작품이나 생애가 압제와 인습에 대한 반항, 이상주의적인 사랑과 자유의 동경으로 일관하여 바이런(Byron)과 함께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작가였다.

을 위해 물만 마시고 팔을 베개로 삼는 듯한 계수(計數)도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절대적인 사랑이 거시(擧示)될 수도 있다. 혹은 예나 지금이나 통하는 일대신조가 적록(摘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절대적인 사랑이든 절대적인 신조가 있어도 관념생활만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생활에 입각하게 된다. 이렇게 논하면 아무래도 고지마 도쿠야의 주장에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는 서로 일정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혼동해서 논하니까 끝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된다면 명제와 큰 관련이 없는, 손을 흔들면 황금알이 튀어나오는 마법의 힘이 존재하는 동화 같은 관념생활을 버리고 현실생활을 붙잡아 해당 생활의 내용과 형식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한 가정에는 작은 가계가 꾸려지고, 부유한 가정에는 상응하는 결산이 나타난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언제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순응한다. 이를 순서대로 말하면 보리밥과 단무지를 먹고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만한 절제가 필요하고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즐기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필요하므로, 소요의 번뜩임은 곧 경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국가 생존에 대해 고려해 보면 역시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 즉 자공왈, 필불득이이거, 어사 이자, 하선. 왈, 거식이니, 자고로, 개유사, 민무신불립(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 何先. 曰, 去食, 自古, 皆有死, 民無信不立).¹⁵⁶⁾ 이는 군사가 부족하고 식량이 충분하지 않아도 상하가

156) 『논어(論語)』제12권 「안연(雍也)」편 제7장. 자공이 문기를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지만 사람은 信(믿음 또는 신의)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서로 신뢰하면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관념생활이자 일면의 진리이다. 이를 더 쉬운 예로 풀어 설명하자면, 빈약해도 야마토(大和) 혼만 있으면 국수(國粹)가 유지되고, 국가의 융창을 유치하는 것도 또한 일면의 진리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념생활의 측면만큼은 분리해서 현실생활의 범주만을 기술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개인생활의 경우와 같이 사실이 드러나고 이법(理法)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개인생활이 모여 사회가 되고, 그 사회라는 한 집단에 권력이 작용하여 통제되는 것이 국가라면, 국가의 현실생활의 활동과 번뜩임이 물질적 형식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회라는 한 집단의 흥망성쇠가 물질적 형식에 반영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국가가 사회의 개혁이나 전환에 응하거나 국가 발전이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곧 물질적 형식인 예산이라는 형태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장래 일정 기간 동안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산정하여 표시한 것, 즉 수입과 지출의 견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견적에는 틀림이 없고 수입과 지출을 산정한 것에도 틀림이 없다. 그 견적은 국가나 공공단체장, 또는 사회생활, 현실생활의 물질적 생명이며 기준이기에 함부로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중한 심의를 요해야 한다. 최근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국가 예산의 심의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은 국가 발전의 표적으로, 자칫하면 국가의 대계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분류하는 것은 결국 불가피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리당략(黨利黨略)¹⁵⁷⁾, 기

157) 정당의 이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피나 방법.

타 일체의 사념을 철저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심의를 위한 혼란의 정도는 국가를 벗어나 저급한 단체일수록 줄어들고 부실하게 작성된 예산안이 감독청에 출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몰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대충 서둘러 만들어져서 금방 사라지는 예산안이 매우 많다는 의미이다. 이는 심의기관의 불완전함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감독청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단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소위 관부(官府) 편성의 예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령의 정신이 여기까지 와서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양보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체 자체의 생존을 위해 특별히 설정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그저 순순히 따르면서 예산이 무효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결국 쓸데없는 걱정이라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체 생활 그 자체와 순응하지 않는 물질적 형식이 구현되므로, 단체 생존을 위한 것과 무관한 수입과 지출이 작용하게 되어 상당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를 거대한 인간이라고 했고 흄스는 국가를 하나의 괴물 같은 생물이라고 하거나 사회나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 또는 생물이라고 하는 등 여러 말을 했지만, 옛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은 우리 눈앞에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이를 명확히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¹⁵⁸⁾ 여기서 사회나 국가가 유기체이며 생물이라고 전제한다면, 대체로 성장과 발달의 관념, 부분 간의 상호 협동(및 이에 따른 구성)의 관념, 그리고 변화 속의 통일이라는 관념이 그

158) 선철(先哲)은 옛날의 어질고 사리(事理)에 밝은 사람.

존재의 생명으로 여겨질 것이다. 앞 세 가지 관념 작용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사회 또는 국가에 존재하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단위도, 사회 자체도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작용도 끊임없이 작동하여 사회 조직의 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사회통제가 물질적으로 나타난, 즉 물질적 통제적 관계가 바로 나는 국가의 예산이라고 믿는다. 또한 공공단체 등의 예산에 대한 의의도 역시 이에 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따라서 통제되는 조직사회의 끊임없는 동적 현상은 통제 작용과 상대적 관계를 가지며, 또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 사회와 무관한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상대적 관계의 통제에 대한 의의를 잃게 된다. 의의가 없는 통제는 사회 조직의 진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단위로부터 피와 땀을 쥐어짜 이를 낭비하게 되어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 점에서 통제 문제가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통제 관계와 통제와 예산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고 예산은 사회나 국가의 현실생활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다. 더 나아가 사회나 국가는 추이 변동이 심한 하나의 유기체로서 예산이 이에 순응하며 측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추이 변동에 대한 순응은 단순히 사회의 추이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통제의 의미는 상실된다. 그러므로 가령 도의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 조직이 파괴되며 위험 사상이 사회 전반에 출현하게 될 때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 정도 사회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종교, 교육, 경제를 진흥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한 사상을 방임해서 선도하지도 않는다면 통제는 의의를 상실하여 방임하게 되고 사회 조직의 진화에 조금도 공헌하는 바가 없게 된다. 다만, 이것도 일면

에서 본다면 사회에 순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통제의 의미를 잃은 순응으로 진정한 순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동성을 가진 사회에 순응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장기 계획을 일시에 산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 단기 계획을 어렵히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¹⁵⁹⁾ 공이 1880년부터 1883년에 걸쳐 두 해를 한 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제국의회와 각 주 회의가 동시에 운영되고 제국의 국무대신 및 연방 참의원의 의원들이 업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1년제를 2년제로 연장하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실행에서도 다음 연도에 걸쳐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자연스럽게 쉬워진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진의는 가급적 의회의 구속을 배제하고 재정상에서 정부의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제안은 버려지기에 이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와 반대로 영국과 벨기에는 단기제를 채택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단체든 그 전체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두 나라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예산 결정과 관련해서 장기제와 단기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의 시세 순응성 또는 사회 순응성을 설명하면서 순수한 이론적 입장에서 단기제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치와 도덕이 발달해 있고 정부 당국자가 성실하게 책임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의회 또한 당국자를 신용하여 신중하고 공평한 태도로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절제를 중시하고 정

159)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로 독일을 통일한 인물이다.

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며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만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절차상의 문제이며, 순수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견적은 사실과 동떨어지기 쉽고, 또한 시대에 순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장기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사태를 통찰하고 세상을 관조하며 의논해서 결정한 이후 불필요하게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更正)(공공단체에 사용된 용어) 등을... 감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회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예외이다. 결국 예산을 사회에 순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 편성해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즉 예산 편성 상의 비율 문제이다. 비율 문제는 일면에서 보면 정치 또는 행정 방침의 조정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 방침과 예산 비율이 조율되지 않은 채 완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타나거나,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예산 편성이 임기응변식으로 임의로 배분되고 다시 필요할 때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된다는 식의 대담한 방식으로 예산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산의 비율 문제는 시정방침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방침에 입각해야 한다. 가령 총예산 100중에서 토목비 30, 교육비 20, 위생비 15, 권업비 25, 사회사업비 10의 비율을 요구한다면, 이 비율은 정책 방향에 순응해야 하고, 정책 방향의 비율은 사회의 정세에 순응해야 한다. 사회 조직은 점차 향상하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또한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이

런 경우 앞장서서 통제할 통제자가 지침을 잘못 설정하면 등불을 들고 있음에도 캄캄한 밤에 등불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완결)

도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의 취지에 관하여(앞 호에 이어)

요시야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1. 토목

도로 교량 수선 도로 감시원 8명, 운전수 2명, 도로 수선 인부 39명을 배치하여 1,2등도로¹⁶⁰⁾는 공사비 3,800여원, 3등도로는 12,000여원을 계상하여 기존 개수노선의 상시 유지와 수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운전수는 도로 교량 수선에 필요한 도로 수선, 인부 배치 및 자갈 운반을 위한 화물자동차 2대의 운전과 종사시킴과 동시에 도로 수선 인부의 능률 증진에 힘쓰고 있다.

토목 관리 설치 토목서기 1명, 토목기수 12명, 토목 기수보(技手補) 2명, 기술 및 사무에 종사하는 고원(雇員) 20명, 석판공 1명, 운전수 1명을 토목과 및 대구 상주 안동 포항의 각 파출소에 배치하여 도로 하천 항만의 측량 설계 및 공사 감독 혹은 도로 감시용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시키고 있다.

도로 개수 김천 왜관 간(1등도로) 70리, 포항 구룡포 간 40리, 경주 감포 간 30리, 영양 청송 간 10리(이상 3등도로)에 대해 13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수하고 있다.

도로 재해 복구 3등 노선의 재해 복구를 위한 공사비 4만원을

160) 조선총독부의 도로정책은 1911년 4월 제정한 '도로규칙'과 1915년의 '개정 도로규칙'에 따른 것으로, 도로규칙의 주요한 내용은 도로를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등외도로로 구분하였다. 각 도로의 등급은 행적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도로 관리는 1,2등도로는 조선총독, 3등도로는 도장관, 등외도로는 부윤·군수 및 도사(島司)가 담당하였다.

계상하여 공사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제방 개수 안동군 내의 낙동강 호안(護岸), 선산군 내 감천호안, 성주군 내 이천(伊川)호안 수축(修築)¹⁶¹⁾을 위해 1만 여원을 지출하여 공사 진척을 기하고 있다.

항만 개수 국고 보조 23,400원의 지출을 희망하며, 지방비에 서도 같은 액수를 지출하여 형산강 도수(導水)제방 축조를 하고 있다.

토목 보조 대구 하수도의 수축, 김천면 호안공사, 예천 및 의성 양 면(面)의 제방, 대구부내 도로 수선, 기타 부면(府面)의 등외도로 혹은 시가도로 개수에 대한 약 5만 여원을 계상하여 이미 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보조했다.

계속토목보조비 1922년도부터 3개년 계속비로서 감포, 구룡포 양 항구의 수축비에 대해 220,000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1923년도는 5만원(구룡포 2만원, 감포 3만원)을 계상했다.

2. 권업

종묘장 도기사, 도기수 약간을 겸임시키는 것 외에 산업기수 4명, 산업서기 1명, 기술고원 4명, 기타 상시 농부, 목부 등을 두고 주요 농작물의 경작 재배, 가축의 사육시험, 기타 일반 농업지도 등을 하여 매년 이에 대한 성적을 일반에 발표함과 동시에 원종(原種)및 가축을 배부하고 있다. 그리고 1923년도에는 퇴비저장고 등을 새로 짓기 위해 별도로 임시비도 계상했다.

관개사업 조사 산업기수 4명, 산업서기 1명, 기술고원 8명을 두고 제방, 보, 기타 관개사업의 조사 및 보조공사 감독에 종사시

161) 집이나 다리, 방죽 따위의 헐어진 곳을 고쳐 짓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키고 있다.

나무 묘포 대구에 중앙묘포 및 주요지에 묘포를 마련하여 산업기수, 상시 농부 및 견습을 1명씩 두고 나무 모종 재배에 힘쓰며 생산 나무 모종은 매년 희망자에게 유상 배부하거나 지방비 모범림 시업(施業)¹⁶²⁾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모범림 지방비 모범림을 마련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이것을 차츰 새로 심거나 보식(補植)¹⁶³⁾을 하고 있다.

미두검사 미두검사 규칙에 따라 대구에 검사소 기타 주요지에 지소를 두고 겸임 산업기사 1명, 산업기수 15명, 기수보 2명, 기술고원 14명을 배치하여 검사에 종사시키고 있다. 그리고 본 년도에는 하양 지소 및 김천 외 4개 지소의 곳간을 새로 짓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다.

잠업 감독 잠업취체규칙에 따라 대구에 취채소를 두고(임시출장소를 마련한 곳 있음)산업기수 6명, 산업서기 1명, 검사원 몇 명을 두고 검사를 시키고 있다. 그리고 1923년도에는 본관, 기타 소요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임시비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다.

상품진열소 경상북도 내외의 물산을 진열하고 이를 소개하는 것 외에, 지방물산의 개량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업기사 1명, 산업서기 1명 및 필요한 고용인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또한 1923년도에는 상품진열소 사업으로 일용품 전람회를 개최하여 일본 각 부현(府縣)의 출품을 권유하여 일반 해당업자의 분발에 이바지했다.

162) 업무를 베풀어 행함.

163) 발아가 불량한 곳이나 이식 후에 고사한 곳에 보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원의 배치

(1) **축산** 축산을 개량 증식하는 임무를 담당시키고 또 축산동업조합의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기사 1명, 산업기수 25명을 둔다.

(2) **면직** 전적으로 면직의 장려와 지도를 위해 산업기수 15명, 기수보 1명을 둔다.

(3) **임업** 전적으로 임업의 지도와 장려를 위해 산업기수 28명, 기수보 1명, 기술고원 6명을 둔다.

(4) **수산** 어업의 개량지도에 종사시키기 위해 산업기수 5명, 기수보 1명, 기술고원 1명을 둔다.

(5) **기업(機業)** 전적으로 기업(機業)의 개량 지도에 종사시키기 위해 산업기수 3명을 둔다.

사무직원 일반 권업에 속하는 사무처리를 위해 산업서기 2명을 둔다.

산업 강습 제지 주산지 14군데를 골라 단기 제지강습회를 열고 있다.

해충 구제 예방 해충 구제 예방령에 의거하여 경비를 계상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지출하기로 하고 있다.

해수(害獸)¹⁶⁴구제(驅除)¹⁶⁵ 예방 각 경찰서에 ‘늑대’ 구제에 필요한 약품, 기타 재료를 배부하고 성적에 따라 상을 수여하고 있다.

품평회 공진회 군의 중요 농산물 및 축산, 그 밖의 품평회를 개최하려는 용도로 출품하는 자에 대해 포상장 및 상품을 교부하여 장려에 이바지하고 또 박람회와 공진회에 출품시키려고 할 경

164) 해가 되는 짐승.

165)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앴.

우, 생산자가 이를 구입하여 출품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다.

수산시험장 1923년도부터 포항에 수산시험장을 설치하기로 하여 산업기사 1명, 산업기수 2명, 산업서기 1명, 고원 4명을 두며 소요사업비 및 소요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을 계상하여 수산 전반의 시험을 시행하여 수산업의 개량 발달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산업조사 및 자문회 제지 및 기업(機業)의 판로와 부업 조사를 시행하고 이것의 장려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산업자문회를 개최하여 해당업자 및 그 방면의 명사의 의견을 구하여 경상북도 산업방침을 확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 위해 1922년 12월 11일부터 4일간 산업자문회를 개최했다.

공진회 1923년도에 남선(南鮮) 6도 연합 공진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1923년도에 이를 준비 조사하기로 했다.

권업보조

(1) **쌀 보리 공동조제장 보조** 쌀 보리 조제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인원이 공동으로 쌀 보리 조제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기계구입비를 보조했다.

(2) **과일동업조합 보조** 과일의 생산증식 및 개량을 목적으로 기술원 급여를 보조하여 조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도농회 보조** 부군도(府郡島)농회로 조직된 도농회의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을 할당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4) **보호우(牛) 보조** 보호 우 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보호우 규정을 마련하여 이(보호우)를 선정하고 우량한 소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종우(種牛)에 대해서는 종부료(種付料)¹⁶⁶⁾를, 암소

166) 주로 가축 따위를 교미시키는 데 드는 비용. 번식우, 젖소, 번식돈 따위를

및 송아지에 대해서는 사육료를 보조하여 축산개량에 이바지하고 있다.

(5) **종모우(種牡牛) 구입 보조** 우량 종모우를 구입하여 번식용으로 제공하는 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출하여 보호우 보조와 더불어 축산 개량에 이바지하고 있다.

(6) **잠업비 보조** 부군도에 잠업 기본 조사를 시켜 잠업 장려 방침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일정한 인원이 공동으로 치잠(稚蠶) 공동사육소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교사의 급여 등을 보조하고 있다.

(7) **면작 보조** 육지면 종자의 구입, 개간 및 지목 변환과 기술원비 및 채종포(採種圃)¹⁶⁷⁾비 등을 군도농회에 보조하여 면작을 장려하고 있다.

(8) **관개사업 보조** 보 및 제방 등 관개사업의 개량을 도모하는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관개 수리를 장려하고 있다.

(9) **공업보조** 기업(機業)조합 두 군데에 기술원 급여를 보조하여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족담기(足踏機)¹⁶⁸⁾ 및 마증기(麻蒸機)¹⁶⁹⁾ 구입을 보조했다. 또 양조품 품평회를 개최하여 품질 향상을 꾀하고 이것의 장려에 이바지했다.

(10) **수산 보조** 울릉도에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도민이 몹시 궁핍하므로 해당 지역 어업조합에 보조하여 신규 어업을 장려하고 있다.

(11) **임업 보조** 총독부 시설과 관련된 사방(砂防)공사의 진행에 따라 그 구역 내에 식재(植栽)해야 할 묘목의 구입이 곤란한

인공 수정 할 때 들어가는 요금이나 자연 교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167)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한 재배포지.

168) 발로 디디는 힘을 동력으로 하여 돌리는 기계.

169) 삼을 찌는 기계.

자에 대해 구입 보조를 하고 있다.

(12) **평화박람회 출품 보조** 1922년 도쿄에서 개최된 평화박람회에 출품할 때 개인 혼자서는 도저히 출품할 수 있는 자가 적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했다.

(13) **평화박람회 시찰단 여관 보조** 총독부에서 전해온 내지(來旨)¹⁷⁰⁾에 따라 조선에서 다수 건너가는 시찰단원의 숙소 등의 편리를 도모하는 조선협찬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다. (미완결)

170) 상대방한테서 전해온 취지.

조선의 술(강연)

경북양조품평회에서
노지로(野白) 심사원

방금 재무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노지로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최된 경상북도 양조품평회 심사원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직접 조선 양조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왔는데 운 좋게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 오기 전부터 조선 청주는 대체로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면 전국품평회 때 출품물의 성적에 비추어 보아 대략 이 정도의 술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선에 와서 조선 전국의 술을 보았기 때문에 우선 술의 품질 평가 결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적은 법입니다. 즉 예로부터 “듣던 것보다 못하구나. 후지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선술에 대해서 들은 바와 실제로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원체 악담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실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은 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자가 하는 말이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사투리가 심한 지방 출신으로 게다가 구마모토(熊本)에 오랫동안 살아서 이 지방의 사투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1 병술

이야기 순서상 병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병술은 색과 광택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색과 광택의 만점 표준은 참고로 보내주신 사이조(西條)의 후쿠비진(福美人)¹⁷¹⁾으로 삼았습시다만, 이와 비교해도 나으면 나았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시다. 장래 필시 조선, 아니 반도의 주조업 개선과 진보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마치 엽차처럼 색과 광택이 농후한 것도 있었습시다. 대개 청주의 색과 광택은 상쾌하고 부드러운 것을 좋게 치는데 엽차와 같은 청주를 출품한 것은 실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색과 광택이 불량한 술이 다수 있었던 점이 유감스럽습시다. 향기는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술이 없었습시다. 색과 광택은 만점인 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향을 지닌 술을 발견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시다. 술 고유의 향기는 적었고 오래된 통 냄새나 미묘한 냄새 또는 새로운 통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어서 술 본연의 향기롭고 진한 향이 가려져 종종 향기가 사라져 버린 것도 있었습시다. 맛의 경우도 어떤 것은 설탕물처럼 달고 어떤 것은 소주처럼 독했습니다. 비교적 색과 광택이 좋았던 술이 설탕물처럼 단 경우가 많았고 색과 광택이 불량했던 술 가운데 소주처럼 독한 사례가 있었습시다. 독한 술을 혹평하여 말하자면 면도칼 같은 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날이 얇은데 잘 잘린다는 뜻으로 가볍고 독한 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조에 사용하는 물인 시코미미즈(仕込水)를 많이 넣고 모로미(醪)¹⁷²⁾는 고

171) 히로시마현(広島県) 사이조초(西条町)에 있는 주조회사가 빚은 술로, 현재 회사명 또한 후쿠비진 주조주식회사이다.

172) 술지게미를 거르지 않은 술.

온 발효된 것을 취하여 진액의 양을 적게 하고 짠맛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극단적입니다만 소주 대용으로 공급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 것은 아무래도 주정(酒精)¹⁷³⁾은 적고 진액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당분이 많아 끝맛이 부족합니다. 대개 달다고 하면 설탕물을 마셔도 달고 흑설탕을 맛봐도 달고 사과나 조선 엿을 먹어도 달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단맛 또한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청주의 경우 단맛인 ‘아마미(甘味)’가 아니라 맛 좋은 ‘우마미(旨味)’가 상당히 많고 게다가 ‘팽팽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출품된 술 중에는 색과 광택이 좋고 아마미가 조화로워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대개는 색과 광택이 좋으면 아마미가 혀끝에 남는 술이 많았습니다. 이는 요컨대 아마미를 남기기 위해 양조 기술을 너무 구사했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때 쌀은 현미를 도정하여 정백도(精白度)를 높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백 정도가 충분치 않고 누룩은 너무 번식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모로미는 저온 발효시켜 이른 시기에 모로미를 짜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본디 목적으로 삼았다면 괜찮으나 수단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마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쌀의 정백도를 상당히 높이고 누룩은 신선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 균은 더 숙성시키고 술밑(酒母)은 산성이 많고 막 떠서 오랫동안 건조시킨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로미의 발효 온도는 기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서 아마미를 얻는다면 극히 담백한 아마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조선에서 행해지는 정미 방법에 대해 적지 않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거의 수력발전을 사용하고 있기에 비교적 경비가 저렴하나, 조선에서는 정미하는 데 화력을

173) 녹말 따위를 발표시켜 만든 무색투명한 액체로 술의 주성분이다.

동력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경비가 비교적 높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각대로 정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조가 여러분들께서 공동정미소를 마련하여 값싸고 자유자재로 정미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요컨대 저는 출품된 술을 보며 색과 광택보다 향기 부분이 더 유감스러웠습니다. 원래 술의 향기는 그 술이 빚어질 때마다 다릅니다만 대개는 술의 용기와 지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값싸고 불량한 저장 통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던 것처럼 재질이 싸고 불량한 통을 사용하면서 좋은 술을 빚으려고 하는 것은 실로 모순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 손질 즉 씻는 방법이 적절치 않더라도 다행히 통이 양호하다면 술의 질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다소 적겠지만 통의 재료가 불량한 데다가 손질 방법 또한 적절치 않다면 이 두 요소가 합해져서 향이 나빠집니다. 때문에 이 점은 한층 더 충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전에 히로시마 세무감독국에 있었습니다만, 히로시마 지방의 품평회에서는 색과 광택에 특히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조가들은 이점에 몹시 마음을 태우며 애를 썼습니다. 어떤 주조가는 나라(奈良)의 요시노(吉野)산 나무로 만든 통 내부에 락을 바르거나(이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뜨거운 물을 가득 부어 나중에 부푼 채로 뚜껑을 조금 열어 둡니다. 혹은 옆으로 눕어서 열을 가하기 며칠 전에 손질해 두고 열을 가하기 직전에 14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술로 통을 씻고(씻어낸 술은 값싸게 매각) 나중에 주조한 술을 부어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지방에서도 최근 ○ 하는 것이 많습니다. 즉, 그 방법이란 전날, 통에 열을 가해 놓고 다음 날 꺼내서 좋은 술을 부어 열

을 가한 후 저장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비로소 색과 광택, 향미가 좋은 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에서도 용기 선택과 그 손질에 만전을 기한다면 필시 한층 더 좋은 술을 빚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2 통술

다음으로 통술입니다만, 굉장히 양호한 통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좋은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면 술에 이상한 향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의 동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다자케(灘酒)¹⁷⁴와 비교하면 꽤 양호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지방에서 판매하는 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기 위해 우선 동네에서 판매되는 나다자케를 시험하였습니다. 그 품질이 불량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서 출품된 통술에 대해 심사를 했는데 오히려 나다자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대략 나다자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곳에 들어온 나다자케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선의 청주는 병술보다 통술 가운데 상당히 품질이 양호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술을 통에 부으면 꼭 양호한 술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에 넣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고 나서, 좋은 통이라면 굉장히 좋은 술이 되겠지만 통이 나쁘면 오히려 술의 품질은 저하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우수한 통술을 통해 장래, 조선의 주조업이 크게 발달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출품된

174) 효고현(兵庫縣) 나다(灘) 지방에서 나는 고급 청주를 일컫는다.

술의 품질에는 우열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품질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조업이 진전의 도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것은 굉장히 양호하고 어떤 것은 아주 불량합니다. 이는 곧 주조업이 진보의 과도기에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므로 주조업을 장려하기에는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상황이니, 관민이 협동하여 이번 기회에 개량 발전에 힘을 쏟는다면 그 효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선의 주조업은 쌀의 질 개량과 함께 전도양양하며 실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양조업계의 발전을 축복함과 더불어 앞으로 희망 가득한 주조가 여러분들께서 한층 더 분발하 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완결)

칙제(勅題)¹⁷⁵⁾ 효운산(曉雲山)

야나기시타 기스이(柳下其水) 작

굳건한 천황의 치세, 그 경사스러움은 새벽녘 산등성이에 길게 뻗은 구름이 발하는 빛처럼 천대 만대 빛날 것이다.

후지산 봉우리에 길게 뻗은 구름 사이로 빛나기 시작하는 아침 햇살과 새벽녘의 아름다운 경치야말로 황국의 자랑거리다.

산등성이에 길게 뻗은 구름은 아름답고 떠오르는 태양은 찬란

175) 천황이 내는 시가의 제목.

하다. 한층 더 빛깔이 더해진 천황의 치세가 번영해 나가는 것이
야말로 경사스럽도다.

도로 이야기 (강연)

‘면직원강습회’에서
다니 고지로(谷幸次郎)¹⁷⁶⁾

‘토목’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토목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만 행정청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진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사방(砂防)¹⁷⁷⁾, 수면 매축(埋築)¹⁷⁸⁾ 및 사용, 토지수용 및 건축 등의 사업입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방 행정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도로에 대해 개략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 개선

도로는 도로규칙(道路規則) 제1조에 따라 1등 도로, 2등 도로, 3등 도로 및 등급 이외 도로의 4개 종류로 구분되고, 경상북도의 경우는 등급 이외 도로를 제외한 1등 도로가 3개 선, 2등 도로가 11개 선, 3등 도로가 33개 선이 있으며 전체 총거리가 4,190리

176) 1911년경부터 1931년까지 경상북도 토목과에 근무한 인물이다.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나 오카야마현청 토목과에서 일하다가 1908년에 통감부 설치 직후에 조선으로 건너온 후 1911년 무렵부터 경상북도 토목과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1931년 4월 1일자 『부산일보』 기사에는 만 20년간 경상북도 토목계에서 일한 다니 고지로의 퇴직 관련 기사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려 있다.

177) 산, 강가, 바닷가 따위에서 흙, 모래, 자갈 따위가 비나 바람에 씻기어 무너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설하는 일.

178) 바닷가나 강가를 메워서 물을 만드는 일.

에 걸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수(改修)를 완료한 구간은 2,790리이고 나머지 1,400리는 아직 개수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를 개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필요해서 위 1,400리를 개수하는 데에 약 350만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즉 지방비를 1년에 10만원씩 지출한다고 해도 35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서로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등과 2등 도로는 국비로, 3등 도로는 지방비로 개수합니다만 도로규칙 제10조에 따라 관리청 이외의 주체라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축조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국가 또는 지방청에 시행을 맡기고 도로 완성의 은택을 수십 년 뒤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제공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문화의 개발은 그 지방 교통 기관의 완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도로의 완성 여부로 국가나 지방의 빈부 정도를 판단할 정도이므로 제군은 지방민들이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교통의 편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

이어서 도로 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는 개수만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축조와 동시에 파손되기 시작하므로 항상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수선에 힘써야 합니다. 도로는 사람과 마차의 교통뿐만 아니라 비바람에도 파괴되고, 교량은 계속 노후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완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도로의 유지와 수선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로의 유지와 수선을 위해 관내에 토목과 파출소를 네 곳에 설치하고 도로수선 인부 및 도로 감시원을 배치해 해당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와 수선 방법은 상시와 임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상시 수선은 ‘평소 수선’, ‘소파 수선(小破修善)¹⁷⁹⁾’이라고도 합니다. 임시 수선은 매년 대략 국비 5만원, 지방비 3-4만원을 지출해 교량과 암거(暗渠)¹⁸⁰⁾ 등의 수선에 충당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유지와 수선은 국비와 지방비를 지출하지 않고 관계 부락이 부담합니다. 즉 상시 수선은 경미한 소규모 파손에 대한 것으로 관계 부락에서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임시 수선은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관계 부락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로규칙 제9조에 준거해서 1916년 4월 7일에 도령(道令) 제4호로 ‘도로유지수선규정(道路維持修繕規程)’을 발표해 상시 유지와 수선에 관한 세칙을 정했습니다. 이 도로규칙 및 도로유지수정규정에 따라 1·2·3등 도로의 상시 유지와 수선은 관계 부락이 부담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1·2등 도로는 국가의 도로이기 때문에 해당 수선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는 입법론 견지에서 논하더라도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즉 국가는 시정 상 제1차로 간선, 제2차로 지선의 순서로 도로망을 정비하는데 도로 개수 후에는 국가의 필요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민도 자유롭게 사용해 자신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영조물을 사용하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유지를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어떤 부적절함이 있을까요? 이와 반대로 면이 축조한 도로를 국가 용무에 사용하는 일이 있으므로 국가는

179) 수선을 위한 기술적 내용이 경미하고 쉬운 가벼운 수선 공사.

180) 땅속에 낸 도랑.

개수 혹은 수선에 대해 국비나 지방비에서 그에 상당하는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상호적 응수(應酬) 내지는 형평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 부락이 1·2·3등 도로의 유지와 수선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법령으로도 정한 것이므로 면민이 오해하는 부분은 제군이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 단속(取締)

도로 단속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도로 용지(道路敷)의 무단 사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 노면(有效路面)만 도로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유효 노면, 가로수 용지, 측면도랑(側溝)을 합친 것이 도로 용지이며 통행에 직접 관계가 없어서 유효 노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도로 용지를 집과 연결하는 통로로 가공해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에 측면도랑에 농작물을 심거나 측면도랑을 메워서 자신의 토지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도로취체 규칙(道路取締規則)’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제군들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일반적으로 측면도랑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측면도랑은 도로에서 직접적인 유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도로 보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내릴 때는 노면의 물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물을 막아 침수에 따른 파손과 유실을 방지하고, 평소에는 노면을 항상 건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측면도랑이 막혀서 물 빠짐이 불충분한 도로의 노면은 연약해서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남거나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측면도랑 크기는 원칙적으로 깊이 1척 5촌, 상단부 넓이 4척 5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수선규정(道路維持修繕規程)의 수선 표준에서도 측면도
량을 준설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와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하천 관리에 대해 한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하천에 대한 기본
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총독부가 조사 중인데 이
에 대한 단속 규칙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으로 지정된
하천과 지정되지 않은 하천을 나누어 지정 하천은 총독부가 관리
하고 미지정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사용하
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는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경작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
라 이것이 마치 풍습처럼 되어 있어서 취체규칙(取締規則)의 적
용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하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국유 미개간지 이용을 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하천 부지는 당연히 하천이지 미개간지가 아니므로 하천취체
규칙에 의거해 출원해야 합니다.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
어서 홍수 때에 맞은 편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 처리하도록 주의
를 전달합니다.

삼림의 노래

이번에 제국삼림회(帝國森林會)에서는 국민의 애림(愛林) 사상
을 함양하기 위해 현상공모로 당선된 아래 창가를 홍보 목적으로
각 지역에 배포했다.

1. 평화의 색을 띠면서 / 사계절의 조망도 각양각색으로 / 국

토를 장식하는 천연의 / 숲의 모습이어 아름답구나.

2. 눈 녹은 물도 빗방울도 / 낙엽수 뿌리에 담아두고서 / 끊이지 않는 시냇물의 원천을 이루는 / 숲의 힘이여 믿음직하구나.

3. 탄으로 장작으로 목재로 / 무한한 보물을 만들어 / 사람에게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 숲의 은혜여 고귀하구나.

4. 자-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 심고 키우자 나무와 숲을 /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 당신은 베지 않겠지, 숲의 나무를.

통계 개론(앞 호에 이어)

하리가에 리헤(針替理平)¹⁸¹⁾

통계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본론 시작에서 언급했다. 이 정도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나 세상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우는 또 없다고 생각한다.

쉬운 이야기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나열했더라도 그것이 통계적 숫자를 기초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국 허풍에 불과하다. 또 어떤 사실을 근거로 논의를 시도하더라도 그 논거 자료가 통계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는 공론이나 박약한 상상론에 불과하다. 시대를 풍미했던 故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¹⁸²⁾ 후작의 주장은 항상 방대했기 때문에 남의 얘길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허풍으로 평가했는데 후작이 통계를 중시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앞서 있었다. 따라서 천하를 논하고 국가를 논할 때 통계적 기초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활용하여 항상 그 논거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했다. 말년에 후작이 내각을 조직했을 때는 가장 절실하게 통계의 필요성을 느끼며 이를 당당히 천하에 선언하고 일반을 일깨웠다.

통계 자료의 수집

통계 자료의 수집, 즉 통계 조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1) 하리가에 리헤(針替理平)는 경상북도 축탁으로서 1921년 금관총 발굴에 참여했다.

182) 오쿠마 시게노부(1838년-1922년)는 일본 사가번(佐賀藩) 무사 출신의 정치가이자 교육자이다. 제8대, 제17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였으며, 와세다 대학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를 창립하였다.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에 결함이 있다면, 이어지는 통계 자료의 편집 및 정리와 이에 따른 통계적 현상을 밝히는 데 오류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즉, 관찰 대상: 통계 자료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될 수 없는 자료는 사람의 마음, 욕망, 은폐된 사실과 같은 종류로, 이를 ‘대상의 부적합’이라 칭한다. 또한 대상물의 좋고 나쁨은 통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무익한 자료를 가져다가 대상으로 삼는 것과 같다.

2) 관찰 사항

관찰 사항은 사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많은 사항을 무리하게 수집하려는 것은 쓸데없는 번거로움을 초래하고 오류를 일으킨다. 또한 그 분류도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겸업과 부업이 있는데 농가가 어업을 겸하는 경우는 부업인가? 양잠은 어떤가. 전자는 전혀 다른 종류이므로 겸업이고, 후자인 양잠은 넓은 의미의 농업에 포함되므로 부업이다.

3) 관찰의 시기와 장소

이 선택도 중요하다. 미개발 장소에서 지나치게 세밀한 조사를 시행하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강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즉, 1920년의 조선 임시호구조사(臨時戶口調査)는 소요 이후였기 때문에 인심의 동요와 오해를 피하려면 국세조사(國勢調査)라는 명목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4) 관찰 양식

양식에는 단기표(單記票)와 열기표(列記票)¹⁸³가 있다. 단기표는 조사 자료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고, 열기표는 범위, 목적, 사항을 한 표에 배열하는 것이다. 1920년의 임시호구조사 양식은 열기식을 채택한 것이다. 현재의 보고 양식은 자료 수집과 정리 두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통계학상으로 볼 때 자료 수집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통계를 열기하는 것 외에 집계된 수의 비율을 한 표에 병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5) 관찰의 실행 기관

관청의 통계 조사에서 단위 조사, 즉 기초적 조사는 주로 면(面) 직원들이 담당한다.¹⁸⁴ 과거 임시호구조사에서는 부(府), 군(郡), 도(島) 관리가 감독 및 심사를 맡았고 면직원, 동리장(洞里長), 경찰관 등이 조사원이었다. 기초적 조사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편집 및 정리 때 그 오류가 미쳐 부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통계 조사에서는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상식은 평소 학문 및 견문을 통해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통계학은 물론이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학, 경제학, 행정 법규 등의 연구는 면직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83) 단기표는 대략 우편 엽서 크기의 작은 종이에 조사해야 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열기표(列記票)는 연기표(連記票)라고도 하며 국세조사 등에서 한 가구의 인원을 한 장의 종이에 한 줄로 기입하게 하는 경우, 또는 지방에서 회사나 공장을 표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경우, 출생, 사망, 기타의 등록 사항을 한 줄로 기재하여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4) 면(面)은 고유한 업무와 함께 호적, 징세, 선거 등 상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말단행정기관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1917년 「면제」 제정을 통해서 재정 기반을 확보한 총독부는 면을 통해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6) 실행 비용

통계 조사를 완벽하게 시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사전에 정밀하게 조사해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통계 조사 비용은 예상외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아래에 몇 가지 추가 사항을 간략히 언급하겠다.

중앙집사(中央集査)와 지방분사(地方分査)

중앙집사는 하급청(下級廳)에서 단위 조사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를 그대로 중앙에 모아 편집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지방분사는 하급 단위 조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중간, 즉 군(郡)이나 도(島)에서 집성한 후 최종적으로 중앙에 모이는 것이다. 현재의 보고 사례는 지방분사에 속한다.

실계(實計), 개산(概算), 추계(推計)

실계는 인구 통계와 같이 실제로 계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장 정확하다. 하지만 모두 이 방법에 따르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지 내 뽕나무 면적과 같은 통계는 개산에 따르고, 벼나 밀의 예상 수확량이나 실제 수확량 같은 것은 일부 조사를 기준으로 추계를 실시한다.

보고 기한

하급청의 보고는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집성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고 기한 일람표와 같은 것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상의 주의

양식 위반, 누락(특히 조사청(調查廳) 이름이나 연월일), 오기, 계산 오류 등은 조사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 또한 기한 지연과 동일한 결과로 이어져 집성에 예상치 못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너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면(面) 통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다. 면은 항상 단위 조사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하급 단위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단위 조사에서의 오류는 결국 최종 집계와 편성에 오류를 초래한다. 한 면의 조사 오류는 다른 면의 정확한 단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 면의 기한 지연이나 오류 등으로 인해 집성에 지연이 발생하면 다른 면의 기한 준수와 정확한 조사조차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 따라서 면의 통계 업무는 매우 중요함을 잘 기억해야 한다.

통계 자료의 편집과 정리

중앙에서는 각 지방에서 모인 통계 원자료를 정리하여 비로소 통계로서 세상에 내놓는다. 통계의 형태는 통계표, 통계도, 통계 기술 세 가지로 나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계는 처음으로 시정(施政), 기타 실무상 응용 및 학문상 응용에 도움이 된다.

통계의 편집과 정리에 따라 나타나는 수치는 다음과 같다.

절대수: 기본적인 수치로 인구수, 쌀이나 밀의 생산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례수: 백분비, 천분비 또는 몇 퍼센트 등의 비율을 말한다.

평균수: 종합한 수에서 평균수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이다.

표: 표는 최대한 적은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圖): 도로 나타내는 방법에는 선, 원형 또는 인물, 동물 등의 모양이 있다. 또 색상을 그사이에 적용하기도 한다. 도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오히려 부수(附隨)인 그림에 너무 치중하여 중요한 통계가 가려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기술: 유래, 비교 등을 도표에 덧붙이거나 별도의 문구로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기술이 점차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통계의 종류

통계는 그 자체의 실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통계, 농업통계, 경제통계, 사회통계, 범죄통계, 정치통계, 교육통계, 종교통계 등이 주된 것으로 모두 실무상, 학문상에 응용된다.

인구통계: 인구통계는 통계학자들이 크게 주력하는 부분이다. 이 통계는 정태 인구, 동태 인구, 생명, 국민의 체질 등으로 나뉜다. 정태란 일정 시점과 일정 구역에서 찰나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920년의 임시호구조사(臨時戶口調査)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매년 연말에 시행되는 호구 통계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 임시호구조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1920년 10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조선 내 인구와 호수에 관한 통계이다. 그러나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해 조사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일본인에게는 신고식(申告式)을 사용하여 호구 조사 신고서를 미리 배포하였다. 게시 사항은 기입 범위와 주의 사항 두 가지이며 기입 항목으로는 한 세대 내의(준세대-하숙인, 선내 거주자와 같다) 성명, 성별, 연령, 배우자, 직업 및 직업상의 지위 등이다. 이를 세

대주나 세대의 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세조사¹⁸⁵⁾: 본 항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은 국세조사이다. 국세조사는 영어로는 센서스(Census), 프랑스어로는 르상스망(Recensement)이라 한다. 각국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며 인구 및 이와 관련하여 부수적인 정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국세조사는 만국통계회의(萬國統計會議) 및 만국통계협회(萬國統計協會)의 결의에 따라 각국에서 시행되며, 매 10년을 한 주기로 한다. 일본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선 임시호구조사는 일본과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일종의 국세조사라 해도 마땅하다. 동태 통계란 어느 일정한 기간, 즉 1년 동안의 출생 수, 사망 수, 결혼 수, 이혼 수를 말한다. 생물인 인간은 시간의 경과 동안 끊임없이 변동한다. 즉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어느 구역 내의 변동 수치를 통계로 나타낸 것이다.

경제 통계: 부(富)의 생산, 분배, 소비를 정태와 동태로 나누어 관찰한다. 즉, 생산, 생산 분포, 소비, 교통, 수출입, 물가, 저축, 보호 등의 통계가 이 부류에 속한다.

농업 통계: 농업통계는 농업을 생산의 기본으로 하는 조선과 일본에서 중요하다. 즉 토지 이용에 관한 통계로는 대농, 소농, 경지, 초생지(草生地)¹⁸⁶⁾ 등에서 경작 면적, 수확량, 수확 예상, 가축, 양잠, 농업 경영(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 순소작(純小作)¹⁸⁷⁾, 농업 노동자(農役夫)¹⁸⁸⁾로 분류), 농업자의 이동(타지 별

185) 국세조사는 1902년 법률 제49호 <국세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지는 물론이고 대만, 사할린 등에 실시 방법을 공포했으며 1920년 10월 1일에 제1회 국세조사를 시행했다. 총독부는 국세조사의 목적이 국가 사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나라에 있는 사회조직과 국민 생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善政)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186) 풀이 난 물가의 땅.

187) 순소작은 소작농이 자기의 경작지 전부를 소작지로 경작하는 것.

이, 농업자 부족으로 인한 도시 이주) 등 다양한 관찰점에서 통계가 작성된다.

이상 주요한 사항들을 언급했지만, 그 외의 내용은 생략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에 그다지 흥미가 없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 통계의 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통계학에 관한 저술은 시간이 있을 때 번역하여 읽어본다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완결)

188) 일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

경산군의 제지

마기성(馬基成)

기원과 연혁

경산의 제지업은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어 기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송림사¹⁸⁹⁾의 승려가 처음으로 부근 야생의 닥나무로 시험 삼아 종이를 만든 것이 그 시작으로 보인다. 이후 제지업은 부근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듯 처음에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술도 유치하였는데 오늘날 지방의 가내공업으로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극히 근대에 들어서이다.

현재 송림동은 경산군의 제지 본고장으로서 용성면 관할이다. 141개 호수(戶數) 가운데 제지업에 종사하는 호수는 131호에 달한다. 예전 송림사 터는 지금 동네의 동쪽에 있었고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나 다만 동네 이름으로 과거를 상상할 뿐이다.

송림동에서 생산하는 종이는 창호지, 백지, 환지(還紙)¹⁹⁰⁾, 피지(皮紙)¹⁹¹⁾ 네 종류로 아직은 가공을 하는 등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여기서 송림동의 제지 발달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생산한 종이는 주로 중국 영시(令市)의 약봉지로 사용되었다. 상업이 꽤 번성하면서 생산도 크게 늘었으나 이후 150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면서 인심이 경조부박(輕佻浮薄)¹⁹²⁾

189) 경북 경산 용성면에 위치한 사찰.

190) 사용한 종이를 재생하여 만든 종이를 일컫는다.

191) 닥나무 껍질의 찌꺼기로 만든 종지로 품질이 낮은 종이.

해졌다. 이에 오랫동안 제지가 가져다주는 혜택에 기대면서 기교 연마를 게을리하고 상업의 기회를 잡는 것에도 어두워 부지불식간에 조악한 제품을 마구 만들어내는 폐해에 빠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주 산내(山内)의 우량한 종이에 압도당해 송림 종이의 명성과 값어치는 객지를 떠도는 슬픈 지경이 되었고 급기야는 열등품이라는 호명을 면치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일대 동양 인사(人士)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폐해로 제지업자들이 침사묵량(沈思默量)¹⁹³할 가치가 있다. 송림지 제지업은 실패하여 돌이킬 방법이 없었는데 신정(新政)이 시행되고 나서 당국의 열성적인 지도 장려와 제지업자들의 반성과 노력의 공이 헛되지 않았다. 최근에 조금 면목을 차리고서 이제야 겨우 제지 선진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업의 패권을 다투는 경지를 보이고 있다. 생산액은 10만 원 가까운 성황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조합 및 현황

용성면은 경산군의 동남, 산간벽지로 송림동은 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계류를 따라 공장이 모여 있어 제지의 이상적인 입지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기업이 자금력 미약으로 인해 대량 주문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혹은 자본의 고정에 견딜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점이다. 마치 보물이 묻힌 산에 들어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특히 생산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여 품질 개선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지방 업자들의 협조를 촉구하여 제품 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해당 업자와 상의하여 1922년 9월 1일 조합을

192)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움을 의미한다.

193) 깊이 생각하고 묵묵히 헤아림.

조직하여 사업을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산군 내 총 생산량이 겨우 5천여 관(貫)밖에 안 되어서 1년 원료 총소비량 5만관 내지 6만 관을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분량은 인근의 청도, 경주, 영천 등의 각 군을 비롯하여 영일군, 영덕군 등 먼 거리의 지방에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료 증식이 현재의 급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지업자 또한 이점에 유의하여 1920년부터 매년 1만 그루 내외의 닥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장래 원료 자급의 길을 강구하면서 당분간은 펄프 및 마닐라 마(麻) 등을 들여와 환지와 피지에 혼입하여 원료 부족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지 개량 시설

1916년도부터 군농회의 경영하에 닥나무 묘목밭을 마련하여 육성한 묘목을 농회 회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배포하여 밭두렁, 산 중턱, 제방 등 경지가 아닌 땅을 이용하거나 다른 작물과 간작(間作)¹⁹⁴⁾하게 하였다. 이렇게 원료 자급책을 강구하면서 지방청의 시설과 더불어 제지공업이 대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즉, 지방청의 시설로는 1917년 이래, 1천여 원의 도 지방비를 보조하여 공장 개량, 원료 증식과 개량, 기구 설비 등을 하여 제지업자의 복리를 증진시켰다. 이와 더불어 군청에는 전임 제지 기술원을 배치하여 원료 증식을 도모하면서 제지법 개량 및 생산 능률 증진, 판로 확장, 기타 제지와 관련된 모든 연구, 발명 등 실지 지도 장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194) 농작물을 재배하는 포기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어 가꾸는 것.

장려상 주의점

경산군 제지 작업 상황을 보면 모두 조선 재래식 즉 노천작업으로, 바람과 비를 막는 방비가 없어서 날씨가 나쁜 경우는 휴업하는 날이 많다. 특히 여름철 무더울 때는 종이 만드는 풀이 심하게 부패하여 극히 경제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에 실내 작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래 생산된 종이의 모양과 품질을 보면 같은 종류라도 치수와 종이 질이 제각각이고 잡다한 것이 적지 않다. 이는 시장동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타산적이지만 더욱더 수요자의 신용을 잃어 점차 쇠퇴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지조합 설립과 동시에 제품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경산군의 제지업자는 생산한 종이에 어떠한 가공을 하지 않고 모두 통상적으로 생지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시세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니 제지 휴한기를 이용하여 기름종이 및 방수 종이 등의 가공 종이 생산을 장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조선종이의 건조 방법은 모두 온돌 건조를 하고 있는데 경산군 제지업자들만 목판을 이용하여 마치 일본식에 가까운 방법으로 햇볕을 이용하여 건조시키고 있다. 때문에 연료를 절약하고 종이 색을 순백으로 하는 등의 이점은 기뻐할 만한 현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제 건조판이 59, 60년이나 되어 판면이 부식되어 울퉁불퉁해서 종이의 질을 상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햇볕을 이용하므로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 능률을 해치는 일 또한 적지 않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시기에는 습지가 부패하는 우려도 적지 않아서 1920년도부터 지방비 보조를 받아 철판 건조기 3개(2대는 1920년도, 1대는 1921년도)를 설비했다. 그러나 도저히 수요에 만족스럽게 대응하기가 어려워 평균 각 호(戶)에 1개의 설비를 두어 능률을 증진시키면서 종이 질의 개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원료, 제지 생산액

● 제지원료 닥나무껍질 누년 생산표

연차	작부반별(作付反別)/정보(町步) ¹⁹⁵⁾	수확고/관(貫)	가격/원
1917년	3.4715	1,860	1,992,180
1918년	7.0000	3,500	4,200,000
1919년	8.3803	4,294	7,708,800
1920년	12.9700	5,043	5,043,000
1921년	13.1300	5,459	5,459,000

● 제지 누년 생산표

연차	생산 수량/ 괴(塊)	가격/원	생산 호수	구유(槽) 수	종업원 수 남/ 여/ 합계
1917년	3,641	35,635,000	109	73	249/154/403
1918년	3,573	73,880,000	119	73	328/169/497
1919년	4,107	116,515,000	135	87	334/170/504
1920년	4,110	84,990,000	135	85	335/170/505
1921년	3,972	61,405,000	131	85	333/170/503

● 1921년 제지원료 닥나무껍질 생산고 표

면 이름	작부반별/정보	수확고/관	가격/원	제지 소비량/관	제지 이외 소비량/관
용성	16.900	5,028	5,028,000	4,985	43
하양	5.000	240	240,000	205	35
남천	5.500	160	160,000	48	112
남산	1.500	31	31,000	16	15
합계	13.1000	5,459	5,459,000	5,254	205

195) 1정보는 약 9917.36m²이다.

● 1921년 제지 생산고 표

면 이름	생산 종이 이름	생산 수량/괴	가격/ 원	경영자 수	제조 호수	닥나무 수	종업원 수 남/여
용성	창호지	105	7,350	113	131	85	333/170
용성	백지	3,367	50,505				
용성	피지	50	1,750				
용성	환지	450	1,800				
합계		3,972	61,405	113	131	85	333/170

같까요? 영덕으로 (압록강 부시)¹⁹⁶⁾

영덕 방수정(芳水亭) 주인

같까요? 올봄은 저 영덕으로
야성(野城)¹⁹⁷⁾ 언덕 벚꽃놀이
어슴푸레 흐려진 저 달빛을 받으며
같이 또 마십시다. 벚꽃놀이 술

같까요? 올여름에는 저 영덕으로
맑은 물 흐르는 저 오십천(五十川)
당신은 어망을 들고 나는 바구니를 들고서
같이 또 잡읍시다. 어린 은어를

같까요? 올가을은 저 영덕으로
높은 파도, 낮은 파도가 번갈아 넘실대는
강구(江口) 물가의 저 달을 따라서
같이 또 들읍시다. 뱃노래를

같까요? 올겨울에는 저 영덕으로
한밤중 부는 바람이 그칠 때
어느샌가 눈 쌓인 저 남산을
같이 또 칭송합시다. 아침 정경을

196) 鴨綠江節. 1912년-1926년 무렵에 유행한 속요(俗謠)로 압록강에 돈 벌러
간 뗏목꾼들이 부르기 시작함.

197) 영덕의 옛 지명이다.

탁상유희

백양정(白楊亭)과 흑선풍(黑旋風)

원안 가결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라니. 무슨 모반이라도 저지르려 하는 건가? 어떤 일인지에 따라서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도대체 무슨...”

“무슨이라니? 우둔한 녀석 같으니. 자, 생각해 보시게. 1월호 마감도 이제 2, 3일 밖에 없는데 이렇게 원고가 안 모이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하하. 그런 의미의 좋은 생각이라는 거군.”

“이제 알겠는가?”

“자, 별일도 아닐세. 원고료라도 듬뿍 준다면 명작품, 훌륭한 문학작품도 모여들 걸세.”

“뭐야.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그런 거라면 딱히 자네에게 상의하지도 않아.”

“후유, 그래서 우리가 아까부터 고민하고 있었지 않은가? 탁상유희. 펜의 춤이란 우스갯소리는 어떨까?”

“아무썩에 쓸모없는 글이란 말인가?”

“그렇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쓰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거 좋네. 찬성! 찬성! 원안 가결.”

이런 쓸데없는 대화에서 나온 게 이 한 편의 글이다. 이름 지

어 ‘탁상유희’라 해도 신안(新案) 특허는 못 되겠지만. (흑선풍)

문명이란

(그래서 흑선풍 군의 제안을 바탕으로 탁상유희, 펜의 춤을 시작하니, 우선 우리부터 몽당붓을 들어봅세.)

문명(civilization)? 문명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필경 인류의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겠지.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찬란하도다, 그 문물이며(郁郁乎文哉)”¹⁹⁸⁾. 즉 사물에 무늬가 더해진 모양일 것이다. 어쨌든 물질적으로도 무형적으로도 인류가 욕구하는 바는 곧 문명 그 자체이다. 문명이란 사회 발달, 질서 정돈, 종교 보급, 과학의 진보와 같이 각양각색의 원인으로부터 빚어져 결국 인류에게 유쾌함과 편리함을 선사하는 것이다. 저 유럽문화의 연원이라 일컬어지던 파리조차도 12세기 무렵의 모습은 불규칙한 골목이 거미줄처럼 교차하고 있었고 밤이 되면 살인, 강도가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리떼가 근처 산에서 내려와 사람과 짐승을 해치기에 무장한 무사들이 사냥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지금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오늘날의 문명 진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 것이다. 그렇다면 문명이란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것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 인류의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누구든지 조금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자나 역사가들은 좀체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거기에 문명이 지닌 고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백양정)

198) 『논어(論語)』에 나오는 구절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본보기로 삼았으니 찬란하도다. 그 문물이며. 나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다.”(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에서 인용한 것이다.

황금세계

(백양정 군! 심히 어머어마한 문제를 들고 나왔군. 나 같이 풍류를 모르는 놈은 그런 케케묵은 시늬는 못하니 횡설수설은 그만하고 기본 정석으로 받아치겠네. 그렇다면...)

실제로 백양정 군이 말한 것처럼 “문명이다, 문명이다”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희망하는 그 문명이란 것은 과연 인류 쾌락의 근원일까? 아니면 인고의 영역일까? 세세히 분석하자면 각양각색의 해설이 있겠지만 요컨대 정치,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며 자유롭고 유쾌하며 온통 재미만 있길 바라는 인류 욕구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문명이 문명다운 까닭이겠지. 쉽게 깨 놓고 말하면 백양정 군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명은 곧 만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만족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물질적 진보도 물론 문명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만족을 사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겉을 장식하고 표면을 꾸미는 것을 문명의 실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문명이란 것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양쪽이 어우러져 함께 나아가는, 소위 고통없는 만족뿐인 이상향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명에 도달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듯하다. 한편으로는 “문명, 문명”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오로지 물질적인 진보에만 유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세계에서는 생활난을 부르짖으며 소위 문명의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것을 문명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흑선풍)

과거와 현재

(이제 내 차례군. 흑선풍 군에게 빼앗겼던 이야기를 이어나가자.)

한 여행자가 앞을 알 수 없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다. 배가 고파질 때 주머니 속에 든 두둑한 돈다발은 바로 외로움과 피곤함을 씻어주거나 굶주림을 없애주는 힘은 없다. 어두운 산중의 집에서 밝힌 등불을 발견하고서 겨우 다다랐을 때의 기분, 그리고 한 그릇의 보리밥, 누추한 온돌방 구석을 내주었을 때의 기쁨은 휘황찬란한 궁전과 제사상의 맛좋은 음식에 질리는 것보다 훨씬 고마운 일이다. 지금은 여행을 하려면 기차와 기선(汽船)이 있다. 요즘은 더 빠르고 편한 자동차도 있다. 용건은 앞서서 무슨 일이든 전화로 충족된다. 먼 곳의 통신은 전신, 무선전화라는 식으로 뭐든지 일거수일투족 일이 해결된다. 옛날에 짚신 신고서 며칠, 몇 개월이나 걸렸던, 객지에서 잘 때의 불안함과 파발꾼, 파발마라는 번거로움과 비교하면 고마움은 비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익숙해지면서 고마움은 점차 없어진다. 이는 마치 자수성가한 인물이 처음으로 궁궐 같은 큰 집을 지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했겠지만, 자식과 손자의 대가 되면 예전의 고생과 현재의 안락함은 비교가 되지 않으므로 딱히 고맙다는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문명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다 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일이 되면 딱히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오히려 이를 누리는 은혜로움의 일면에 있는 비애, 미개한 시절의 쾌락 등을 추억하면서 현대 문명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백양정)

야만시대

(백양정 군! 쓸데없이 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가 했더니 뭐야,

귀착점은 역시나 규슈 사가라(相良)¹⁹⁹라는 건가.)

자, 그렇다면. 망은인가 배덕인가? 이런 건 따져도 끝이 없겠지만 시험 삼아 야만, 미개했던 시절을 추상해 봅세. 그 시절에는 실로 만사가 단순, 소박했다. 편리함도 없었지만, 사치도 하지 않았지. 따라서 생활도 용이했을 터이지만 점차 세상이 열리면서 인간의 욕망은 늘어났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사치스럽게 되면서 소위 생활난이라는 것이 생겨났지. 물론 야만 시대에도 부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 호화스럽게 차린 음식에 시녀가 수백 명이라는 사치를 누리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작은 방에서 굶주리며 추위에 떠는 보기에다 비참한 가난한 자가 있어 생활의 궁곤함을 호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욕망은 매우 작고, 요구는 단순해서 소소하게 행동을 일으키고 느긋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은 어떠한가? 인간의 욕망은 더욱 더 깊어지고 요구는 더 많아지고 겉모습을 꾸미고 허세를 부리니 사치도 극에 달한다. 이에 걸맞게 생활의 정도가 높아지고 게다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거리가.... (흑선풍)

부자와 가난한 자

(흑선풍 군! 잠깐 기다리게나. 자네한테만 맡겨두면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것도 다 써버릴 것 같다. 저쪽에서 잠시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있게나.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시가(詩歌) 문장은 인류가 자연 속에 살면서 드는 정서를 말로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는 영감 상, 고상함이 잠재되어 있다. 옛날 노인(能因)법사²⁰⁰는 좋은 와카(和歌)를 짓고 싶은 생각에 교토

199) 구마모토현(熊本県) 남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200) 988-1058.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의 승려이자 와카(和歌) 작가.

서 머나먼 오슈(奥州)²⁰¹로 여행을 떠나 매일 더운 날씨에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다가 가을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시 한 수가 있다. 바로 ‘안개와 함께 교토를 떠나 가을바람 부는 날에 달은 시라카와노세키(白河関)²⁰²’라는 와카다. 기차와 기선이 있는 오늘날은 저런 일이 오히려 더 그리운 느낌도 든다. 문명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주로 물질문명 쪽이다. 이 물질문명의 이익은 대개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승리한 자, 바꿔 말하면 부를 쌓은 자가 문명을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었다. 화려하게 꾸민 실내 안락의자, 기차, 기선의 일등실 침대, 몸이 편한 좋은 옷과 입에 단 맛있는 음식 등은 대개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이는 수많은 하층민이 선망하는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기차, 기선에서 노동하는 자, 전등불과 가스 불을 지피는 자, 야간 근무하는 공장의 직공 등은 자연이 인류에게 선사한 야간의 수면조차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백양정)

아, 생활난

(백양정 군! 나는 원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좀 우습게 되었군. 비겁하지만 이번만은 용서를 구하겠네. 아무쪼록 잘 봐 주게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거리가 훨씬 멀어져 버렸다. 한쪽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또 다른 한쪽은 지하로 떨어졌다. 야만 시대 때와의 격차를 말하자면 주판의 자릿수가 달

201) 현재 후쿠시마현(福島県), 미야기현(宮城県), 이와테현(岩手県), 아오모리현(靑森県) 일부 지역을 일컫는다.

202) 고대 오슈(奥州) 남쪽에 있었던 관문.

라져 버린 것이다. 낙오된 자, 패자가 있는 사회에서 대다수는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활난을 겪는 부르짖음
은 점차 높고 깊고 크게, 쉼 목소리를 내며 길거리, 논으로 울려
퍼졌다. 식산흥업의 길이 강구되면서 세계의 부는 더 커졌으나
한편으로 소비력도 강대해져서 생산은 언제나 지는 싸움이다. 그
리고 국가까지도 개인을 따라 하며 외부를 장식하고 표면을 꾸미
며 국방, 군비니 뭐니 이러쿵저러쿵 실로 돈이 드는 일뿐이다. 그
래서 가혹한 세금과 무거운 조세로 쥐어 짜낼 대로 짜낸 상태다.
이런 건 별일도 아니다. 마치 젖은 짚더미를 묶는 것 같다. 꾸역
꾸역 묶은 모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다. 그렇다면 문명의 혜택을
받는 상류층은 마치 퇴위하는 중국 황제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유유자적 긴 세월을 즐기는' 것이 가능한가 하면 좀체 그렇지 못
하니 재미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 진평(陣平)의 관(冠)²⁰³이라
할 수 있으니 불가사의하다. (그렇지만 백양정 군! 어차피 닥치는
대로 쓴 탁상유희니 뒷마무리는 좀 나쁘지만 여기서 쉬지 않겠는
가. 그럼 이만.)

203) 『사기(史記)』 56권 「진승상세가(陳丞相世家)」에는 유방의 총애를 받는 진평
에 대해 “진평이 비록 잘생긴 사내로 관을 장식한 옥과 같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틀림없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平雖美如冠玉 其中未必有也)”라며
헐뜯는 무리가 등장한다.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앞 호에 이어)

도미나가 가즈지(富永一二)

4. 군비 상황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실로 천연의 양항(良港)²⁰⁴인데다 러시아가 동양 특히 일본에 대한 책원지(策源地)²⁰⁵로서 최선(最善)의 군비(軍備)를 설치한 곳이므로, 대규모인데다 주도면밀한 점은 시찰자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바이다. 즉 항구의 전면(前面)을 장악한 루스키 섬은 주로 해상 방어 포대로서 완전무결한 군비를 갖추고 있으며 트루킨반도²⁰⁶의 그 밖의 언덕에도 엄중한 포루(砲壘)²⁰⁷가 있을 뿐 아니라, 뒤쪽에 우뚝 솟은 죽순모양의 산악에는 모두 포루가 설치되어 있다. 대체로 배면방어 포대는 제1, 제2, 제3선으로 나눠 축조하여 러일전쟁 전에도 난공불락이라 불렸으나, 러일전쟁 경험으로 더욱 방비를 했다. 그래서 각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산악은 정상에서 2,3합(合)²⁰⁸ 높이까지는 인력(人力)으로 산악의 형상을 변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가지와 각 포대 및 각 포대 사이에는 4간(間)폭의 도로를 뚫어 각 포대의 정상까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

204) 좋은 항구

205) 전방 부대에 보급, 정비, 위생 따위의 병참 지원을 행하는 후방 기지.

206)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와 금각만을 사이에 둔 지역.

207) 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물.

208) 등산로의 도착 목표를 나타내는 단위, 산기슭에서 정상까지를 10합으로 나누는데, 단순히 높이나 거리로 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서 오를 때 필요한 시간이 대략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험준한 장소나 급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1합의 길이가 짧아진다.

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 수송 기관으로 각 포대까지 케이블 카(전기수송) 시설이 있다. 또 유사시의 대비로 시가지에서 전력으로 식수를 보내는 장치가 있다.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가장 뒤쪽인 제7번 포대를 시찰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에서 거의 20 리, 더구나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다. 망루에 올라 좌우를 둘러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가 눈 아래에 있다. 오른쪽에 아무르만, 왼쪽에 우수리만을 바라보며 설치되었는데 최선의 인력(人力)을 가한 요충지는 배면방어의 일대 권위로서 중요시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는 설치된 대포가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 이국인의 시찰도 자유로워져서 그 경로를 생각할 때 마다 한줄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를 중심으로 1번 강과 2번 강 지방, 기타 각 곳의 병영 설비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제11사단인 일본 군대와 기타 외국군대가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비어있는 상태이다. 유사시에는 이 부근 일대의 병영 등에는 35군단의 군대를 수용할 여력이 있다. 러시아 최전성기에는 일본과 한차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수십만 군대를 이곳에 집중시켜 수백 척의 운송선으로 일거에 일본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장춘몽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항구의 군비를 여순과 비교하면 대체로 열배의 무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공격하여 함락한다고 해도 희생 역시 여순의 열배가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수십만의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함락은 확실치 않다고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제정(帝政)이 붕괴됨에 따라 국내가 사분오열²⁰⁹⁾하여 작년인 1920년 4월 과격파 군(軍)이 무장 해제됨에 따라 블라디보스

209) 여러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짐.

토크에 러시아 병사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모든 포루가 다 폐기 상태가 된 것은 영고성쇠²¹⁰⁾의 전변(轉變)²¹¹⁾이 너무나도 급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포대시찰에 대해 부언할 내용은 이 포대 부근에 사원(寺院)이 설치되어 있는 점이다. 내가 시찰한 제7포루에 가까운 산 중턱에는 병영이 있다. 수비 군대를 수용하게 되면 이것과 서로 나란히 사원을 건립한다. 일요일 등의 예배 날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정신 수양을 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 대한 옹고 그름은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비밀지대의 포루와 군인을 수용하는 병영 부근에 이러한 사원이 존재하는 것은 일본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이하게 여겨졌다.

5. 조선인 상황

시베리아 일대에 거주하는 40만이니 혹은 50만이니 하는 조선인은 원래 정확한 숫자는 판명이 되어 있지 않으나 어쨌든 30만 이상의 숫자에 이르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들은 우편선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한 뒤 차츰 시베리아로 이주하였는데, 안으로는 치타지방에서 흑룡강을 따라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셴스크를 비롯하여 니콜리스크 등 각 지방에 산재한다. 그런데 그 중에는 러시아에 귀화한 자도 있는데, 제정시대에는 조선인에게 귀화를 장려하여 귀화한 농민에게는 1호 당 15정 정도의 토지를 제공했다. 또 군인이나 관리자의 상당수는 진로를 개척하여 유럽 전쟁 때는 러시아 장교로 출정하여 공훈을 세운 귀화 조선인도 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부분은 농민으로 자

210) 인생이나 사물의 변성함과 쇠락함이 서로 바뀜.

211) 만물이 바뀌어 달라짐.

작농이나 소작농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최근 가로데²¹²⁾ 부근에는 수전을 개간하여 1920년에 3만석의 쌀을 수확했다. 올해는 양귀비 재배를 그만두고 대대적으로 쌀농사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양귀비 재배는 아주 유망하여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뒤로는 거의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이를 이용하여 관헌은 계속해서 뇌물을 받고 있다. 니콜리스크에서 반출되는 아편은 연 6,7십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조선인이 재배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니콜리스크시 및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의 상인 또는 유력자라 불리는 조선인도 대부분 아편 밀매에 관계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한다. 함북지방은 시베리아에 접해 있는 땅이라 시베리아 지방에 이주하는 자의 대부분은 함북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블라디보스토크항 및 니콜리스크시에서 만난 조선인의 거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출신자였다. 게다가 함경북도 중에서는 경흥(慶興)과 경원(慶源)이 최다였고 명천(明川)과 길주(吉州), 성진(城津) 지방 출신자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이들 함경북도와 관계있는 조선인은 함경북도에서 출장 온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니콜리스크시와 블라디보스토크 양 지역에서는 민회에서 여러 명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대해 선전적인 강연을 해 두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시베리아에서 나고 자란 이도 많아서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인 자도 있기 때문에 불령선인들이 총독정치에 대해 중상적 선전을 시도하면 이를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관헌의 시설과 더불어 니콜리스크시와 블라디보스토크 양 지역에서 파견된 조선인 시찰단이 직접 조선 땅을 밟아 총독정치의 실정을 듣고 조선인의 복리 증진

212) 위치 미상.

상황을 자세하게 시찰하여 종전에 품었던 상상과 아주 상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다. 나에게 연신 모국에 있는 조선인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이러한 시찰단은 매우 유익하므로 종종 실시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평소 시찰단이 조선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를 환대하여 조선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니콜리스크시에는 조선인 중에 20만 원 정도의 자산가가 있으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자산가가 적어 5만 원 정도를 최상으로 하며 1,2만원인 자를 소위 부호라 한다. 따라서 무역상도 대규모로 하는 자가 적고 대부분은 어용상인, 잡화상, 기타 잡업자이다.

귀화조선인은 성격도 러시아인과 아주 비슷하여 일반적으로 대범한 점이 있으며 일반 조선인에게서 볼 수 있는 영합주의자가 적어 첫 만남에서도 호감이 생긴다. 시베리아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대개 러시아어를 아는 자가 많은데, 귀화조선인은 러시아어가 유창하나 조선어는 서툴러서 연회 등에서 인사할 때는 러시아어로 말하고 조선어로 통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일본어로 통역해야만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평하자면 일본어, 조선어, 러시아어 모두 완전하지 않아서 용무 상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6. 불령선인의 상황

러시아에서의 불령선인의 운동은 연혁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한일병합 전후에 보호정치 또는 양국의 병합에 대해 불평을 품은 소위 지사 무리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블라디보스토크와 니콜리스크 등을 중심으로 제국의 세력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곧이어 유럽의 전란, 러시아제정의 붕괴, 과격파의 발호, 또

1919년 3월 조선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이들 지사 무리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때로는 과격파의 후원 하에, 때로는 일본에 반감을 가진 모 나라 등을 의지하여 과격파 등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공급받아 군자금 모집, 장정의 교련 등 불령(不逞)²¹³⁾한 활동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심인물은 이동휘(李東輝), 김하석(金夏錫), 문장범(文章範), 최재형(崔才亨), 홍범도(洪範圖), 이범윤(李範允) 등으로 그 중 이동휘, 구춘선(具春先), 서일(徐一), 김하석 등은 함북 출신이다. 그리고 이들 불령 두목은 대한국민의회, 독립단 또는 노인단 등의 배일 단체를 만들어 블라디보스토크, 니콜리스크, 하바로프스크, 블라고베센스크 등을 중심으로 신문이나 선전 협박으로 독립의 기세를 올리고 간도 훈춘의 중국령을 근거지로 하여 조선의 일각인 함북의 변경을 점령해야 한다는 등의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그 일부 맹동대(盲動隊)는 1920년 3월 온성지방에 수차례 무력 습격을 시도했으나 일본 수비관헌이 개수일촉(鎧袖一觸)²¹⁴⁾으로 격퇴시켰다. 한편 시베리아 파견군은 작년 4월 과격파군을 무장 해제함과 동시에, 불령단의 소굴인 신한촌(新韓村) 및 니콜리스크의 불령선인을 습격하여 양 지역 모두 수십 명을 체포했고 니콜리스크시에서는 배일 두목인 최재형(崔才亨) 외 3명을 사살했으며, 신한촌에서는 한민학교를 모조리 태워버리는 뜻밖의 큰 철퇴에는 그 대단한 불령단도 위축되어 조용해졌다.

1920년 4월 이 사건 이전의 신한촌은 참으로 소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일본인으로 보이는 이가 있으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돌을 던지거나 붙잡아서 구타를 했다. 친일 조선인은 이들을 밀

213) 원한, 불만, 불평 따위를 품고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함. 또는 그런 사람.

214) (갑옷 소매로 한번 스치는 정도로) 쉽게 상대를 물리침.

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육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상된 일본인과 조선인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인 등은 우선 신한촌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곳 상황을 조사하도록 명령 받은 헌병 등도 입구를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에 합당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복명(復命)하는 수밖에 없다. 다년간 블라디보스토크에 재근하여 조선인에게는 상당히 숭경(崇敬)받는 기도(木藤)통역관도 신한촌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 지방의 기질이 험악하다는 점을 상상해야 한다. 그런데 4월 4, 5일 사건으로 그들에게 일대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군 당국에서는 그들 불령자를 회유하고 보호하는 방침을 추진하여 직업이 없는 자에게는 직업을 주고 구매조합을 만들어 생활의 안정을 보증하고, 학교를 원조하여 교육을 시키는 등 각 방면에서 그들을 지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완미(頑迷)²¹⁵한 그들도 항복하여 고분고분히 명령에 따를 뜻을 표하는 자가 많다. 문장범 일파처럼 늘 일본제국에 칼을 들이대는 자들은 때로는 하바롭스크 때로는 블라고베센스크 등 일본 군부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방에서 준동(蠢動)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블라디보스토크—특히 신한촌이나 니콜리스크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지극히 평온하여 우리가 시찰하면 종래의 배일 조선인이나 그렇지 않은 자도 다수 집합하여 시찰자들을 맞이한다. 대부분 함북 출신인 그들은 나의 시찰을 충심으로 기뻐하는 분위기이며 화기애애하여 지난번처럼 불온한 장소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파견군이 한 차례 귀환을 하려고 해도 형세가 어떻게 변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간도 훈춘 토벌로 인해 허세를 부리던 홍범도, 이범윤, 제일(除

215)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세어 사리에 어둡다.

一) 등의 불령한 일당은 러시아 영토로 도망친 자들이 많다. 즉 그들은 삼삼오오 지름길을 따라 한 무리는 동중국 철도 연선 지방에 모였고 일부는 하바롭스크 방면에, 나머지는 모란강(牡丹江) 및 목림하(穆林河)²¹⁶⁾ 유역을 따라 블라고베센스크 시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러므로 하바롭스크 및 블라고베센스크 지방은 장래 과격파를 중심으로 한 불령선인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 틀림없고, 이전부터 이 지방에서 활개 치던 문장범 일파의 불령단과 함께 하여 기세를 떨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번 훈춘 간도 토벌은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의외로 여기는 일이며 동시에 호연장담한 불령단의 내막이 폭로되어 그들은 큰일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하고, 독립운동 같은 것은 몸 좋은 강도의 변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많다. 일파의 두목인 임기전(任基甸)은 일본 관헌의 눈을 두려워하여 경흥과 마주보는 봉우리인 구사평(九沙坪)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도망쳤으나 나의 출장 소식을 듣고 같은 일당 한 명과 함께 나를 찾아와 이전에 저지른 잘못을 진술하며 귀순을 청원했듯이 일반 조선인은 물론 불령한 일당도 대세를 깨닫고 근신의 뜻을 표하게 된 점은 기뻐할 만한 일이다.

종래 배일사상의 제일 근거지인 신한촌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가지에서 약 10 리 떨어진 산언덕 경사면에 건설된 조선인 부락으로 가구 수는 7백 가구이다. 가옥 구조 등은 조선의 가옥보다 조금 낮지만 왜소하고 불결한 점은 서로 비슷하다. 나는 그들의 생활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많은 가옥 안으로 들어가 실내 모양과 기타 의식(衣食)에 대해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만은 별천지로 온돌이 있으며 마늘 냄새나는 요리도 있고, 흰 옷을

216) 흑룡강성과 길림성을 흐르는 하천으로 우수리강 좌안의 지류 중 하나이다.

입은 어머니와 총각도 조선식 복장이다. 찬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는 담군도 여기저기 보이는 상황으로 그들의 보수적이고 세계적으로 진화하지 않는 일면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작년 4월 정변 후에는 민회를 만들고 헌병출장소도 설치되어 최근 표면적으로는 확연하게 평온해 졌다. (미완결)

울릉도 기행

조지 윈²¹⁷⁾

울릉도는 예전부터 경상북도의 장로교회²¹⁸⁾가 직접 전도해 왔지만, 이번에 우리 전도단의 관할 구역이 되었다. 그래서 울릉도를 둘러보기 위해 일단 출발했다. 대구에서 중앙철도로 포항에 도착한 다음, 다음 날 아침 포항에서 김해호(金海丸)라는 작은 기선을 타고 오전 열한 시쯤 출항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배는 이미 섬에 접근하고 있었고 섬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다. 그 험준한 산과 녹음에 싸인 섬의 모습은 하와이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울릉도는 전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전체가 거대한 사화산(死火山)이었다. 태고의 분화구 외벽은 섬 중앙에 우뚝 솟아 있고 해발 3천 척으로 울창한 원시림에 덮여 있었다. 이 섬을 울릉도라 부르는 것도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서 유래한 것 같다.

해안은 바위벽이 높게 솟아 있고, 지브롤터(gibraltar)²¹⁹⁾를 연상시키는 높은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서서 이 험준한 외딴섬을 지키듯 밀려오는 큰 파도를 막아내며 끝없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어 정말 장관이었다. 또한 섬 주변에는 기이한 모습의 거대한 바위와 신비로운 동굴들이 적지 않았다.

217) 'George H. Winn'이라고 표기하며 한국 이름은 '위철친'이다.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선교를 위해 조선으로 넘어왔다.

218)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개신교 교파 중 하나로, 종교개혁가 장 칼뱅(Jean Calvin)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의 일파이다.

219) '지브롤터 해협'은 지중해와 대서양의 접점으로 육지 사이에 끼여 있는 좁고 긴 바다를 말한다.

오징어 도깨비(お化け)

도동(道洞)은 섬의 항구이며, 인구 약 천 명이 살고 있는 도청 소재지이다. 하지만 항구가 남쪽으로 노출되어있어 남풍이 부는 날에는 파도가 거세어 상륙이 불편하다. 도착한 날도 남풍으로 인해 파도가 거칠어서 마중 나온 작은 배가 요동쳐서 탑승하기 쉽지 않았다. 작은 배가 기선의 발판과 같은 높이가 된 순간을 노려 뛰어올라 타야 했기에 정말 목숨을 건 일이었다.

도동은 세 면이 가파른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좁은 용암 계곡에 있지만, 거리를 걸으면서 놀란 것은 집들이 일본식으로 잘 지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이 섬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섬의 총 인구 8천 명 중에서 1,500명까지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인이 우세한 곳은 전체 조선 지역에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다.

이들 일본인은 주로 오징어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해 왔으며, 잡은 오징어는 일단 말려서 일본으로 수출했다. 일본인들은 오징어를 매우 좋아하지만, 다리가 길고 몸통이 가죽처럼 생겨서 오징어를 본 적이 없는 유럽과 미국인들은 그 맛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모양만 보고 질색해서 입에 댈 생각도 하지 못한다.

오징어는 마을 곳곳에서 처마 아래나 장대에 매달아 말리고 있다. 오징어는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밤이 되면 희미한 푸른 빛의 인광을 몸통에서 내뿜는다. 멀리서 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 수백 명이 하얀 옷을 입은 유령이 서 있는 것처럼 보여 매우 기이한 광경이다. 그러나 동시에 섬뜩한 감정도 많이 든다. 이 섬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오징어 괴물에 한번 놀란다.

동백으로 물드는 섬

목재는 이 섬의 중요한 특산물 중 하나로, 매년 상당한 양의 견고한 재료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섬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30년 전에 ‘미츠리(ミツリ)’라고 불리는 미국인이 와서 목재를 벌채했다고 한다.(미츠리는 미첼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동백유도 이 섬의 특산품이지만, 섬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농업이다.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경작지가 적기 때문에 점차 산을 개간하는데 심한 경사의 산비탈까지 이용하여 경작하고 있다. 섬 전체를 통틀어 논(水田) 면적은 300마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니, 산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어떤 마을에서는 숲을 개간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루터기도 베어진 나무도 그대로 버려져 부패하고 있다. 섬의 삼림은 현재 관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있어 무질서하게 벌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가는 나무는 적지 않다. 어쨌든 목재는 여전히 풍부하여, 집을 짓는 데에도 아름답고 웅이가 없는 폭 2척 이상의 고품질(上等)의 판재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붕에 큰 자갈을 여러 개 올려놓은 집도 적지 않은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독특한 광경이다.

울릉도는 거리 면에서 보면 일본보다 조선과 가깝지만, 여러 관계를 고려하면 조선보다도 일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섬이 화산섬이라는 점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라는 증거이다. 조선은 원래 화산국(火山國)이 아니다. 둘째로 기후 면에서도 일본과 유사하며 습기가 많고 강수량도 많다. 겨울은 너무 춥지는 않으며 눈은 많이 내리지만 퐁퐁 얼 정도의 추위는 드물다. 이 지역은 일본의 서해안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 셋째로 꽃은 조선 품종보다 일본 품종이 더 많으며, 수목도 내가 소년

시절 일본에서 자주 보던 것들이 많고 자연성의 독활(獨活)이나 대황(大黃)이 있는 것도 일본과 유사하다.²²⁰⁾ 수목 중에서 일본다운 것을 꼽자면 동백나무이다. 동백나무는 일본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조선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다. 본 섬의 동백나무는 섬사람들의 자랑거리로, 이른 봄에 꽃이 피었을 때, 불타는 듯한 진홍색 꽃이 하얀 눈에 비치는 광경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일대 장관이다. 또한 동백나무는 그 씨앗에서 고급 기름을 얻을 수 있으며, 섬사람들은 이 동백유 제조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넷째로 지도를 펼쳐 연구해보면, 일본 히로시마 북쪽의 서해안에서 이 섬 근처까지 이어지는 작은 군도와 모래톱이 있어서 이 섬은 사실상 일본과 연결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새나 메뚜기와 같은 벌레까지 마치 일본 품종인 것 같다.

언덕과 바위와 폭포

이 섬에는 산고양이를 제외하고 특유의 동물은 없다. 소는 수 입된 이래로 잘 번식하여 섬 곳곳에서 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1근에 50~60전이나 하는 소고기가 이곳에서는 1근에 겨우 12전으로 매우 싸다. 섬에는 소는 있어도 말을 한 마리도 없으며, 대부분의 섬 사람들은 말을 본 적이 없어서 말을 뿔이 없는 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 섬에는 옛날에 주민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중세에 해적의 소굴이 되어 주민도 사라지고 오랫동안 무인도로 남아 있었다. 현재의 주민들은 50년 전부터 점차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군함 중 일부는 이 섬

220) 독활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며 대황은 마디풀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으로 피신해 폭침되었으며 아직도 항구 밖 가까운 해안의 깊은 해저에 그 잔해가 가라앉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이며, 조선 각 도에서 이주해 왔다. 그 중 다수는 빈민이지만 육지의 조선인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 섬에서 성가신 것은, 어디를 가든 언덕을 올라야 한다는 점이다. 통로는 대개 산길이며 또한 가파른 언덕도 많다. 도동에서 출발하여 가파른 언덕을 한 번에 넘으면, 다시 푸르른 바다가 발아래 펼쳐진다. 해안 근처 바다에는 촛대바위라고 불리는 높은 원뿔형의 바위가 서있다. 이 섬에는 이런 바위가 몇 개 더 있다. 그 중 가장 웅장한 것은 섬의 동북쪽 끝에 있는 삼지암(三指岩)이다. 해안을 따라 나아가면 또 다시 산이다. 산속에서는 높이 150척의 아름다운 폭포를 발견했다. 도동을 나올 때부터 내리던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산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짐도 옷도 흠뻑 젖었다. 마침 운 좋게 교회당이 있는 지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옷이 젖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장거리의 피로로 인해 모든 일을 잊고 폭 잘 수 있었다.

이 교회에서 재밌었던 점은 이 교회에 있는 청년이 기독교의 성지 팔레스타인에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청년이 먼 유다²²¹⁾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들었는데 이 청년은 시베리아 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떠났다고 한다. 그는 노동하면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 마침내 모스크바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유럽 대전이 시작되

221)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

서 연합군에 고용되어 일했다는 흥미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화산구 탐험

다음 날 아침 교회에서 모여 출발했다. 산은 점점 가팔라졌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우리 안내자이자 신자의 집이 있어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아름다운 숲속에 있는 집으로, 나무 사이로 푸른 바다와 작은 섬, 밭(畑地) 등이 내려다보이는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음식은 감자 가루로 만든 떡, 볶은 보리의 이삭, 그리고 평범한 절임반찬으로 구성되었다.

식사 후에는 힘을 내서 옛 분화구 탐험을 하러 떠났다. 장엄한 큰 나무의 원시림에 둘러싸여 있었고, 성인봉이라 불리는 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남쪽 가까이에 있다고 들어, 급히 올라가 보기로 했다. 길을 가다 보니 잡초와 가시덤불이 비로 인해 쓰러져 길을 막고 있어 오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간신히 정상에 도달했지만, 너무 무성한 나뭇가지가 시야를 가리고, 비 온 뒤의 안개가 짙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실망하고 어쩔 수 없이 분화구로 되돌아갔다. 잡초와 엉킨 덩굴을 헤치면서 외벽을 따라 2천 자 되는 바닥에 도달했다.

이 오래된 큰 분화구는 아사마(淺間) 화산과 매우 비슷하지만, 아사마산보다는 큰 것 같다.²²²⁾ 길이는 남북으로 2마일이고 폭은 조금 좁은 편이다. 이 큰 분화구의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높이 400자 되는 제2분화구가 있으며, 그 분화구 안에는 또 다른 작은 분화구들이 있다. 제2분화구에서 큰 분화구에 걸쳐 여러 개

222) 아사마산(淺間山)은 일본 나가노현(長野縣)과 군마현(群馬縣) 경계에 있는 활화산.

의 작은 분화구들이 이어지는 사이에 조선 귀족의 능묘를 조금 크게 한 정도의 크기도 있다. 이 분화구 내부는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부유한 한 부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자와 수수가 한 면에 심어져 있다. 제2분화구 옆에 있는 교회당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은 사진을 찍기 위해 작은 분화구를 올라 오래된 분화구의 협곡으로 나왔는데, 이 협곡의 그늘진 곳에는 작년에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쯤에서 분화구 관람을 마치고, 일행은 오래된 분화구 벽의 큰 동굴을 통해 북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이 동굴에서는 분화구 내부의 광대한 면적에 고인 물이 한순간에 일대 분천²²³⁾이 되어 마치 기계의 힘으로 압축해서 뿜어내는 것처럼 엄청난 기세로 초당 20~30갤런의 비율로 분출하고 있었다. 나는 이처럼 물이 풍부한 분천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며, 물의 맑음이 정말 영롱한 옥 같아서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시험 삼아 손을 담가 보니 차가움이 뿔속 깊이까지 스며들었다. 이 거대한 분천은 수천 자의 계곡을 낙하하며 수많은 작은 폭포가 되어 급류를 형성한 뒤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만큼의 많은 물이 있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섬 전체에 전등과 동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우거(アウガ-) 봉(峰)

이 계곡을 내려가면, 아우거 봉이라 불리는 거대한 뾰족한 봉우리가 바로 눈앞에 솟아 있다. 이 봉우리는 오래된 분화구 벽의 일부로, 바다에 면한 쪽은 수천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거대한 절벽이 되었고, 마천루처럼 하늘을 찌르

223) 힘차게 솟아오르는 샘.

고 있었다. 이 절벽 아래를 지나가면 지금도 머리 위로 무너질 것만 같은 거대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이 크고 뾰족한 봉우리가 바다를 면해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은 실로 일대 장관이며, 그 밖에 여러 개의 독립된 봉우리가 섬 곳곳에 있는데, 아우거봉의 웅대함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

또한 이 섬에는 고사리가 풍부한데 곳곳의 숲 그늘과 계곡 사이에 푸르게 자라고 있어 산뜻한 느낌을 준다. 소녀의 머리카락처럼 가는 고사리와 거대한 암석과 나무에 휘감기고 늘어져 있는 덩굴은 정말 아름답다. 또한 이 산속에서 사람 머리 크기만 한 큰 버섯을 발견했다. 버섯은 마치 두꺼운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어딘가 도둑의 얼굴을 닮아 있어 우스꽝스러웠다.

여정이 이어질수록 풍경은 점점 더 기이해졌고 용각암(龍角岩), 관암(冠岩), 그리고 다른 기이한 경관들이 끊임없이 앞에 나타나 맞이했다. 도동에 도착하기 전, 조금 앞에 있는 해안에는 해저 전신(電信)의 접속소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일행은 섬을 한 바퀴 돌아 도동으로 돌아왔다. 도동에 있는 일본인들 중에도 열성적인 신자가 있었고 최근 일본인 다섯 명이 조선인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은 친절하게도 섬의 명산인 오징어를 스무 마리 선물로 주었는데, 오징어는 특이하고 기분 나쁜 모양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돌려주는 것도 무례하므로 그 호의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받았다. 도동 체류 중 한 조선인이 갑자기 방문하여 물었다. "당신은 본명이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인에게 나는 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지금 내 본명을 물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오마하(Omaha)²²⁴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분명 몇 년 전 오마하

224) 미국중서부네브래스카주 동부에 있는 도시이다.

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물어봤다. 이 조선인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내 삼촌에 해당하는 오마하 시의 램프 박사의 가정에 초대된 적이 있었고, 그때 삼촌에게서 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와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서 먼 내 고향과 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리운 고향의 소식이나 삼촌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은 이번 여행에서 유쾌한 일 중 하나였다.

대나무 섬의 왕

도동 체류 중, 광천수가 솟아나오는 곳이 있다고 듣고 방문해 보았다. 과연 산 중턱에서 맑은 탄산수가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누구든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설탕을 넣어 사이다 같다며 즐겁게 마시고 있었다.

다음 날은 독도²²⁵⁾를 방문했다. 독도는 한 변의 길이가 10리²²⁶⁾도 되지 않는 작은 섬으로, 울릉도에서 20~30리 떨어져 있다. 주민은 단 한 가구뿐이며, 실로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섬에는 배 한 척도 없고, 배를 매어 둘 곳도 없다. 그 가족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계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가끔 울릉도의 어선이 찾아올 뿐이다. 하지만 이 집안의 주인은 섬의 왕으로서 섬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아무런 불편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 섬 주위는 모두 단안(斷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섬에 오를

225) 원문에는 '竹島'로 쓰여있다.

226) 원문에는 '1리'이다. 한국은 1리=약400m인 반면 일본은 1리=약4km이다. 번역은 한국의 리 단위를 기준으로 옮겼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이 길도 배에서 바위 위로 뛰어넘은 뒤 말뚝이나 못을 이용해 암벽 틈을 기어 올라가야 하고, 추가로 사다리를 이용해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서 또 다른 사다리를 타고 겨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섬의 정상은 한 면의 평지로, 숲도 있어 땀감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식수가 없어서 비를 저장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 외딴 섬에서 섬사람과 이야기할 때, 파토모스섬²²⁷⁾에 간 성 요한²²⁸⁾에 대해 생각했다. 점심으로는 수수와 수박을 대접받았는데 여기 수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 가장 맛있는 것이었으며 처음 나왔을 때는 절대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너무 달콤해서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다.

일주일간의 흥미롭고 즐거운 섬 여행을 마치고, 다시 김해호(金海丸)를 타고 포항으로 돌아왔다.

227) 파토모스섬(Patmos)은 터키 연안부에서 가까운 에게해에 떠 있는 그리스의 작은 섬으로 성(聖) 요한(St. John)이 이곳에 유배당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228) 성(聖) 요한(St. John)(1495년 3월 8일~1550년 3월 8일)은 포르투갈 출생의 수사이고, 스페인의 한 수도회의 설립자이자 그 수도회의 지도자이며, 사후에 로마 가톨릭의 성인으로 공경받는다.

도소기언(屠蘇²²⁹)奇言)

오키나가(息長)

□ 일대 문호이자 메이지 시대의 대표 신문기자로 불렸던 후쿠치 오우치(福地桜痴)²³⁰ 거사의 『나가사키 삼백 년간(長崎300年間)』이라는 책에는 오랫동안 일본과 외국의 교통 요충이 되었던 나가사키에서 들어온 외국어 가운데 거의 일본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습관처럼 쓰이고 있는 명사가 20~30개나 있다. 램프, 카보차²³¹, 텐푸라, 샷포²³², 켓, 샴본²³³과 같은 종류들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포르투갈어, 네덜란드, 남양(南洋)²³⁴ 등이 일본식 말투로 발음된 것이라고 한다.

□ 오래 시대부터 전해져 있던 일본의 말은 어쨌든 오늘날에는 한어, 양어, 특히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이지유신 때의 소란이 겨우 진정되고 메이지 시대의 태평한 시대가 도래하자 교육이 일시에 변혁을 맞이했는데, 메이지 초기부터 서양의 문물이 대거 수입되었지만 뭐라고 해도 한학은 여전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교 과정이나 입학시험에서도 상당한 부

229) 정월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마시는 술.

230) 후쿠치 오우치(福地桜痴)는 필명으로 본명은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 1841년-1906년)이다. 일본 막말의 막신(幕臣)이자, 메이지 시대의 정치 평론가, 극작가, 소설가였다.

231) 호박을 뜻한다.

232) 샷포(シャップ, Chapeau)는 프랑스어로 모자를 뜻한다.

233) 샴본(シャボン, Savon)은 프랑스어로 비누를 뜻한다.

234) 남양 군도(南洋群島)를 의미하며 태평양 남서부의 섬들을 가리킨다. 현재의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 등을 포함한다.

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도시와 시골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사숙(私塾) 등에서도 한학숙(漢學塾)이 많았기 때문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선생이 양학에 무게를 두어 한학에 강력히 반대하는 동안, 한학과 양학을 겸한 학자라고 불린 나카무라 케이우(中村敬宇)²³⁵ 선생은 ‘한학 폐지 불가론’을 펼쳤고 이는 유명한 일이었다.

□ 메이지 초기의 서생이라 하면, 소박한 옷과 검소한 식사가 거의 당연했다. 지금처럼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일견 어딘가의 도련님 행세를 하고 건방지게 요리집이나 마치아이(待合)²³⁶에 난입해 게이샤들을 들먹이며 소란을 피우는 야쿠자 같은 서생은 없었다. 만약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동료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풍조는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 로마는 사치로 망했고, 가까운 예로 도쿠가와 막부도 사치 때문에 망했다. 일국의 원동력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학생들의 풍조가 오늘날처럼 변한 것은 과연 무슨 징조일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메이지 초기에는 법률도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았고, 육군도 보불전쟁²³⁷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프랑스를 따랐다.

235) 나카무라 케이우(中村敬宇)는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년-1891년)의 호(號)이다. 그는 메이지 시대 전반기의 계몽사상가이자 교육가로, 1866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주요 저서로는 「서국입지편(西国立志編)」과 「자유지리(自由之理)」 등의 번역서가 있다.

236) 모임을 갖거나 약속을 기다리는 장소로, 주로 유흥이나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37) 1870년부터 1871년까지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에스파냐 국왕의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전쟁. 프로이센이 크게 이겨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학문은 막부시대부터 이어져 상당히 번성했다. 그래서 당 시에는 도도이쓰(都都逸)²³⁸⁾에 시나 외국어가 들어간 형태가 유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다.

한밤중에 문득 눈을 뜨니

tremblement de terre(トランブルマン、ド、テール)

이 구절은 곧 프랑스어로 지진을 의미한다. 조금 억지스럽지만 생각이나서 적어봤다.

그 후로 점차 영어가 유행하게 되어 도쿄의 히토쓰바시 주변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회사나 은행 등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또한 과하게 영어를 남발했다. 특히 미쓰이(三井)의 번두(番頭)²³⁹⁾ 등이 올 때는 말끝마다 영어를 남발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상 겸연쩍어 했고 그런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일도 벌어졌다.

외국어가 들어와서 일본어로 바뀌게 된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한어가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된 것은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어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염(無鹽)’이라는 말이다.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성행했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가장 알기 쉬운 것 같은 생선(生魚)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있어 보이게 ‘무염’이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것은 하나의 기이함이라고 말해야 한다.

□ ‘화이트셔츠’는 언젠가부터 일본식 발음이 되어 지금은 ‘와이셔츠’로 통하게 되었다. ‘하이카라’는 현재 젊은이들 중에서 언

238) 샤미센에 맞추어 부르는 속요의 일종으로 7-7-7-5의 행을 가지는 것.

239) 상가(商家)의 고용인 우두머리, 상점의 지배인.

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아는 자가 적겠지만 그것은 1900년 ~1901년경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 쪽에서 들어온 것이다. 일본에서 ‘하이카라’는 멋쟁이나 치장의 다른 말로 사용되며 원어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되어 거의 원어의 의미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말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는 꽤 편리한 일본화가 아닌가.

□ 영어는 외국어 중에서도 일본에서 가장 유행하는 언어이다. 이는 학교 등에서 영어에 가장 중점을 두게 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외국어라고 하면 영어만 중요하다고 속단해서 외국에 가서 영어만 말할 수 있으면 큰 걱정이 없을거라고 여겼지만, 유럽 대륙에서 기차 시간표조차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외국어의 대표는 영어이다. 그야말로 미쓰이(三井) 대표의 전성시대였다.

□ 이와 비교해서 애석한 것은 한학이다. 지금까지 충분히 일본 문화를 도왔던 아니, 이끌어온 은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이기지 못하고 점차 밀려나고 있으며 이제는 최후의 일격을 맞으려 하고 있다. 로마 학회나 가나회(假名會)는 말할 것도 없고, 한자 제한론 같은 주장은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은 심술꾼은 아저씨들이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었다. 밭상인 숙부나 작은아버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한학의 입장에서 매우 섭섭하다.

□ 한자 제한론도 이론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일은 항상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학교 교과서 등에서 사용되는 문자를 제한한 결과, 학생들의 한자 실력이 무서울 정도로 저하

되었다. 평범한 보통 문장조차도 올바른 음과 훈을 틀리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중학교 졸업생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글자를 쓰라 하면, 글이 서툰 사람이 쓴 것처럼 획을 잘못 긋거나 취음자²⁴⁰)를 쓰고도 태연하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가나까지 붙이니까 억지스러움도 정도를 모른다.

□ ‘舞文’을 ‘マイ文’, 遂行을 ‘ツイ行’, 蒐集을 ‘キ集’ 등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잘난 메이지 정부 관료들²⁴¹)에게 식은 죽 먹기겠지만 거기에 더해 있는 척 공들인 말까지는 안 쓰면 좋으려만. 걱정이란 말과 우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도 입만 살아서 ‘기운운운’이라고 써대니 참을 수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다변가는 결국 궁지에 몰리기 쉽다고 하니 너무 명확하지 않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 무난하다.

□ 유럽 대전 후의 평화회의는 어쨌든 세계적인 대사건이었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최근 일본에서도 영어 사용이 더 심해진 듯하다. ‘프로파간다’²⁴²)라는 말은 이 평화회의에서 중국인이 떠돌고 다닌 것이 유행의 시작이었고, 이제 일본에서도 대유행이 되었다. 하지만 본래 일본인은 자음이 덕지덕지 엮인 말은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쓰기 쉬운 번역어인 ‘선전’이라는 말로 정착되었다.

240) 취음자(取音字)는 한자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음이나 훈을 빌려서 쓰는 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를 ‘亜細亜’로 쓰는 경우이다.

241) 원문에는 염공(鯨公)이라고 쓰여 있으며 메기를 의인화하여 관리를 얹잡아 보는 표현이다.

242)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대중을 설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 외국어, 특히 영어가 남발되는 경향은 최근 유난히 심해졌지만, 역시 영어에도 수박 겉핥기식 기우당(杞憂黨)이 있다는 것이 웃긴다.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말도 안 되는 말로 현혹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선의 베스트를 다한다’와 같이 지나치게 정중한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니 세상은 참 우습다.

□ “야-, デカダン(퇴폐적(decadent))이야, センチメンタル(감상적(sentimental))이야, インスピレーション(영감(inspiration))이야 어찌고 저찌고” 이런 저런 단어들이 연거푸 남발되기 때문에 옛날의 경영진도 안락의자에 완전히 자리 잡으며 화장을 진하게 분칠한 풋내기에게 놀림당하는 모양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ABC를 배우는 초보자가 될 수는 없으니, 약간 고민에 빠져 있던 와중에 “옳거니~” 하고 발견해서 달려든 것이 있는데 바로 간다(神田) 주변에서 하숙하며 덩굴고 있는 감자도 못 먹는 가난한 서생(書生)들이었다. 궁하면 좋은 생각도 나오는 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서생들이 낡은 사전을 소중하게도 뒤적거리며 만든 것이 알팍한 ‘당세 유행하는 외국어 사용법’, ‘일상용 간단 영어 길라잡이’이다. 때맞춰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덕분에 2판, 3판을 찍어내며 생각지도 못한 인세의 맛도 알게 되었다. 2, 3개월 밀렸던 숙박비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되었다.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 전골도 마음껏 허겁지겁 먹었다.

접골술(接骨術)²⁴³의 명인

하타(秦) 내무부장 이야기

최근 일반적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관념이 활발해져, 남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그 능력을 각각 사회에 공헌하는 경향이 특히 현저해졌다. 이는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수고하면 사회의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한 사회 일반에 그 사실을 알리고 모두가 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다.

이에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접골술의 명인에 대한 것이다. 원래 정근(整筋)이나 접골과 같은 기술은 보통의 의사가 다루는 일반적인 질병 치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타박상, 접질림과 같은 부상은 특별한 기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는 특수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가끔 이러한 부상을 입어도 치료할 수 없어서 불구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내가 소개하려는 이 방면의 명인은 본 도 학무과(學務課)²⁴⁴에서 근무하는 도의 장학사인 후루이치 하시노스케(古市橋之助)로, 현재 대구부의 동운정(東雲町)(조선민보사의 앞쪽 부근)에 살고 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은 결코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좋아하여 격검(擊劍)은 심형도류(心形刀流)²⁴⁵, 유도는 실광류(實光流)의 면허를 전부 받은 달

243)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의술.

244) 학교 교육에 관한 일을 맡은 과.

인이며, 무술 연마를 하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근 접골의 기술을 연구하여 이 분야 대가의 비술을 전수받은 것이다. 일본에 이어서 그가 오랫동안 조선 각지에 봉직하면서 오늘날까지 부상자를 치료한 수는 무려 2천여 명에 이른다. 이는 그가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행한 치료였으나, 아직 이렇게 많은 부상자를 다루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의 기능은 거의 신에 버금간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환자에 대해 부상 당시의 상황을 하나도 듣지 않고도 신비적으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손을 부상 부위에 대면, 뼈의 절단, 접질림, 결손, 균열, 근육의 위치 변화, 부상의 정도 등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으며, 즉시 수술 횡수와 완치 예정일을 밝히고 실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가 의주에 재직할 때인 1912년경, 당시 5세 된 오쿠무라(奥村)의 장남이 수레에 의해 왼쪽 대퇴골이 절단되어 바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한 달 반 동안 치료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 불구자가 되어 버렸다.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며 입원을 거절당한 것을 후루이치 하시노스케가 맡아 겨우 20일 만에 완전히 원래의 몸으로 회복시켰는데, 이는 내가 직접 목격한 바이다. 그는 이후 강원도에도 봉직하였으나, 마침내 그 신묘한 기능은 경성 방면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전 총감,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을 비롯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의료로 고쳐지지 않아 곤란해하고 있는 것을 완치시킨 일이 여러 번 있었다.

245) 이나와 히데아키(伊庭秀明)가 본심 도류를 바탕으로 연 검술의 유파. 일도의 기법뿐만 아니라 이도의 기법으로 '발합'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대구에서도 한성은행 지점 기무라(木村) 씨의 아들이 작년 5월 무렵 부상을 입어 대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결국 불구자가 되었다. 10월 경 후루이치 하시노스케(古市橋之助) 씨에게 치료해 줄 것을 사정하자 후루이치 씨는 한번의 진료로 완치를 보증했다. 그러나 결국 14, 15회 시술하였고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오늘날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하여 완치시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했으나, 하여간 일반적인 의료로 치료할 수 없는 부상을 고치는 것이 묘기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로 놀랄 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후루이치 씨는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조류나 가축의 부상에도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원래 후루이치 씨는 대단히 겸손한 품성으로 스스로 자신의 기량을 선전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원도에서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적었다. 그런데 후루이치 씨는 근래 세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봉사라는 기뻐할 만한 경향에 감격하여, 바쁜 업무에도 지금보다 더 여가를 할애하여 하루에 10명 이내의 환자를 무료로 시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참으로 이런 종류의 환자에게는 일대 복음이라 할 만하다.

진중일기(2)

하루타 간포(治田冠峯)

10월 16일 (맑음)

□ 오전 9시, 아리요시(有吉) 총감을 배웅하고 귀로에 올랐다. 변함없이 우차(牛車)로 빠르게 달렸다. 오늘은 가을의 소슬한 정취에 대단히 상쾌한 느낌이 들어 변변찮은 시 한 수를 읊는다.

高粱の刈られて秋は閑かなり。

수수를 베고 나니 가을이 한적하구나.

두도구(頭道溝) 평야를 이틀간 여행하면서 가장 기이하다고 생각된 점은, 도중에 내내 돼지, 닭, 개, 소, 말, 고양이 등의 짐승이 일본과는 달리 사이좋게 들판에서 노닐고 있었던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소 등에 닭이 올라타거나 고양이가 기어올라 자기도 한다. 게다가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천하태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한데도 마적이라는 것들이 부락을 위협하며 휩쓰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10월 17일 (맑음)

□ 중국 상인이 모피를 팔러 왔는데, 대원들이 놀리기만 하고 사지는 않아서 한 점도 팔지 못한 채 돌아갔다. 수달 가죽 같은 것은 역시 봉천이나 안동현 지방이 싸다.

□ 영사관 뜰에 서 있는 국기 게양대의 깃대 끝부분을 수리하려는데, 누구 한 사람 높은 게양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자가 없었다. 영사도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지방의 명물로 알려진 모 불랑소년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손쉽게 올라가더니 고치고 내려왔다. 영사는 그에게 사례금으로 10원을 주었다. 물건은 쓰기 나름에 따라 쓸모가 있는 법이다.

□ 대원들의 검도 시합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스즈키(鈴木), 이케다(池田), 도미사와(富澤), 다카하시(高橋), 마스야마(増山), 고마키(小牧) 등이 분투하여 박수를 받았다.

□ 저녁 식사 후 넓은 마당에서 대원들이 놀고 있는데, 숙소의 주인집 며느리 - 방년 20세의 미녀 - 가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라고 외치며 펄쩍 뛰어 문 앞으로 달려 나갔다.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우차를 탄 손님이 들어왔다. 14, 15세 정도의 미소년인데 남편이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이 어린 남편을 향해 만면에 애교를 띄웠다. 무료한 진중(陣中)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자 때아닌 잡담이 시작되었고 조선인 결혼의 부자연론 같은 의견이 나와 크게 웃었다.

10월 18일 (말음)

□ 대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는 장렬한 군가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해 서투르지만 진중가(陣中歌)를 지었다. (지난 호에 게재하였으므로 생략)

□ 잠이 들지 않는다며 병영 내 마당을 걷는 자가 있어서 잠시 가을밤의 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초선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10월 19일 (맑음)

□ 오늘 조선인 거리에서 시장이 열렸다. 참고삼아 몇 가지 물가를 기록해 둔다.

팥	1되	5전	백미	상	20전
콩	1되	4전	백미	하	18전
녹두	1되	5전	소고기	100돈 ²⁴⁶⁾	18전
양파	1되	4전	닭	1마리	35~40전
계란	1개	2전	돼지고기	1근	20전
무	10개	5전	참깨	1되	25전
우엉	1관	35전	목탄	100근	1원 15전

□ 오늘 경북에서 처음으로 소식이 와서 모두 기뻐하며 받았다.

□ 저녁 식사 전에 대원들이 ‘어르신 테니스 경기’라고 농담삼아 이름붙인 시합을 했다. 볼이 지붕으로 날아 올라가는 힘센 팔힘에 몹시 놀라면서도 네트를 펼치고 하는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너무도 우스울 뿐이다.

□ 왜관의 사토(佐藤)는 특기로 감춰둔 예능도 있는 듯한데 오늘은 포항의 시오카와(鹽川)와 함께 큰 자라를 구해 와서 그 생피를 빨아 먹는 곡예를 했다.

□ 밤이 되자 고가(古賀)와 바둑을 두었다. 고가의 기풍은 집바둑이고 나는 싸움바둑이므로 승부가 결국은 큰 차이로 나의 패배였다.

246) 일본의 중량 단위로 문(匁)이라고 하며 1관(貫)의 1000분의 1 또는 3.75g에 해당한다.

10월 20일 (맑음)

□ 매일 같은 훈련을 하는 것도 질려서 오늘은 교외로 약 20리 정도 행군했다. 중국측에서 흔쾌히 승낙하였으므로 좀 더 멀리 행군하면 재미있었겠으나 그렇게 쉽사리 움직일 수는 없다.

□ 영사 분관에 이야기하러 갔다. 늘 그렇듯이 마적 이야기가 나왔다. 이따금 영사의 조카딸인 하나코(花子)가 차를 가지고 왔다. 하나코는 방년 19세로 이름처럼 아름답다. 그 눈동자, 입매, 탐스러운 뺨은 이런 마적과 관련 깊은 지역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 하하.

□ 왜관경찰서의 마스야마가 자신의 특기인 야스기부시(安来節)²⁴⁷⁾를 불렀다. 마스야마는 이 응원대 중에서 백미로 꼽을 수 있는 자이다. 목소리가 좋은 점과 곡조 모두 칭찬할 만하다. 야스기부시 연습 모임을 하자는 자도 있었다.

10월 21일 (맑음)

□ 정보에 따르면, 두목 소준자(小俊子)가 이끄는 약 300명의 마적 떼가 산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길림에서 온 중국 관병 토벌대가 기습하여 전멸에 가까운 큰 타격을 가하고 일부는 뿔뿔이 도주했다고 한다. 그 사체들 중에 금줄이 들어간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일본 지폐 5천엔 및 진주 50개, 금반지 2개를 소지한 자가 있었다. 조사 결과 그는 두목 소준자로 밝혀졌다. 더구나 기관총 1정 외 소총 탄약 등 다수의 유기된 물품을 획득하여

247) 시마네현 야스기시의 민요로 1910년대와 2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관병들은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며 길림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 분명 기뻐할 만한 일이다. 그 불의의 기습은 훌륭했다. 일본 역사를 떠올려 보면, 오케하자마(桶狹間) 전투에서 이마가와 요시모토(今川義元)의 목을 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군대의 공명을 방불케 하는 통쾌한 소식이다.²⁴⁸⁾

□ 충북에서 온 고가(古賀)가 귀환에 대해 한창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환 이야기라면 대찬성이라 거기서 내가 우리 귀환은 내년 봄 해빙기 무렵이라고 말했더니 기분이 상한 모양이다. 완전히 분위기를 망쳤다. 그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다. 고가에게는 올해 다섯 살이 된 귀여운 개구쟁이 아들 게이오가 하루를 천 년같이 기다리며 ‘아버지는 언제 돌아와?’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그런 소식이 아이 어머니로부터 왔으므로 고가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도 당연하다. 게이오의 귀여운 과거 이야기를 들은 김에 조금 적어보고자 한다. 게이오에게는 전용 세발 자전거가 있어서 매일 그 세발 자전거로 근처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것은 도시락을 아버지가 근무하는 관청까지 운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실적이 양호한 데는 큰 이유가 숨어있었다. 그 이유란, 빈 도시락통에 아버지가 매번 얼마의 심부름 값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이 심부름 값을 받고 싶어서 너무나 즐겁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던 것이다. 가끔

248) 오케하자마 전투는 전국시대에 25,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당시 소국이었던 오와리국을 침공한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오다 노부나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야간 기습을 가해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죽이고 이마가와군을 패퇴시킨 극적인 전투이다. 이 전투로 오다 노부나가는 급성장하며 전국시대 제패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세발 자전거 위에서 빈 도시락통 속을 확인하는 때도 있었다고. 지금은 아버지가 간도에 파견되어 도시락 운송 일이 없어서 분명 쓸쓸할 것이다.

□ 순찰에 나섰다. 휴무원들이 반 무장 상태로 잠드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나로서도 감사하는 바이다.

10월 22일 (맑음)

□ ‘오늘부터 적금의 날’이라는 말을 듣고 각 대원들에게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금하도록 장려했다. 그랬더니 합계 360원 정도를 모금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 가을 햇살이 반짝이며 하늘이 온통 푸르렀다.

10월 23일 (맑음)

□ 오늘은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있었던 마적 피해 사건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미리 부언하자면, 아래에 기록한 대화에서 서장은 사건 발생 당시의 서장이며 영사 또한 당시의 영사이다. 즉 아래의 이야기는 실제 나누었던 대화이다.

서장: 마적이 습격하기 전까지 아무 조짐도 없었습니다. 세간에서는 내가 이삼일 전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상당히 수군대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사: 지금 서장이 말한 대로 피해를 입기 전까지 아무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고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사택에서 11시 무렵까지 나니와부시(浪花節)²⁴⁹를 시킬 정도로, 꿈

249) 전통 현악기 샤미센의 반주에 따라 의리와 인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가창

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서장: 내가 나니와부시가 끝나고 시가지를 순찰한 후 잠자리에 들었던 때가 이래저래 1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적이 쳐들어온 것은 오전 2시 50분 경부터, 철수한 시각은 오전 7시 무렵입니다. 그새 마적들은 관내의 총기-기관총 2, 소총 50여- 및 탄약 약 3만 발을 약탈했습니다.

영사: 당시 직원은 나 이하 17, 18명 정도 있었는데, 야간 경계라고는 해도 문지기가 무기도 없이 망보는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적이 우리 분관을 습격하는 일은 만의 하나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총기는 모두 창고에 격납해 두었던 것입니다....침입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정문 앞에 있는 집의 그늘진 쪽에 약 50명 정도가 와서 문지기가 있는 곳과 분관의 상황을 엿보고는 시험 삼아 문지기를 향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지기가 놀라 -문지기는 일본인 순사입니다- 서장을 소리쳐 깨우고 그길로 나를 깨웠습니다. 그사이에 이미 마적은 관내로 마구 쳐들어와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다소 반격이 가능했다면 마적들도 그렇게 빨리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직원들로 군세를 갖추는 것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서장: 내가 어진영(御眞)²⁵⁰⁾을 꺼내려고 왔을 때 관내에는 마적들이 다수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마적들도 나를 알아차리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적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가운데서 어진을 꺼내 뒤편 공원의 잡초 속 수로에 봉안했을 때 영사도 어진을 안치하려고 관내로 향하던 도중에 나와 만났던 것입니다.

과 말로 전달하는 일본의 전통 음악 장르.
250) 일본 천황과 황후의 사진이나 초상화.

영사: 가족들은...가족은 마적이 습격했다는 말을 듣고 곧장 관저 지하실로 피난 온 다른 부인들과 함께 숨어있었는데, 후에 창고가 불타게 되자 위험하다고 생각해 순사를 보내 공원쪽으로 탈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공원은 중국측에서 마적을 노리고 쏜 유탄으로 잠시도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은 겪어본 적 없습니다.

서장: 부하들을 한데 모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보다 분합니다.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부하들은 제각각 행동을 취했습니다. 부하들도 한때 영사와 나를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마적놈들도 역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며 떠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사: 내 집도 엉망이 되었는데 별로 가져간 물건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 처의 방과 내 방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서장: 그렇게 중국인 마을도 동시에 당했습니다.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십수 채가 불타버렸습니다. 마적 사상자는 자세히 모르지만 남겨진 사체는 대략 40구 정도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마적이 침입했을 때 마침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려던 자가 마적에게 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그 외에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포로로 잡혀 약 10리 정도 끌려간 일본인 순사 한 명이 있었는데 조선어를 잘해서 마적들도 방심한 것 같습니다. 즉 조선인 순사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 틈을 봐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 순사의 말에 따르면 마적들의 행동은 대단히 훈련받은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사: 그런데 마적들의 목적물은 기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적이 기관총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큰 위력을 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장: 적들의 수는 약 250명 정도로 인의군(仁義軍) 이라는 마

적단입니다.

□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은 이번 여름 이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상태가 되어 역새풀을 보고 유령을 보았다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실례일지 모르나, 이는 결코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10월 24일 (맑음)

□ 포항의 우류가 근래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적 토벌에 안성맞춤인 얼굴로 변한 것 같다. 동료들이 말하기를 ‘두목이다 두목.’

□ 진중이 무료하여 화투 놀이를 시작했다. 벌칙으로 얼굴에 먹물을 묻히니 시시각각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되어갔다. 누구를 비웃을 것도 없이 서로 배를 부여잡고 웃어댔다. 이런 천진난만함에 어쩔 수 없이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 근래 마적들의 정황이 들리지 않아 이대로라면 의외로 귀환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고 하니, 젊고 예쁜 아내가 있는 동료들이 기뻐하는군.

□ 5월의 초저녁 달이 산 너머로 진다. 굳게 보초 선 경북 건아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10월 25일 (맑음)

□ 오전 훈련을 마치고 분대 릴레이 경주를 했다. 제3분대가 1등의 영광을 얻었다.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여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아베 시게오(安倍茂雄), 기타모토 하루키치(北本春吉), 사토 기타로(佐藤義太郎), 이토 미치스케(伊藤通助), 마쓰키 도요키(松木豊樹), 마쓰다 후쿠조(松田福藏), 사토가타 마스오(里形益雄), 요시다 히로키(吉田寛紀), 하리카와 세이치(針川政一)

□ 청송경찰서의 나가노(長野)가 총검을 들고 밀정을 향해 “네놈은 응원대 밀정이라 칭하며 반대로 마적을 위해 우리 부대를 포함해 두도구(頭道溝) 일대의 경계와 방위 상황을 마적들에게 보고하는 괴심한 놈이다”라고 외치며 그의 가슴을 당장이라도 찌를 듯한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장난이라는 것을 부대원들은 알고 있었으나 밀정은 아연실색하여 슬프게 울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일동의 폭소는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 정보에 따르면 “최근 마적 토벌대로 출동한 관병 약 2백 명 2개 부대가 착각하여 서로 공격함으로써 상호간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우리 두도구에서도 번갈아 야간 경계에 종사하고 있어 상당한 위험이 따르고 있다.

10월 26일 (비)

□ 드물게 비가 왔다. 오늘은 꽤 추운데도 아직 눈이 내리지는 않는다.

□ 백군(白軍)이 적군(赤軍)에게 쫓겨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²⁵¹⁾ 국자가(局子街)²⁵²⁾ 일대에도 약 7천 명 정도가 잠시 체류한다는 소문이 있다.

□ 밤에 중국인 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잠시 소동이 일어났다.

251) 적군은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키의 붉은 군대를 말하고, 백군은 볼셰비키에 대항한 왕당파 반혁명 세력의 군대를 지칭한다.

252) 현재의 연길.

10월 27일 (맑음)

□ 용정의 응원대 대장 오카모토(岡本) 경시 일행 네 명이 두도구를 시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모장으로 영접을 나갔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드디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하인 다카하시(高橋)의 말을 빼앗아 자전거는 그에게 주고 의기양양하게 말 위의 무사가 되어 채찍을 휘둘렀다. 그런데 말이 놀라 속력을 높이는 바람에 몸이 이쪽 저쪽으로 휘둘리며 도무지 엉덩이를 붙일 수 없어 등자(鎧子)²⁵³를 딛고 일어서는데 아뿔싸! 안장이 반 정도 미끄러져 말의 옆구리 쪽으로 돌아가 버렸다. 물론 요란하게 낙마하고 말았다. 잽싸게 일어났으나 이미 늦었다. 근처에 있던 조선인 중국인 할 것 없이 죄다 히죽히죽.

□ 오랜만에 오카모토 경시(警視)의 잔을 받아 다소 취해버렸다.

□ 오카모토 경시와 함께 스와(諏訪) 영사로부터 만찬에 초대 받았다. 참석해서 들어보니 스와 영사와 오카모토 경시는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 스와 씨가 한국의 이사청 시절에 서기생으로 근무할 당시 오카모토 씨는 경성에서 경부(警部)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고 한다. 오늘 저녁 오카모토 씨가 말하기를 “스와 씨는 고참 판임(判任)으로 상당히 으스대는 사람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용무가 있어 찾아가면 완전히 우습게 알았다.”고 말하며 당시의 거만했던 태도를 자꾸 흉내냈다. 옛날이야기란 좋은 것이다.

253) 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 안장에 달아 말의 양쪽 옆구리로 늘어뜨린다.

10월 28일 (맑음)

- 오카모토 경시가 용정으로 돌아갔다.
- 오늘 아침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추웠다. 얼음도 본격적으로 얼기 시작하고 풀과 나무도 서리를 맞았다. 시시한 하이쿠(俳句)²⁵⁴ 한 수.

초겨울 찬바람, 달이 걸려 있는 나무 한 그루²⁵⁵

- 경북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대구가 근래 매우 번창하고 있다고 한다. 간도와 대구를 생각해 보면 너무 크게 차이 난다. 인간은 시골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10월 29일 (맑음)

- 오늘은 지극히 평안한 날이었다. 저녁 무렵 경계를 서기 전에 으레 그렇듯 5분 동안 ‘두도구 위에 나부끼다’ 라는 군가를 부르며 거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 저녁에도 평온했다. 근처에서 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

10월 30일 (맑음)

- 용정에 여자 비파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소식이 재빠르게 전해진 곳은 역시나 경찰의 예리한 눈, 아니 귀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은 경성 부근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254) 일본 정형시의 일종으로, 5, 7, 5음으로 구성되며 합계 17음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단어인 기고(季語)와 구의 매듭을 짓는 말인 기레지(切れ字)를 가지고 있다.

255) 원본의 글은 다음과 같다. 「木枯や月の殘れる一本木」

있었는데 어떤 과실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의 방탕이 원인이 된 그 과실에도 불구하고 정을 끊지 못한 채 남편을 위해 설욕을 하려는 듯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얼마간의 금품 조달 목적으로 비파를 가르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파는 간도 취향이며 새 없는 고을의 박쥐²⁵⁶⁾처럼 이곳에서는 관참을 수도 있겠다고 누군가 악담을 했다.

□ 영사관에서는 내일 천장절(天長節)²⁵⁷⁾ 행사를 위해 이런저런 장식을 한다고 바빴다.

10월 31일 (비와 눈)

□ 예전부터 ‘천장절 날씨’라고 해서 이날에는 날씨가 청량했는데 오늘은 의외로 날씨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으니 빨리 산 위에서 만세를 부르자.” 일동이 자세를 바로하고 정렬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만세를 기원하기 좋은 산 위의 청정지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비를 뚫고 산 위에 도착해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영사관으로 가서 요배식(遙拜式)²⁵⁸⁾에 참가했다.

□ 영사에게 금일봉 30원을 받았다.

□ 학교에서 조선인 학동이 기미가요를 부를 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56) 훌륭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찮은 자가 뽐낸다는 비유. 한국어 속담으로 ‘범 없는 골에 토끼가 스승이라’와 유사하다.

257) 천황의 생일

258) 멀리 떨어진 천황을 향해 절하는 의식.

□ 저녁 무렵부터 비는 눈으로 변해 쌓였다. 저녁 삼경(三更)²⁵⁹) 무렵이 되자 온 뜰 가득 하얗게 눈이 쌓여 예전 만주 봉천(奉天)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10월분 끝)

259)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무열등화(無熱燈火)와 공중(空中)음악

석유는 해마다 계속 공급이 부족해지기만 하고 물론 다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미래에 닥칠 사태에 대해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은 대단히 불안하기만 하다. 그래서 소위 연료 문제라는 것이 근래 떠들썩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하비²⁶⁰⁾ 교수의 무열광(無熱光) 연구 성공은 실로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본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매우 든든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사용되는 등불은 모두 열로 빛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쓰이지 않는 에너지 소모가 대단히 많다. 양초나 석유램프, 가스 모두 빛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소 과정이 필요하다. 전기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도의 전류를 작은 도전체(導電體)를 통해 마찰이 생기도록 하여 금속 철선에 발광점까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 에너지는 불과 5퍼센트만이 빛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고 95퍼센트는 열에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빛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반딧불이나 발광버섯파리 애벌레가 열을 내지 않는 빛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보고 선망을 금치 못하여 오랫동안 이러한 빛을 발생시키는 화학적 작용 원리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하비 교수는 실험을 통해 이 분야에서 가장 실제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하비 교수는 일본 근해에 있는 작은 갑각류(소위 쓰쿠시(筑紫)²⁶¹⁾의 시라누이(不知火)²⁶²⁾와 동일할

260) 에드먼드 뉴턴 하비(Edmund Newton Harvey, 1887-1959)는 미국의 동물학자로, 생물발광 현상과 그 과정에 관련된 화학 반응을 연구했다.

것이다)의 체내에서 얻은 발광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갑각류로부터 이 발광물질의 성질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추출하는 법과 이것이 산소와 접촉하지 않으면 발광하는 성질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자체의 본성은 상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두 개 물질의 상호 관계를 변화시키는 특성을 지닌 물질의 도움으로 하나의 접촉 매개물에 이런 소위 광명체 산소를 포함(抱合)²⁶³시키고 또 분리하는 계속적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즉 이러한 포함이 바로 광선 발생의 원인인 것이다.

하비 교수가 이 실험에서 얻은 성공은 빛의 발생에서 산소의 작용을 발견했다는 것과 계속적 작용을 일으키는 접촉 매개물의 발견 두 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발견은 아직 실제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많은 혁명적 발견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약 희망대로 충분히 강렬한 빛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후의 일은 모두 사업가가 맡아서 완성시킬 것이다. 전화가 실험실의 연구에서 세상의 일반인들이 실제 사용하게 되기까지 발전한 것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 원료 또한 화학적 연구의 진보에 따라 값싼 무기물로 대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은 최근 도착한 미국 잡지에서 읽은 것인데,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와타세(渡瀬)²⁶⁴ 박사와 같은 이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반딧불이 연구에 몰두하였으므로 분명 그리 멀지 않은 미

261) 규슈 지방의 옛 이름

262) 규슈 아리아케 해와 야쓰시로 해에서 음력 8월 1일 무렵 달이 없는 밤에 빛이 명멸하는 현상

263) 생체 내에서, 약물·독물 등의 물질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일.

264) 와타세 쇼자부로(渡瀬庄三郎, 1862.11.11.~1929.3.8.)는 일본의 동물학자로 생물지리학 및 응용동물학을 주로 연구했으며 생물발광도 연구한 바 있다.

래에 등불에 대한 진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대 발견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아니 어디까지나 그렇게 믿고 싶다.

또한 무선 전화가 발명되었다고 보도된 것이 바로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이 무선 전화의 응용이 특히 미국에서 비상한 기세로 진보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이 무선 전화가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용된다고 한다.²⁶⁵⁾ 특히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분야는 음악일 것이다. 이 무선 전화 장치는 앞으로 매우 간편해질 것이므로 음악을 좋아하는 계층이나 가정에서 이것을 설치해 둘 것이다. 그렇게 무선 전화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열리는 음악회도 몇 시에 시작되는지만 알면 그 시간에 무선 전화기를 마주하는 것만으로 가족이 단란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모 신문에 이 공중 음악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게재되어 그 일부를 여기 전재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별세계같다는 느낌도 든다.

이 무선 전화는 보통 와이어리스로 불린다. 즉 무선이라는 의미인데 최근에는 라디오폰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즉 전파 전화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라디오의 응용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의 모 음악잡지는 ‘공중 음악회’라는 제목을 붙인 사진에서 이 무선 전화를 통해 어느 한 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의 유명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무선 전화의 응용은 오락적인 음악 방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실제적으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대학 교수의 강의를 이 귀중

265) 이 글에서 ‘무선 전화’는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을 의미한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 독점으로, 미국에서는 개인 영리 목적의 라디오 방송사 설립이 추진되어 1920년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1925년에 도쿄방송국이 개국되어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경성방송국에서 처음 라디오 방송을 개시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231>)

한 장치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여간 미국에서는 이 라디오폰을 만능이라고 여기는 분위기이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성냥 상자에 이 무선 전화 장치를 달아서 이러한 음악회든 강연이든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장치로 어떻게 멀리 떨어진 곳의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큰 전파 구역에서 수신한 전파가 점점 작은 구역으로 가서 첫 번째 큰 구역에서 수신한 것을 잘 들리게 수신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그 반대로 작은 구역에서 큰 구역에 있는 장치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것을 다른 작은 구역의 장소에서 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어느 지방의 음악회든 명사의 연주나 독창이든 다른 지방에서 축음기로 듣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음악을 무선 전화로 들으면서 무도회를 열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명사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합주, 반주, 합창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무선 전화의 응용이 미국에서는 너무나 오락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최근에는 어떤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최근 이 무선 전화의 제한법이라는 것이 발표된 모양이다. 즉 오락적으로 이용되는 이 장치를 제한하는 것이다. 공중 전파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무적 이용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오락용, 혹은 공무용이 아닌 것들의 전파 구역은 몇 마일 정도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작은 구역까지만 미치는 전파력을 가진 것도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원리로 중계기에서 중계기로 전달함으로써 상

당히 먼 곳의 소리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런 중계소가 미국에 많다는 것은 미국의 신문 잡지를 보더라도 놀라울 정도이다. 그 정도로 이 무선 전화가 상당히 응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최근 이러한 무선 전화로 장기를 두는 사진을 미국의 잡지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심심할 때는 이 무선 전화로 장기 둘 친구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오락적 측면을 살펴본 것이나, 실제적 측면에서도 종종 응용되고 있으며 또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라디오의 미래는 우리 생활에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보여 줄지 놀라운 눈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일리노이대학 의학부 조세프 치리코인스키 치코시나 교수에 의해 그의 실험실에서 유성 활동사진이 태어났다. 그 장치는 극히 간단한 것으로 전화 수신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영사된 인물의 말이 반응되도록 되어 있다. 전류의 파동이 생기며 그 파동이 광선의 파동에 변화를 주도록 한 것이다. 즉 그 음향을 수신한 전류의 파동에 의해 변화된 광선이 필름 한 장 한 장에 입혀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사할 경우 광선에 민감한 전지 장치로 필름에 입혀진 음향, 즉 원화에 영사된 인물의 말이나 그 외의 음향이 소리를 발하는 것이다. 그것을 무선 전화 장치로 확대하면 필름에 그 음향이 입혀져 있으므로 활동사진을 상영하면 동시에 입으로 말하는 음향도 들리게 되는 것이다. 미국 상의원(商議員) 회장 아퍼트 씨는 이것을 크게 칭찬하며 선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봄의 세상

영수생(寧水生)

봄은 인생의 걸음을 표시하는 작은 단락이다.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로 위대한 자연이 우리에게 변화 아닌 변화를 선사한다. 사람의 마지막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다. 즉, 인생의 봄은 최후의 겨울을 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긴 인생 동안 몇십 번이나 반복되는 사계의 시작인 봄도 그리 고마운 것 같지도 않다. 역시 가도마쓰(門松)²⁶⁶은 저승의 여정에서 이정표이다. 하지만 길고 짧은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끝에는 가을의 쓸쓸함과 겨울의 황량함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봄의 환락에 취한다. 삶은 결국 죽음의 전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감한 하루살이의 생명을 사랑한다. 삶을 메마르고 차가운 암석 같다고만 여긴다면 이제 삶의 의미는 없다. 우리는 이 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즐겁게 노래한다.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열쇠도 얻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인생의 미세한 부분들이 전적으로 이 사이에서 꺾꽂이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는 이 봄을 무한히 기뻐한다. 아, 즐거운 봄, 세상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할까?

봄과 사회

인간으로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성가신 일이다.

266) 정월에 문 앞에 세우는 장식 소나무.

일 년에 한 번 오는 봄이 찾아왔다고 하니 바쁘게 준비한다. 지친 노동자도 지친 농부도 눈코 뜰 새 없는 상인도 한가할 틈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 일을 간단하게 하려고 한다. 연하장의 연말 정리의 담당자도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사회 또한 한층 간단하게 하자고 하며 연하장 교환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인생의 맛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절약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절약의 극치로 여겨 자살한 이도 있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사무적으로 변하는 것은 더 이상 대세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즉, 연하장은 평소 오랫동안 지속되는 교류의 연결고리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봄과 부자

저택은 훌륭하다. 가도마쓰는 크고 교토풀으로 장식한 가문의 문양이 있는 장막은 위엄 있다. 아무리 봐도 사회에서 선망의 표적이 되는 부자들의 정월 모습이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는 주관과 객관이 있다. 부자는 과연 사회가 선망하는 것처럼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할까? 예전에 어느 다이묘가 한 학자에게 물었을 때, 그 학자는 자신이 다이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녀석도 결국 연말 때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 망할 것 같은데 연말을 기회 삼아 온갖 말로 내 재산을 노리는 자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빼앗긴 게 아깝다.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재산을 아들이 탕진하진 않을까. 정월 점괘가 아무래도 나쁜 것 같다. 죽은 뒤에도 자손이 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 등의 다른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운 근심과 걱정이 이뻗진 가도마쓰 속에 숨겨진 주인공의 머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다. 그렇다면 결국 정월은 부자에게 정말 즐거운 것일까?

봄과 가난한 자

옛날에는 정월에 준비할 떡이 없어서 종이에 그려서 도코노마²⁶⁷⁾에 붙여둔 가난한 무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재미있다. 가난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것이다. 세상에 탁한 부(富)는 있어도 탁한 빈곤은 없다. 사회와의 교류도 적어 만사가 간단하고 소박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난의 장점이다. 번거로운 떡을 빵을 준비도 필요 없고, 시치고산용²⁶⁸⁾ 장식한 개와 절편 열 장을 사면 1원을 내고 잔돈으로 7~8전이 돌아온다. 정월이라고 해도 새해 인사 손님을 기다릴 일도 없으며 자연스레 이쪽에서 먼저 찾아가는 편이고 취해서 집에 오면 설달 그믐날 이후부터 깔아둔 이부자리에 곧장 들어간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도둑 걱정은 물론 없고 엉덩이가 추우면 머리맡에 빈 술병을 끌어다 배라도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어차피 몸과 손이 가볍지 않으면 우주의 사색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세속의 번거로움에 시달리면 아직 안 된다. 사람은 마땅히 가난을 통해 고상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봄과 아이

아이들이야말로 인류 사회의 복잡함 가운데 가장 봄의 유쾌함을 진심으로 느끼는 부류일 것이다. 이제 곧 극형에 처해질 지도 모른

267) 도코노마(床の間)는 일본식 건축에서 방의 한 부분을 바닥보다 한 단계 높여, 인형이나 꽃꽂이로 장식하고 붓글씨를 걸어두는 공간을 말한다.

268) 시치고산(七五三)은 3세, 5세, 7세가 되는 어린이들의 성장을 축하하기 위해 신사나 절을 참배하는 행사로서 11월 15일에 행해진다.

채 호송하는 말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마루바시 추야(丸橋忠彌)의²⁶⁹⁾ 아이 이야기는 오래된 슬픈 이야기로 남아있다. 쌀 가격이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낙제할 걱정도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며 손에 든 과자를 빼앗으러 오는 형이 그들 세상에서 가장 강적이다. “엄마 정월은 몇 밤 자면 와”라고 묻는 어린이가 자연을 대하는 친근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감흥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가. 1시간에 70,000리의 속력으로 회전하는 지구가 하루 24시간 중 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귀족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두 동등하게 숨을 쉬고 잠에 들지만 이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자연의 사실을 받아들여 즐거운 정월을 기다리는 낙으로 삼는 순진한 아이들의 유쾌함은 다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다. 정월을 자는 횟수로 세는 어린이들은 인류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

봄과 학교

학교라고 해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큰 아이들의 학교가 아니라, 정말 귀여운 아이들의 소학교이다. 새 리본을 단 여자 아이와 양말을 바짝 끌어 올린 남자아이는 실로 봄날 들판에 돋아난 어린 풀과 같다. 사람이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근심의 시작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그 곳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즐겁게 뛰어노는 중이다. 인생의 봄인 그들은 영원한 시간을 새긴 사계절의 봄을 만나 끝없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정월의 학교 행사는 그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진 것이다. 방학 동안 꿈에도 자주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정월의 학교 행사였다.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

269) 에도 시대 전기의 낭인으로, 게이안의 변(慶安の變)에서 막부 전복을 도모한 주모자 중 한 명으로 밀고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는 그들 사이에서는 킁킁 원숭이가 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한다. 내내 활발한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든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람에게 생생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정월의 학교 모습이다.

봄과 관리(役人)

옛날의 관리는 거만했다. 고관은 메기(鯰), 하급 관리는 미꾸라지(鱖)라고 했다. 이는 사회가 관리들의 위세를 못마땅하게 여긴 데서 만든 별명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시대(時勢) 변화는 훌륭한 민존관비(民尊官卑)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존은 주로 자본가를 존경하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다지 고마워할 민존이 아닌 것도 알 수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것이 세태이다. 유럽 대전은 구식에 머문 문명사상을 한순간에 파괴했다. 그래서 인류 사회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방면에서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존이나 관존 같은 말은 옛 시대의 헛소리처럼 여겨져서 지금은 이른바 관리라는 사람 대부분은 일종의 예술적 노동자로 취급받으면서 스스로도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연말 관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보너스는 이 예술적 노동의 보수로 불리게 되었다. 일 년 중 단 한 번의 즐거움인 보너스는 대체로 연내에 다 써 버리게 되고 4일에 열리는 시무식은 순식간에 그들이 정월 마신 도소주(屠蘇)²⁷⁰에 취기를 단박에 깨뜨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봄의 즐거움도 허망한 느낌이 든다.

270) 산초(山椒)·방풍(防風)·백출(白朮)·밀감(蜜柑) 피·육계(肉桂) 피 따위를 섞어서 술에 넣어 연초에 마시는 약. 이것을 마시면 한 해의 나쁜 기운을 없애며 오래 살 수 있다 한다.

경상북도의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興學)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일신되어 차별 철폐, 계급 타파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양반 조사라는 것이 다소 시대착오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양반 특히 문반(文班)²⁷¹⁾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수백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조선 문화에 큰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예로서 현재 남아 있는 이들은 지방에서 늘 인습적으로 일종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사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결코 무익한 기획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양반이란 조선 귀족의 칭호로, 즉 문반과 무반(武班)의 병칭이다. 문반은 또 동반(東班)이라 칭하며 무반은 서반(西班)이라 칭했는데, 이는 조정의 의식이 있을 때 고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선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양반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옛날에는 귀족이라 하면 문무의 반열은 없었으나 고려 중기부터 구별이 생겼다고 한다.

양반은 조선에서 귀족, 상민, 노비로 나눈 3대 계급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즉, 전술한 귀족이며, 그들의 향리에 있을 때는 한 고을의 우두머리이고, 수도로 오면 재상, 대신의 지위에 올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세력을 가지며, 유서가 깊을수록 문벌적 권위가 위대했다. 그리고 법규상의 특권이라 해야 할 점은 등과(登科)²⁷²⁾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 형벌을 받아야 할 때 가복(家僕)²⁷³⁾에게 형장(刑杖)²⁷⁴⁾, 태형(笞刑)²⁷⁵⁾

271) 고려·조선 시대에, 문관(文官)의 반열(班列).

272) 과거에 급제하던 일.

273) 양반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부리던 사내종.

등을 대신 받게 할 수 있는 것, 기타 부역을 면제받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된 후 각종 개혁이 시행되어 자연히 고려조의 명문 귀족 중 조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자는 조선 조정에게 찍혀 사전(私田) 소유는 금지되고 관직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어느덧 왕년의 지위를 잃어버린 자도 많았다. 그러나 조선 남부지방의 인물은 연달아 고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방에는 조선시대가 되고 나서 양반 지위를 얻은 자도 수없이 많다.

무릇 세상사에는 이로움이 있으면 해로운 것도 따라오는 법으로, 지식과 학문을 조정의 정치에 집중하여 국가를 비보(裨補)²⁷⁶⁾ 하는 공적이 있는가 하면, 권세를 빌미삼아 동족, 친구, 제자를 비호하고 뿌리 깊은 문벌을 만들거나 상민 이하에게 저지른 범죄를 불문에 부치게 하든지, 지조 이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일이 점차 행해지다가 심해지면 남의 토지를 가로채거나 힘이 약한 상민이나 노비에게 사적 형벌을 가하는 일이 있어도 지방관은 권세에 압도당해 손을 댈 수도 없던 형편이었다.

양반의 세력은 대충 이러했는데, 사회의 변천은 피할 수 없어서 이대왕²⁷⁷⁾ 34년의 개혁²⁷⁸⁾에서는 과거제도나 귀족의 특권이 폐지되고 관리등용의 일대장벽이 제거되어 상민도 평등하게 임관의 권리를 얻게 되어 귀족 즉 양반의 위력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진 셈이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습적 타성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법으로 고위 고관은 사실상 여전히 그들 손에서 떠나

274) 예전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쓰던 몽둥이.

275) 오형 가운데 죄인의 불기를 작은 형장으로 치던 형벌.

276) 도와서 모자라는 것을 채움.

277) 고종황제

278) 1897년 광무개혁

지 않았다. 설령 동등한 관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민의 자식은 소위 양반에게는 몇 걸음 양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부득이하게 굴복을 해야 하는 실정 하에 있는 자도 있었다.

이후 반도의 눈부신 정치적, 사회적 변천을 여러 번 거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바야흐로 크나큰 시대의 변화는 그 당시 권세를 꿈꾸며 매사에 시대의 추세에 대해 욕하고 분개한 노인들을 조잔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육 하에 자란 청년 남녀는 화창한 세계적 새 공기를 호흡하게 되어, 차츰 가늘어져가는 귀뚜라미의 가을 울음소리는 나지 않게 되었으나, 오랜 번영을 쓸쓸히 푸념하는 문벌의 자취는 지금도 도처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경상북도 명문가의 배출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인물의 연총(淵叢)²⁷⁹이라고도 할 만한 왕성한 상태를 나타낸 것은 결코 일조일석(一朝一夕)²⁸⁰의 내력이 아니고, 그 유래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로 오랫동안 반도문화의 원천이었다. 따라서 경상북도 지방은 신라시대에 이미 저명한 인물을 배출한 일도 많았는데, 특히 승려 원효와 그의 아들인 벽총과 최치원(호는 고운)등이 가장 유명했다. 시대가 흘러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서도 이 지방에서는 장수와 재상, 공경(公卿)²⁸¹, 문사, 덕행이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공훈자, 절조의 명예가 있는 인물, 기타 선석도류(仙釋道流)²⁸²의 부류에 이르기까지 배출한

279) 물이 많이 모이는 곳, 문인·예술가가 많이 모이는 곳.

280) 하루의 아침과 하루의 저녁이란 뜻으로 짧은 시일을 이르는 말.

281)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아울러 이르는 총칭.

것은 참으로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손꼽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 경상북도에서 양반이라 칭하며 문벌로 불리는 자는 언제부터 발생한 가문이었나 하면 가장 고대에 속하는 신라시대는 시대가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그 후예에게도 많은 변천이 있어 그저 그 가계가 당시의 명문가에서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일 뿐, 이미 당시의 정치와도 무관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세력이 없으며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데 불과할 따름이다. 가끔 당시 명문가의 후예로 고려 조정에서 벼슬을 했다든지 조선 조정에서 벼슬을 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비로소 그 당시의 족보를 자랑 삼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양반이라 칭하는 집안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도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출현한 대관(大官)²⁸³, 대학자 등의 후손이다.

그래서 고려 중기 이후에는 김부식이나 최해²⁸⁴ 등 유명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들은 유학을 활발하게 창도하여 신라 이래 번성했던 불교 세력을 능가했다. 그 후 안유(安裕)²⁸⁵, 정몽주 등이 나와 또 활발하게 유학을 고취했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고려 말기에 출현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되고 나서 이성계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권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크게 융성했던 불교도 쇠퇴하여 일국(一國)의 풍상(風尙)은 유학을 순

282) 유불선(儒佛仙)과 같은 종교인들

283) 높은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는 사람.

284) 고려시대 문신. 본관은 경주, 최치원의 후손.

285) 고려시대 유학자. 안향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조선 시대에 문종(文宗)의 이름이 향(珦)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안유(安裕)로 개명함. 주자(朱子)를 숭배하여 그의 초상을 향상 벽에 걸어 두고, 주자의 호(號)인 회암(晦庵)의 회(晦)자를 따서 스스로 호를 회현(晦軒)이라고 함. 우리나라에 맨 처음 주자학을 받아들인 최초의 주자학자(朱子學者)라는 설이 있음. 조선 중종 때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순흥백운동(順興白雲洞)에 안향의 사묘(祠廟)를 세우고 서원(書院)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가 됨.

순히 따라 이때부터 유학은 반도에서 융성하게 되었다.

고려 말 명신(名臣)으로 유명한 정몽주는 끝끝내 태조 이성계에게 굽히지 않아 죽음을 당하였고, 제자인 길재는 몇 번이나 조선 왕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물러나 향리에서 경사(經史)²⁸⁶를 강의했다. 길재의 제자인 김숙자(金淑滋)²⁸⁷ 및 그의 아들인 김종직(金宗直)²⁸⁸은 학문에 아주 정통했으며 스승인 길재의 의도를 잘 소술(紹述)²⁸⁹하여 경학(經學)을 장려했다.

그래서 김씨 문하에서는 40여명의 명사(名士)를 배출했는데, 때로는 학문을 하는 선비로서 때로는 충절 있는 신하로서 일세(一世)에 이름을 떨쳤다. 특히 김굉필(金宏弼)²⁹⁰, 정여창(鄭汝昌함양출신)²⁹¹, 김일손(金駟孫 김해 출신)²⁹², 박한주(朴漢柱)²⁹³, 남효온(南孝溫)²⁹⁴, 박은(朴鬮)²⁹⁵, 이맹전(李孟專)²⁹⁶, 이원(李龜)²⁹⁷

286)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아울러 이르는 말.

287) 조선 전기의 도학자. 향리에서 후진을 기르고 도학을 실천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선산을 근거지로 하는 조선시대 사림의 맥을 이어 나갔다.

288) 조선 전기 영남 출신의 사림파 학자였고 뛰어난 문장가이자 관료였다. 김굉필과 정여창 등 많은 제자를 길러내 영남 사림파의 영수로 기억되는 인물.

289) 선대(先代)의 위업을 이어받아 밝힘.

290) 자는 대유(大猷)이며, 호는 사옹(蓑翁)·한훤당(寒暄堂)이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본관은 서흥(瑞興)이며, 서울의 정릉동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경상도의 합천·현풍 등에서 살았다. 1475년(성종 5)에 당시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을 찾아가 『소학』을 배웠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조광조(趙光祖)를 만나 학문을 전수하였다.

291) 조선 전기 경상남도 함양군 출신으로 사림파 계열에 속하는 성리학자이자 문신.

292) 조선 전기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거주한 문신. 자는 계운(季雲), 호는 탁영(濯纓)·소미산인(少微山人)이다.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김일손의 가계는 경상북도 청도에서 세거(世居)하였다.

293) 조선전기 사간원헌납, 평해군수, 예천군수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천지(天支), 호는 우졸재(迂拙齋). 박돈인(朴敦仁)의 아들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294)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로서,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자는 백공(伯恭)이고, 호는 추강(秋江)·행우(杏雨)·최락당(最樂堂)·벽사(碧沙)이며, 시호는 문정(文貞)

등은 가장 알려진 인물로 전해진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앞서 언급한 김종직의 문하인 김굉필의 제자로 조광조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는 용인 사람으로 스승인 김굉필에 이어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광조의 제자로 경상북도 출신으로 유명한 이언적(李彦迪 호는 회제)²⁹⁸을 배출했는데, 역시 경상북도 출신으로 유명한 이황(호는 퇴계)은 바로 회제(이언적)의 문하에서 나왔다.

덧붙여서 조선의 5현을 부가해 설명해 두겠는데, 5현이란 지금 거론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을 말하는데, 이중 김굉필, 이언적, 이황 이 세 사람 모두 경상북도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당시 경상북도에서 저명한 인물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영의정 재(在)의 5대손이고, 생원 전(愼)의 아들이다. 김종직의 문인으로, 김굉필·정여창·김시습(金時習) 등과 교류하였다.

295) 조선 전기, 참지의정부사,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시인. 문신, 학자. 본관은 고령(高嶺)이고 자는 중열(仲說), 호는 읍취헌(挾翠軒).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2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용재(容齋) 이행(李荇)과 더불어 16세기 초 한시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해동강서파(海東江西派)'라 일컬어진다. 문집으로 『읍취헌유고(挾翠軒遺稿)』 1책이 전한다.

296) 조선전기 승문원정자, 거창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생육신.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백순(伯純), 호는 경은(耕隱). 선산출신.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원호(元昊)·김시습(金時習)·조려(趙旅)·남효온(南孝溫)·성담수(成聃壽)와 함께 생육신으로 제향되었고, 또 선산의 월암서원(月巖書院)에는 김주(金澍)·하위지(河緯地)와 함께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간(靖簡)이다.

297)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낭옹(浪翁), 호는 재사당(再思堂). 이제현(李齊賢)의 7세손이며, 이계번(李繼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윤인(李尹仁)이다. 아버지는 현령 이공린(李公麟)이며, 어머니는 증이조판서 박팽년(朴彭年)의 딸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298) 조선전기 예조판서, 형조판서, 좌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경상북도 경주 출신. 본관은 여강(驪江: 여주(驪州)). 초명은 이적(李迪)이었으나 중종의 명으로 언(彦)자를 더하였다.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조선의 대 유학자로서 후세에까지도 이름을 떨친 퇴계 이황은 알다시피 정주(程朱)²⁹⁹성리학을 강의했는데, 퇴계가 뿌리 깊게 심은 정주학은 조선 학계를 풍미했다. 퇴계의 문하에는 붓짐을 지고 사방에서 배우러 오는 자들이 많았는데, 후일 퇴계의 옛집에 건립한 도산서원에 종사(從祀)³⁰⁰된 조목(趙穆)³⁰¹은 그의 고제(高弟)³⁰²였다. 퇴계 문하의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술하겠지만, 정구(鄭逵 호는 한강)³⁰³, 김성일(金誠一 호는 학봉)³⁰⁴,

299) 중국 송(宋)나라 때의 유학자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와 주희(朱熹)를 일컫음

300)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301)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월천(月川). 본관은 횡성(橫城)이며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여러 차례 천거에 사직을 계속하다가 1576년 봉화현감에 취임하여 향교(鄕校)를 재건하였다. 1594년 군자감주부로 재직하면서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다. 일생 동안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이황의 문하에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사후 도산서원(陶山書院) 상덕사(尙德祠)에 유일하게 배향되었다.

302) 학식과 품행이 뛰어난 제자.

303) 조선 중기의 문신, 성리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작가, 서예가, 의학자이자 임진왜란기의 의병장이다. 자(字)는 도가(道可), 가보(可父). 호는 한강(寒岡)·회연야인(檜淵野人). 본관은 청주(淸州). 시호는 문목(文穆). 1543년 7월 9일 경상북도 성주 유촌에서 태어났다. 그는 철산군수를 지낸 정윤증(鄭胤曾)의 종손으로, 할아버지는 사헌부감찰 정응상(鄭應祥)이고, 아버지는 김굉필의 외손으로 충좌위 부사맹(忠佐衛副司孟)을 지낸 정사중(鄭思中)이며, 어머니는 성주이씨(星州李氏)로 이환(李煥)의 딸이다. 그의 선대는 6대 조 정총(鄭摠)과 그 동생인 6대 방조 정탁(鄭擢) 형제가 조선의 개국공신이 되어 출사한 이래 조선의 고관을 배출한 가문으로 한양에서 살았으나 아버지 정사중은 낮은 직책인 부사맹을 지냈고, 부인 성주이씨와 혼인하면서 처가가 있는 경상북도 성주에 가서 정착하였다.

304)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외교관, 학자. 본관은 의성, 호는 학봉(鶴峰), 자는 사순(士純). 퇴계 이황의 제자이며, 시호는 문충공 서애 류성룡과 함께 퇴계의 주리론 학문을 이어받은 수제자로 영남학파의 중추 구실을 했다. 안동에 자리한 학봉종택은 안동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의 전형으로 유명하다. 특히 학봉 문중에서는 학봉이 남긴 "3년 동안 금부도사가 찾아오지 않으면 선비 집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훈으로 여겨 왕에게 직언을 하는 문중으로 영남 유림의 중심 문중이 되었다.

임진왜란의 재상으로 유명한 유성룡(柳成龍 호는 서애)과 그의 형인 유운룡(柳雲龍 호는 겸암)³⁰⁵, 기대승(奇大升 호는 고봉, 전북 고경 출신)³⁰⁶, 이이(李珣 호는 율곡, 해주의 대유학자) 김부필(金富弼 호는 조당)³⁰⁷ 등 유명한 인물은 모두 퇴계의 문하에 집지(執贄)³⁰⁸했다.

퇴계문하의 빼어난 인재인 한강 정구는 경학에 특히 조예가 깊었다고 칭송받았다. 그의 문하에서 허목(許穆 호는 미수, 경기 출신)³⁰⁹ 및 장현광(張顯光 호는 여헌)³¹⁰ 등의 유명한 가문을 배출했다. 그런데 허목은 이를 이익(李瀾 호는 성호)³¹¹에게 전수했고, 이익은 이를 안정복(安鼎福 호는 순암)³¹²에게 전수했으

305) 유운룡의 본관은 풍산(豊山)이며, 자는 응견(應見), 호는 겸암(謙菴)이다.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유성룡(柳成龍)의 형으로 퇴계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모든 경사(經史)를 통독함으로써 사문의 촉망을 받았다.

306) 원문에서는 한자가 착부필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성균관대사성, 대사간, 공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전라남도 나주 출신.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峯)·존재(存齋).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이황과의 서신 교환을 통하여 조선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칠논변(四七論辨)을 전개하였다.

307)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언우(彦遇). 호는 후조당(後彫堂). 안동 예안 출신.

308) 예전에, 제자(弟子)가 스승을 처음 뵈는 때에 예폐(禮幣)를 가지고 가서 경의(敬意)를 표(表)하던 일.

309) 조선 후기 성균관제조,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문보(文甫)·화보(和甫), 호는 미수(眉叟).

310) 경상북도 인동 출신. 본관은 인동(仁同).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헌(旅軒). 조선시대 『여헌집』, 『성리설』, 『역학도설』 등을 저술한 학자.

311) 조선 후기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

312) 원문에서는 안필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안정복의 오류인 듯하다.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실학자.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백순(百順), 호는 순암(順庵)·한산병은(漢山病隱)·우이자(虞夷子)·상헌(橡軒). 제천(提川) 출신. 이익(李瀾)의 문인이다.

며, 또 유성용은 정경세(鄭經世 호는 우복)³¹³에게 전수했고, 김성일은 이상정(李象靖 호는 대산)³¹⁴ 및 이광정(李光靖 호는 소산)³¹⁵ 등에게 전수했으며, 또 이대산은 유정제(柳定齊)³¹⁶에게 전수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에서는 연이어서 다수의 현관(顯官)³¹⁷과 대학자를 배출했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조선시대에는 거의 조선 전국 도처에 분산되어 거주하며 중요한 정무의 중임을 맡아 그 길을 넓혀갔다.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지방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전후 약 6백년간 인물 배출의 연총(淵叢)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지방의 호학지풍(好學之風)³¹⁸은 도처에서 성행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상북도 지방은 이름 하여 때로는 인재의 보고(寶庫)라 불렸으며, 때로는 추로지향(鄒魯之鄉)³¹⁹이라 불리며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 비유되었다.(미완결)

313) 조선시대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314) 조선후기 『사례상변통고』, 『심동정도』, 『이기휘편』 등을 저술한 학자. 경상북도 안동 출신.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315)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 한산(韓山). 자 휴문(休文). 호 소산(小山). 안동 출생. 영남학파의 대학자 상정(象靖)의 동생이다.

316) 이름은 유치명(柳致明)이고 정재(定齋)는 호이다. 조선후기 대사간, 한성좌윤, 병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학자이다. 경상북도 안동 출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백(誠伯)이다.

317) 높은 벼슬.

318) 학문을 좋아하는 경향.

319)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고향(故鄉)’이라는 뜻으로, 예절(禮節)을 알고 학문(學問)이 왕성(旺盛)한 곳을 이르는 말.

취보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경상북도 산업자문회는 지난번 보도한 바와 같이 드디어 지난 선달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보다 앞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각 방면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평소 많은 해당 업자와 접촉하는 자 가운데서 44명을 선발 하여 자문회 위원으로 위탁하였다. 또한, 현재 경상북도 산업의 각종 상황 및 장래에 대한 계획 요령을 인쇄물로 만들어 각 위원 에게 배포하였다. 각 위원의 이름 및 착석 번호는 다음과 같다.

- 1번 와카바야시 세이조(若林誠助) (대구)
- 2번 소고 야자부로(十河彌三郎) (영일)
- 3번 후루타 주에이(古田忠衛) (대구)
- 4번 박병채(朴丙采)(경산)
- 5번 나미오카 기치에몬(波岡吉右衛門)(울릉)
- 6번 가와이 아사오(河井朝雄) (대구)
- 7번 이일우(李一雨)(영일)
- 8번 이토 기치사부로(伊藤吉三郎) (대구)
- 9번 시모무라 다다시(下村忠)(경산)
- 10번 김준림(金濬林)(봉화)
- 11번 우상학(禹象學)(김천)
- 12번 야마모토 고조(山本好造)(대구)
- 13번 사키사카 쇼키치(向阪庄吉)(대구)
- 14번 오이시 다케키(尾石剛毅)(대구)

- 15번 서병조(徐丙朝)(대구)
- 16번 김명옥(金明玉)(청도)
- 17번 나카타니 다케사부로(中谷竹三郎)(영일)
- 18번 요시다 에이사부로(吉田英三郎)(대구)
- 19번 배동옥(裴東玉)(성주)
- 20번 김남수(金南洙)(군위)
- 21번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문경)
- 22번 히우라 고지(日浦廣治)(경주)
- 23번 권병선(權丙宣)(청송)
- 24번 한익동(韓翼東)(대구)
- 25번 남연탁(南延卓)(영양)
- 26번 야마카미 산라쿠(山上三樂)(김천)
- 27번 진희규(秦喜葵)(달성)
- 28번 박정준(朴正隼)(상주)
- 29번 이풍환(李豊煥)(영주)
- 30번 이기소(李起韶)(영천)
- 31번 모토다 다케오(元田武雄)(안동)
- 32번 김구현(金龜鉉)(고령)
- 33번 야마가타 사다에몬(山形定右衛門)(칠곡)
- 34번 정해붕(鄭海鵬)(대구)
- 35번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대구)
- 36번 정원조(鄭元朝)(예천)
- 37번 문명기(文明琦)(영덕)
- 38번 스기하라 조타로(杉原長太郎)(대구)
- 39번 요시무라 시즈오(吉村鎮雄)(대구)
- 40번 노나카 가나에(野中鼎)(김천)

- 41번 신명환(申命煥)(의성)
- 42번 김상기(金相基)(선산)
- 43번 나카노 류이치(仲野隆一)(영일)
- 44번 다쓰노 산노스케(龍野三之助)(경주)

도청 측은 후지카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지사³²⁰, 하타(秦) 내무부장 이하 다음과 같다.

참여관 윤갑병(尹甲炳), 경찰부장 도미나가 가쓰지(富永一二), 재무부장 나카무라 히로타케(中村寛猛), 농무과장 야마모토 히로미(山本尋巳), 권업과장 마루타 히코이치(圓田彦一), 학무과장 다카하시 우시타로(高橋牛太郎), 지방과장 다케이 겐사쿠(武井健作), 토목과장 다니 고지로(谷幸次郎), 이재장(理財長) 다케모리 기쿠오(竹森規矩夫), 도기사(道技師) 오자키 소사쿠(大崎莊作), 고지마 간이치(小島完一), 쓰네마쓰 다이(常松秦), 모토타니 아이지로(本谷愛次郎), 도가시 히사시(富樫恒), 하시모토 다다오(橋本忠雄), 경상북도 소속(道屬) 관원 요시아마 분이치로(吉山文一郎), 고지마 세쓰마(小島節馬), 쇼지 마사(庄司昌), 사카모토 겐이치(坂本憲一), 박호근(朴浩根), 도 시학(道視學) 안창환(安昌煥) △ 서기 경상북도 소속 관원 요시아마 분이치로, 고지마 세쓰마, 쇼지 마사, 사카모토 겐이치 △ 통역 경상북도 소속 관원 박호근, 도 시학 안창환이 출석했다. 여기서 첫날 개회 후 상황을 대략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320) 1879-미상. 제2대(1919-1923) 경상북도지사를 지냈다.

제1일(12월 11일)

위원 가타오카 기치에몬(片岡吉右衛門) 씨를 제외하고 모두 출석하였다. 회장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가 오전 10시 50분에 개최하여 먼저 개최 인사로 대략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지사의 개회사

이제 개최하겠습니다. 시작이니 한마디 인사부터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산업자문회를 개최하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산업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실로 기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는 장래 경상북도 산업에 가져올 효과가 대단히 크리라 믿습니다. 대개 행정은 관민의 의지로 소통하여 일치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듭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관청이 많은 장려 시설을 마련해도 당사자의 분투와 노력이 없으면 실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은 특히, 민간 실정에 적절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新政)이 시작되고 당국은 많은 방법을 취하며 이 일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민간 업자들의 분투와 노력으로 해마다 현저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대략 산업이라 했습니다만 농업, 임업, 수산, 축산, 상공업이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관청이 장려, 취지를 철저히 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시다시피 총독부에서도 작년 9월에 산업조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유력 실업가들을 모아 전 조선의 산업에 관한 근본 방침

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행정 일을 할 때는 물론 총독부가 정한 대략적인 방침에 준거하여 방책을 결행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에 관해서는 각각의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총독부가 전 조선을 대상으로 정한 방침이 그 지방에서는 적절치 않거나 시설의 완급, 순서가 총독부가 정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는 고유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여 이른바 관민이 일치하여 앞으로의 산업을 장려해 나갈 큰 방침과 실제 시설할 구체적인 방법을 결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산업자문회를 본도에서 열어 특별히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게다가 연말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서 와 주신 것에 감사해마지 않습니다.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도록 경상북도 산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잠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1 농업

먼저, 농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경지 현황입니다. 논은 188,500정(町) 넘게 있지만, 가뭄이나 수해가 없는 확실하게 생산 가능한 논은 약 102,000여 정보(町歩)입니다. 가뭄과 수해를 입기 쉬운 토지는 70,000여 정보이며, 수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은 106,000여 정보입니다. 밭 면적 201,000정보 가운데 장래 논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관개, 배수, 방수 등의 설비가 극히 불완전하여 충분한 생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새롭게 경지를 늘일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아, 이러한 토지를 개량하여 생산 증진을 기하는 것이 농

업개발에 있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미(産米)는 매년 2,200,000석 넘게 수확되는데, 그중 1,700,000석은 도내에서 소비하고 약 500,000석은 도 밖으로 반출됩니다. 그 가격은 능히 천만 원 이상 거액에 달해서 경상북도 경제에 얼마나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재를 보면 1반보(反步)³²¹⁾당 평균 수확량은 겨우 1석 2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일본 평균인 2석 5두와 비교하면 장래에 관개, 거름주기, 그 외 경종법 개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생산 증가에 그치지 않고 품종 개량, 건조, 조제, 저장 및 판매 방법 등 각 부문에 걸쳐 개량한다면 그 이익은 막대할 것입니다. 또한, 쌀 이외의 식용작물, 면 작물 및 각종 특용 작물, 원예 작물, 비료, 가마니, 농기계, 소농 보호 등 시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2 양잠

양잠은 경상북도의 기후 풍토에 적합하여 최근 현저한 진보 발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1921년 양잠 호수는 52,000이 넘었고 누에 생산은 22,000여 석에 달해 조선에서 으뜸가는 성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농가 총 호수인 333,000여 호에 비하면 양잠 호수는 겨우 1할 6푼이며, 뽕밭의 면적도 겨우 3,700여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현황과 비교하면 심한 상황이니 앞으로는 뽕밭의 개량, 증진을 촉진시켜서 양잠의 보급과 발달을 꾀하여 농가의 부업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제사 공업의 발달을

321) 1반(反)은 300평.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 축산

축산은 농업 경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장래 그 수요는 농경은 물론, 일을 부리는 용도로 또 육용으로서 더욱더 증대할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축우 수는 183,000여 마리로 매년 50,000여 마리가 태어납니다. 그 숫자는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격, 성질도 우량한 특질을 가지고 있어 최근 일본으로의 이출이 증가해 각지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도축되는 수는 매년 30,000마리 내지 40,000마리에 달하고 해에 따라서는 일본 이출과 도내 도축을 합치면 태어나는 수를 넘어섭니다. 우량 소를 이출하는 결과,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의 질이 저하되는 걱정도 없지는 않으므로 체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되고 있는 소의 숫자는 농가 10호당 5마리 반이라는 비율이므로 기타 돼지, 닭 사육 증식, 축산 가공품, 사료의 충실,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시설을 요합니다.

제4 임업

경상북도 임야는 약 1,310,000정보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6할 8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림지(成林地)³²²⁾는 겨우 180,000정보이고 나머지 1,130,000정보는 어린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무입목지(無立木地)³²³⁾입니다. 어린나무가 있는 지대

322) 베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숲이 있는 땅.

323) 나무를 심을 예정이나 현재는 나무가 없는 곳.

는 적당히 보살피면 점차 자라서 숲을 이룰 수 있으나, 35, 6만 정보 되는 무입목지는 식수조림하는 방법 없이는 자라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산림 황폐는 각도의 공통된 상황으로 비단 경상북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의 황폐 정도가 극히 심해서 여태 각종 방법으로 조림 사상의 환기와 실현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황폐 정도가 심해서 보통 방법으로는 식재할 수 없는 지방에는 제방 공사를 시행하여 조림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본도에서는 수해 및 가뭄 피해로 인한 참상을 보여왔습니다만 이 또한 필경 임야가 황폐한 결과입니다. 때문에 식림 사업은 단순히 산지 보호와 수입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토 보안, 수해와 가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각 방면의 시설 덕분에 최근 각 지방마다 애림 사상이 잘 발달, 보급되어 해마다 식재되는 숫자도 1912년에는 1,900,000그루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1년에는 27,000,000그루까지 증가했습니다. 어린나무 보호도 면모를 쇄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입목 산림이 35, 6만 정보나 되어서 앞길이 아직 까마득하게 멍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5 수산

수산의 경우, 경상북도 연해는 겨우 세 개 군과 울릉도이며 총 연안선은 540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도의 연안은 마침 차갑고 따뜻한 해류가 뒤섞여 어족이 돌아다니고 서식하기에 적당해서 그 풍부함은 달리 비할 데가 없습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등이 곳곳에 밀집해 있어서 해안 일대는 거의 일 년 내내 성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21년 어획량은 4,800,000원이 넘었는데

이는 해안선 1리마다 9만원 꼴입니다. 조선 전국의 평균 8,900여 원과 비교하면 실로 10배입니다. 진보된 일본의 총평균액 2만 4, 5천 원과 비교해도 약 4배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천부의 좋은 어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은 무진장으로 천연의 산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의 노력과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획량 증진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21년 어획량을 1912년과 비교하면 9배 넘게 늘었습니다. 천혜의 좋은 어장을 충분히 개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은 단순히 어획 방법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가공, 운송 판매 조직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현재는 해상 거래로 산채로 일본 혹은 부산 방면으로 직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개는 중매업자나 운송업자가 대부분의 이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품은 1921년에는 112만 개에 달해 1912년의 12만 개보다 10배 늘었습니다. 통조림과 같은 일부 제조품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치하며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방면에서도 충분한 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6 상공업

상공업의 경우는 산업 발달과 교통 기관의 정비로 인해 지방경제력이 신장되고 물자 출입이 해마다 증가하여 대구의 수이출입 무역액은 1912년에는 겨우 196만 원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21년에는 1,237만 원으로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업회사는 1912년에는 7곳이었지만 1921년에는 33곳이 되었고 운수업 회사도 처음으로 1916년에 한 곳 생겨났던 것이 1921년에는 4곳으로 늘었습니다. 공업의 경우, 종래 조선에서는 종이, 직물 기타

자잘한 특종 생산품 이외는 가공생산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방면의 시설로 인해 점차 발달하여 1912년에는 공장 수가 20곳, 자본금 5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공장 수가 70곳, 자본금은 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사, 정미, 조면, 통조림, 도자기와 같이 원료 증산과 판로 확장에 따라서는 장래 유망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래 산업 장려는 농림, 수산, 축산 등과 같이 원생산품의 개량 증진을 꾀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가공생산품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감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공생산업을 부흥시켜 원생산품의 이용 범위를 확장하고 수익 증가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업 가운데 경상북도의 방직업과 제지업은 둘 다 그 생산액이 조선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각종 방면에서 개량과 지도 장려에 힘써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 외 각종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동력 공급, 원료 수급, 종업자의 양생, 판로 개척, 자금 융통 등 수많은 요소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종 방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 부업

부업 장려는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여 개인 경제를 조장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근검저축 미풍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농업 이외의 생업이 적어서 노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유효하게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소질이 있는 자를 지도 장려하여 품질 개선과 생산액 증가에 애쓰는 것이 가장 긴급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시설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제8 자금

다음으로 산업자본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 본점과 지점 15곳, 그밖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지점과 금융조합이 47곳이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대부 금액은 3,249만 원이며 예금은 947만 원입니다. 이를 1912년 은행 6곳, 금융조합 20곳, 대부 183만 원, 예금 90만 원과 비교하면 기관, 금액 모두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우선 자금에 대해 충실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수요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충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9 기타

기타 교통 및 통신 기관 정비는 직접적으로 산업 발달을 촉진 시키므로, 이들 기관을 정비하고 충분히 이용, 보급하지 않으면 산업 발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교육은 산업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얻고 산업사상의 향상, 보급을 기하는 것이므로 산업 발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각 방면의 경상북도 산업 정세는 대략 이상과 같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진보 발달해 왔으나, 현재 각국의 산업경쟁이 더해지면서 조선의 산업 개발도 한층 긴급함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경우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방면이라 도저히 관청의 노력 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가령 관청이 각각의 계

획을 세워 실행하더라도 실제 그 임무를 맡는 자는 결국 해당 업자입니다. 때문에, 우선 해당 산업 종사자의 양해와 자각, 노력이 없으면 안 되므로 그 계획에 관해서도 가능한 한 실지에 적응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 각 방면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시고 또 수많은 해당 산업의 종사자와 접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지방 일반의 해당 업자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경상북도의 시설 계획에 대해 그 취지든 내용이든 충분히 설명하고 아무쪼록 잘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민이 일치하여 경상북도의 여론으로서 각종 산업의 계획을 실행하고 그 발달 진보를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경상북도의 계획 요항은 인쇄물로 만들어 드렸으니 바라건대 본 요항의 각 사항은 물론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기탄, 격의 없는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및 의견

위와 같이 끝이 나고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쉬고(오후 0시 40분)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었다.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가 재개를 선언함과 동시에 의사(議事) 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물었다.

본 회의는 가능한 한 형식을 버리고 말하자면, 간담 형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이니 다소 형식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제가 이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국이 조사 작성한 계획 요항을 원안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체적인 질문 혹은 기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끝나면 각 부문의 산업에 관한 심의는 위원을 뽑아 두 개 군(郡)

혹은 세 개 군이 분담하여 심의하면 시간 절약상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1번인 와카바야시 세이조는 질문과 의견 진술은 동시에 못하니 우선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31번 모토다 다케오는 지사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여 그대로 의사(議事)로 들어갔다.

6번 가와이 아사오

경상북도의 모든 생산물 총액을 수치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

조사 후 서면으로 여러분들께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번 정해봉

산업에 대한 계획서는 모두 경비 문제를 수반하므로 어느 정도까지의 계획이 가능할지 그 범위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

본 계획 요항 중에 들고 있는 사항은 대체로 현재 본도의 지방비로 실행하려고 하면 실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쓸데없이 지방비 힘을 빌리지 않고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18번 요시다 에이자부로

경상북도의 계획은 총독부 계획과 관련하여 수립된 것이지요? 일례를 들자면 토지개량의 경우 조선의 천수답(天水畓) 120만 정보 가운데 쉽게 개간할 수 있는 40만 정보를 6,700만 원이라는

경비를 들여 15년간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총독부 공사계획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 개량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총독부 공사계획과 같은 주체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마모토 히로미 참여관

총독부의 공사계획은 200정보 이상의 집단지구에 해당됩니다. 대략 30정보 내지 100정보가 가장 많은 관계로 총독부 계획 이외 토지에 대해서도 실행할 생각입니다.

18번 요시다 에이자부로

본 계획은 각종 다방면에 걸친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안 좋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쪽에서 마를 증식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뽕나무 식재를 장려하기 위해 토지 충돌을 일으킬 우려는 없습니까?

야마모토 히로미 참여관

그 점은 충분히 경지 이용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니 말씀하신 우려는 없습니다.

18번 요시다 에이자부로

각 군에 대해서 군의 산업을 정해서 철저하게 장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후지카와 리사부로 지사

우선 본 자문회에서는 산업을 확립한 후에 각 군에서도 어떠한

형식으로 산업을 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34번 정해봉은 의사 진행상의 희망 사항에 대해 말하고, 37번 문명기는 각 군에 기반한 산업장려 조합을 조직하면 어떨겠냐고 하였다. 30번 이기소는 생산 증가 방법으로 노력 절약을 주장하였다. 22번 히우라 고지는 식량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백미 검사 격하를 요망한다고 하였고, 모토타니 아이지로 참여관은 조선의 거래 관행, 기타 관계 백미 검사 실시 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였다. 39번 요시무라 시즈오는 의사 진행과 관련된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였다.

14번 오이시 다케키

경상북도 계획 요항 가운데 산업자금에 관한 건 제2항을 들면, 본도 산업의 실정을 조사 공표하여 일본자금의 투입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의 자금을 풀게 하는 의미인지 혹은 일본 자본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의미인지 이 점에 대해 실제 조사가 있다면 그 조사 결과 및 실제 사례가 있다면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4항에 곡물 집산 주요지의 금융조합으로 하여금 농업창고 업무를 보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창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점에 대해 여기서 잠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무진업에 대한 감독 지도 방침상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나카무라 히로타케 참여관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비교적 자금이 부족한 조선의 공업

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본자금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 산업의 실정을 일본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김천, 왜관, 하양, 경산, 안동, 상주 등의 지역부터 우선 착수하려고 합니다. 아직 조선에는 농업창고와 관련된 법제가 없으나 대체적인 것은 일본의 법제에 준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진에 대한 감독 지도는 8월 1일 이래 실시하고 있는 무진업령(令)과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감독은 도령(道令)의 의회취체(取締)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김구현은 농촌 실정을 이야기하고 한편의 답신서를 제시하였다.

8번 이토 기치사부로

토지개량과 관련된 건 중에 경지정리에 관한 항목을 더 넣을 필요는 없을까요? 또한, 이번 자문회 개최를 기회로 삼아 도내 산업으로 사업 하나를 시작하도록 주선하시는 건 어떨지요?

모토타니 아이지로 참사관

경지정리는 토지개량이라는 의미 중에 포함됩니다.

2번 소고 야자부호가 생산검사 및 운수기관에 관해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오후 5시 5분에 폐회하였다. (제1일째 기사 완료)

부기

2일째 이후 의사는 인쇄 및 지면 관계상 2월호에서 보도할 예

정이다.

하정(賀正)³²⁴⁾

회장 후지가와 리사부로(藤川利三郎)
부회장 하타 히데사쿠(秦秀作)
위원 윤갑병(尹甲炳)
위원 도미나가 가즈지 (富永一二)
위원 나카무라 히로타케(中村寛猛)
위원 다카하시 규타로(高橋牛太郎)
위원 다케이 겐사쿠(武井健作)
위원 유만겸(兪萬兼)
위원 엔타 히코이치(圓田彦一)
위원 모리와키 에이시(森脇英士)
위원 모토무라 하지메(元村甫)
위원 야마모토 히로미(山本尋己)
위원 고지마 간이치(小島完一)
위원 오자키 소사쿠(大崎荘作)
위원 다니 고히로(谷幸次郎)
위원 쓰네마쓰 아키라(常松泰)
위원 모토타니 아이지로(本谷愛次郎)
위원 하시모토 다다오(橋本忠雄)
위원 도가시 겐(富樫 元)
위원 김종원(金種元)
위원 아리가 도요노신(有賀豊之進)

324) 연하장 등에 쓰는 말로,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

위원 하리카에 리헤(針替理平)
 위원 미야자키 이키치(宮崎伊吉)
 위원 도다 마사(戸田正)
 위원 다케바야시 키쿠오(竹林規矩夫)
 위원 마쓰나가 후사시치(松永房七)
 위원 야다 미쓰쿠(矢田貢)
 위원 (대구) 마쓰이 신스케(松井信助)
 위원 다카스키 곤조(高杉権蔵)
 위원 우에무라 나오치카(上村直親)
 위원 후쿠시마 하쿠조(福島百蔵)
 위원 도야마 마사오(富山政雄)
 위원 (달성) 김재환(金在煥)
 위원 (군위) 김봉진(金鳳鎭)
 위원 에나리 이네키치(江成稻吉)
 위원 (의성) 손해진(孫海震)
 위원 다카하시 분지로(高橋文治郎)
 위원 (안동) 이윤영(李胤榮)
 위원 사사 이노스케(笹猪之助)
 위원 후지이 하루키(藤井春喜)
 위원 (청송) 조정환(曹正煥)
 위원 후루카와 쇼하치(古川庄八)
 위원 (영양) 한희석(韓嬉錫)
 위원 후쿠다 치요키치(福田千代吉)
 위원 (영덕) 홍의식(洪義植)
 위원 오쿠보 후쿠기치(大久保福吉),
 위원 (영일) 진나이 요시조(陣内喜三)

위원 미야케 히코시치(三宅彦七)
 위원 (경주) 박광열(朴光烈)
 위원 이와미 히사미쓰(岩見久光)
 위원 (영천) 장윤규(張潤圭)
 위원 사이토 시즈오(齋藤静夫)
 위원 (경산) 이용한(李容漢)
 오키 도쿠고로(沖徳五郎)
 위원 (청도) 주재영(朱載榮)
 위원 히가시나카 효(東仲兵衛)
 위원 (고령) 권중익(權重翼)
 위원 요시무라 노보루(吉村登)
 위원 (성주) 권태영(權泰泳)
 위원 가와카미 다마쓰쿠(川上玉次)
 위원 (칠곡) 심환진(沈暉鎭)
 가토 기요시로(加藤清四郎)
 위원 (김천) 아리가 케타로(有賀啓太郎)
 오노 히데오(小野英勇)
 위원 (선산) 이종수(李種洙)
 위원 스기야마 코헤이(杉山幸平)
 위원 (상주) 신현구(申鉉求)
 위원 마루야마 쇼조(丸山省蔵)
 위원 미즈노 쓰루지로(水野鶴次郎)
 위원 (문경) 윤관일(尹貫一)
 위원 오카모토 슈이치(岡本修一)
 위원 (예천) 김동태(金東泰)
 위원 이노우에 시게루(井上茂)

위원 (영주) 전성오(全省晤)

위원 다카사키 다케지로(高崎丈次郎)

위원 (봉화) 조종하(趙鐘夏)

위원 나카니시 쥬이치(中西重一)

위원 (울릉도) 나카지마 이와오(中島巖)

간사 하리카에 리헤(針替理平)

간사 다카바타케 다메지로(高畠為次郎)

창작 : 어느 기혼자의 일기

노가미 이사오(野上烈)

-월 19일

한참이 지났는데도 펜을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절망의 끝에서 헤매고 있다. 그렇게나 열심히 탐독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천재가 격렬한 사랑을 쫓아 무엇이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 뒤돌아보지 않는 정열로 나를 움직이게 했음에도 지금은 그것조차 빛을 주지 않는 입을거리가 되었다. 어쩌면 종단 말인가.

-월 20일 저녁

내 육체가 내 정신을 향해 속삭이는 소리를 오늘 밤 듣고 있다.

미쳐라 미쳐라, 울어라 울어라, 웃어라 웃어라.

슬퍼하라 슬퍼하라, 네 생명이 명령하는 대로 되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증오하라, 죽어라, 죽여라.

네 생명이 명령하는 대로 되어라.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

미쳐라, 사랑해라, 증오해라, 죽어라.

네 생명이 명령하는 대로 되어라.

-월 5일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사람들로부터 사라지고 싶었다. 그

러나 도시 한가운데였다. 나는 어딘가를 정처 없이 걷다가 논이 있는 쪽으로 나왔다. 어제 타고 온 기차가 다시 무서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논에도 도시의 향기가 가득했다. 고통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고독해지고 싶다. 고독해지고 싶다.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러나 억지로 떠밀려 곁으로만 번드르르한, 사랑이라고도 무엇이라고도 이름붙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헤매는 것이라면 고독한 편이 얼마나 마음 편할까?

무엇이냐, 나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 진실한 나... 'A'...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교사든 사무원이든 농부라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무라든가 생활의 방편 때문에, 세상에서의 체면 때문에 왜 자신을 속박해야 하는가. 나는 '내가 가야할 곳'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의 곁으로.

-월 6일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모두 잊어버리자. 아무 은총도 받지 못한 나로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일인 걸. 그래도 이렇게 괴로운 내 마음은! 기차에 부딪혀 나도 사람들도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친구 B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아 A씨. 당신은 무서운 말을 하는군요. 나는 어쩐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붓을 들었으니 무슨 말이든 써보지요. 그래요 지금의 나에게는, 나의 이 공허한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성가신 일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마디 양해 말씀드리자면, 나는 자주 마음이 변하는 불쾌한 인간입니다. 부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당시의 제 마음이라 읽어주십시오.

4월 29일 (말음)

A씨에게

당신은 편지도 필요 없다는 슬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쓰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 편지로 인해 이제야 확실히 나와 당신은 이미 서로 다른 세계로 제각각 떨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쩐지 쓸쓸해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에 대한 지금의 내 마음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쨌든 나는 살아있다는 것의 즐거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더불어 - 웬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S를 위해. 즉 나는 나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서운 마음의 동요 속에서 죽음을 응시하며 지냈던 작년 여름휴가때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

당시 나는 그저 죽음을 응시하기만 하며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나는 영혼 없는 시체와 같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S를 떠날 수 없습니다. S가 내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나와 당신은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니...처음부터 거리가 있는 사이였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직 우리 둘 다 처녀였던 만큼 지금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깨끗한 처녀입니다! 나는? 아아 나는,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당신이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생각은 변했습니다. 악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더러운 육체의 찬미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향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가슴에 강렬한 큐피트의 화살을 꽂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어라 말할까?... 나는 그 말이 듣고 싶네요...” 라고.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방약무인한 말인지. 그러나 이것도 그 당시의 내 마음 상태로서 내 추악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옮겨 둡니다.)

4월 30일 (맑음)

어째서 A씨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그 사람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마음을 밖에서 이렇게 추측해 헤아릴 정도로 어리석다. 그래서 외람될지 모르나 - 지금에서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에게 보다 좋은 내 몸의 절반을 주었더라면 하고.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웠던 것이다. 그 넘치는 정열을 쏟아낼 곳이 없었던 것이다. ‘교사라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품어라’ 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그런 말은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말이다. 젊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여자 - 처녀에게 그런 거칠고 난폭하며 야비한 아이들을 유일한 애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닐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이들은 그 여자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뿐이야. 가혹한 일이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저 산속으로나 떠나야지.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너무도 쓸쓸한거야. 그러나 그런 사실을 저 사람 자신은 아마 알지 못하겠지. 아아.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번거롭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툰 시를 - 그것도 자연을 노래했을 뿐이네요

파릇파릇 보리가 자란다. 보리 잎을 갈라서
흙의 향기를 품은 풀피리를 불어보자
오늘 밤도 고향을 그리는 나는 창가에
진주 같은 달이 떠올랐구나
모든 것이 향기로운 달인가, 오월인가
어린잎 사이에 남아있는 벚꽃, 장미, 아카시아
못자리 범씨에서는 싹이 나오고 고향에서는
그 짧은 밤을 개구리가 울고 있겠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나 쓸쓸합니다. 어쩐지 허세를 부리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식으로 조용한 시간을 참을 수 없는 느낌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또 만날 날이 있겠지요.

그리운 A 님께.

B 올림

B에게 편지를 썼다. 내 생각을 비웃지 않고 받아들여 주고 내게 그 길을 가리켜 주는 사람은 지금 내 주위에 B 외에는 없다.

-월 30일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가. 만일 신이나 운명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T를 만나게 하기 전에 어째서 좀 더 내 모든 것에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일까. 그래! 무엇때문에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는가.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나아갈 뿐이다...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에! 그렇다, 그때는 그것뿐이다. '죽음'이 있을 뿐이다.

-월 9일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일을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내게는 타고난 어떤 재능도 없다.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얼마나 수치를 몰랐던 것인가.

나는 이제 죽어도 좋을 때가 이삼일 후로 닥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또 오늘도 학교에 가려고 한다. 무엇 하러 가려는 건가. 저 어린 마음들의 평화를 어지럽히려 간다. - 아아 내게는 어떤 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월 23일

마침내 내게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젊음에서 오는 극히 작은 아름다움까지도. 그리고 정열도. 예술을 동경하는 마음도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것도 지극히 추악한!

이제 T를 생각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월 25일

B에게서 편지가 왔다

A 씨!

편지를 읽은 날부터 나는 매일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권태 그 자체와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내가 당신의 그러한 괴로움에 대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세요.

.....

그것은 당신에게 당연히 와야 할 고통이었어요 - 라고 내가 말하게 해주세요 - 그리고 당신은 용감하게 믿는 바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낭만적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때가 아닌걸요. 당신은 더더욱 강한 이기주의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사의 길로 돌진한다? 안 됩니다. 네, 당신은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자의 길, 사랑의 나라가 당신 앞에 지금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단 한 길로, 그 길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당신도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강해지세요! 강하게요.

.....

지금쯤이면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당신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를 고대하며 펜을 놓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제가 아무 말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힘차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B로부터

A 씨께.

그렇다! 나는 무엇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길로 돌진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월 1일

연애는 종교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괴롭다. 괴롭더라도 멈출 수 없는 마음! - 그것은 종교다. 나는 돌진할 것이다.

-월 20일

나는 오고 말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내가 정착한 영원한 마음의 거처에서 그때의 과거를 보면 정말로 커다란 타락이었다. 한탄하는 것만 알고 무엇 하나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다.

이상! 그것에 대해 나 자신이 과거 무엇을 했던가? 그저 한탄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진해서 멈춘 것이다. 사랑하는 그에게 안내받으며 이상을 향해 돌진하자.

-월 25일

눈부신 아침이다. 오늘 아침 그에게서 나에 대한 세상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행복의 길 한가운데 가시덤불이 있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설 만큼 강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행복한 눈부신 아침이다. 나는 식사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영리한 아침 햇살과 여러 빛깔들 속에서 가만히 미소지으며 침묵하고자 한다.

하정(賀正)

경북연구회 잡지부

니시에 야스(西江靖)

시모야마 다키사부로(下山瀧三郎)

야마자키 주고(山崎十五)

하리가에 리헤이(針替理平)

대구 도구라 기이치(戸倉貴一)

도요타 나가토모(豊田長智)

가와고에 세이조(川越省三)

달성 구마 나오사구(久萬直錯)

히라타 도키와(平田常磐)

우지모리 기요시(氏森清)

군위 쓰지 무네시치(辻宗七)

다카기 미야지로(高木宮治郎)

서병린(徐丙麟)

의성 오노 료타(小野良太)

구라오카 기헤이(倉岡喜平)

우메즈 요시오(梅津良雄)

안동 아이카와 레이즈이 (相川靈瑞)

아라가와 도쿠사부로(荒川篤三郎)

하치야 다카유키(蜂屋孝之)

청송 야마기시 야지베에(山岸彌次兵衛)

하나다 지쓰메이(花田實明)

정규원(鄭圭瑗)

영양 가나야마 사다쓰쿠(金山貞次)

고바치 요시노리(小鉢義則)
 사노 사이지(砂野才治)
 영덕 요시나가 요시오(吉永義夫)
 도이 세이고로(土肥清五郎)
 도요나가 요시히코(豊永義彦)
 영일 다나카 도라오(田中寅雄)
 나카무라 에이치로(中村英一郎)
 이사바시 쓰네타로(石橋恒太朗)
 경주 요시바 게이치로(吉羽啓一郎)
 고우다 기쥬로(国府田儀重郎)
 모토우치 분조(本内文藏)
 영천 오가타 기요히코(緒方清彦)
 이소오카 다메기치(磯岡為吉)
 마쓰바라 (松原 倅)
 경산 구리모토 다마지로(栗本玉次郎)
 야마지 센자부로(山地專三郎)
 마쓰나미 아야토모(松波文友)
 청도 최항묵(崔恒默)
 스에나가 모리사부로(末永守三郎)
 도요구라 나오타케(豊蔵直勇)
 고령 박제윤(朴濟輪)
 야마가타 사부로(山縣三郎)
 히라하라 데이로(平原棣郎)
 성주 미즈노 노부로(水野 昇)
 게타 세이치로(気多誠一郎)
 다카기 게지로(高木啓次郎)
 칠곡 노리타케 사다기치(則武定吉)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好一)

유라 단이치(由良團一)
 김천 아소 오이치(阿宗太市)
 야마구치 시게오(山口重男)
 선산 고토 가즈마(後藤数馬)
 후쿠다 도시오(福田俊雄)
 구보 가즈나(久保和七)
 상주 단바 노리오(丹羽憲夫)
 쓰다 유타카(津田豊)
 우에다 아키라(上田曠)
 문경 마스다 히데조(増田秀三)
 아오야마 우네(青山采女)
 김복경(金復卿)
 예천 이돈영(李敦英)
 이리사 히로다케(入佐広武)
 아라키 도모키치(荒木知吉)
 영주 이범주(李範周)
 고토 리자부로(後藤利三郎)
 마스다 기요시(増田清)
 봉화 우치다 다케하치(内田武八)
 오카다 마쓰사부로(岡田松三郎)
 오타 이노조(太田猪三)
 울릉도 이필녕(李弼寧)
 요코야마 벤하치(横山辨八)
 백낙빈(白樂斌)

경북연구회 규약

제1조 본회는 경북연구회라 칭하며 조선의 시정 방침 및 지방행정 기타 제반 상황을 주지시키고 또한 회원 상호의 지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경상북도 도청 안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경상북도 관내의 관공리 및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4조 회원의 회비로 매월 금 삼 십전을 납부해야 한다.

제5조 본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 행정 기타 집무 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연구하는 일
잡지 ‘경북’을 발간하고 회원에게 배포하는 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연 또는 의견 교환을 위한 회원의 집회를 열 수도 있다.

제6조 ‘경북’은 매월 1회 발행한다. 단 필요할 때는 임시 증간할 수도 있다. ‘경북’에 게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방침, 시사, 지방행정, 농상공 교육, 토목, 경찰, 재정, 경제, 금융, 학술, 기예 및 통계 등의 보도 및 논설
2. 조사 및 연구
3. 지방 사정
4. 법령 및 질의
5. 인사
6. 문예란
7. 해방란

제7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위원 약간 명, 간사 약간 명

제8조 회장으로서는 도지사를 추대하고 부회장, 위원 및 간사는 회

장이 이를 촉탁한다.

제9조 회장은 연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위원은 중요한 사무를 평의한다. 간사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 각 연도 시행과 관련된 본회의 성적 및 서무 회계의 보고는 잡지 ‘경북’에서 발표한다.

잡지 『경북』(매월 1회 5일 발행 100페이지 내외) 1부 정가 35전

정가표		광고료	
	선금		1회 1페이지
6개월	1원 60전	보통	20원 상당
1년	3원 20전	특별	30원 상당
중간 및 증대호는 정가가 같지 않으므로 값이 부족할 때는 그 차액을 별도로 받는다.		1년 단위 및 3회 이상은 광고 요금을 할인하기로 하고 매번 광고 의뢰자와 의논한다.	

1923년 1월 3일 인쇄 납본

1923년 1월 5일 발행

제2년 제1호

발행인 경상북도 문서과장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인 시모이시 고야(下石幸也)

조선 대구부 상정(도청 앞)

인쇄소 대구인쇄합자회사

조선 대구부 상정 경상도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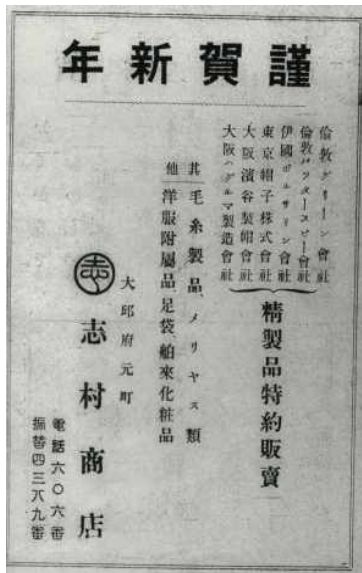
발행소 경북연구회



근하신년

하쿠쓰루(白鶴) 식당
 주인 다카키 신지(高木信二)
 대구 전정(田町)(전화 616번)

싸고 맛있는 서양요리!!
 시대의 요구가 낳은 최신식 식당



근하신정

시무라(志村) 상점
 대구부 원정(元町)
 전화 606번
 대체(振替) 계좌 43189번

런던 그린(green) 회사³²⁵⁾, 런던 배터즈비(Battersby) 회사³²⁶⁾, 이탈리아 보살리노(Borsalino) 회사³²⁷⁾, 도쿄모자주식회사³²⁸⁾, 오사카 하마타니(濱谷) 제모(製帽) 회사³²⁹⁾, 오사카 하구루마(ハグルマ) 제조회사³³⁰⁾ 정제품(精製品) 특약 판매
 기타
 털실 제품, 메리야스³³¹⁾ 류, 양복 부속품, 타비(足袋)³³²⁾, 박래(舶來)³³³⁾ 화장품

- 325) 미상.
- 326) 1895년에 개업한 영국의 모자 회사로 주로 남성용 중절모를 생산.
- 327) 1857년에 주세페 보살리노(Giuseppe Borsalino)가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창업한 고급 모자 회사.
- 328) 1892년, 서양 모자를 일본에서 생산할 목적으로 창업한 모자 회사.
- 329) 1894년에 창업한 모자 회사로 해외 수출용 모자도 생산하였다.
- 330) 제모회사의 오식으로 보임. 다만 오사카 하구루마 제모회사에 대해서는 미상.
- 331) 면사나 모사로 루프(loop) 모양으로 짜서 만든 신축성이 뛰어난 직물.
- 332) 일본식 버선.
- 333) 외국에서 배에 실려 온 물건.

[해제]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잡지 『경북』의 역사적 가치와 1923년 1월호 주요 내용

1.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의 역사적 가치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慶北)』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어 1925년 3월까지 간행된 월간지 형태의 공보잡지(公報誌)이다. 발행 주체는 당시 대구부(大邱府) 상정(上町)의 경상북도청 안에 있었던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이다. 경북연구회 회장은 도지사가 맡았고 부회장은 부지사가 맡았다. 잡지 발행인은 경상북도 문서과장(文書課長)이었다. 『경북』은 발행 주체와 발행인 정보만 보더라도 일반 민간 잡지가 아니라 공적 목적으로 간행한 공보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권당 분량은 창간호만 약 80페이지이고 제2호부터는 약 100페이지~150페이지에 이른다. 잡지 『경북』은 권당 분량과 내용 구성만 보더라도 당시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이다. 이 이례성은 자료가 지니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귀중 기록물이다.

첫째, 『경북』은 1945년 이전 한반도 전체의 12개 부(府)와 13개 도(道) 단위 지역,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발간된 근대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른 사례에 해당한다. 경상북도가 근대 시기 전국 행정 공보잡지 가운데 가장 빠르면서도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든 것이다. ‘경상북도’라는 행정 단위 명칭이 탄

생한 것은 1897년 광무개혁 시점이었다. 이때 경상북도는 수부(首府)인 대구군(大邱郡)을 포함한 41개 군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 단위였다. 이후 경상북도가 현재와 같이 대구와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14년 부제(府制) 실시 시점이다. 조선총독부는 전국 12개 거점 도시를 부(府)로 지정하면서 13개 도(道) 단위 행정과 분리시켜 가는데, 경상북도는 이 과정에서 대구와 독립된 행정 체계를 처음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은 근대 행정 조직 역사에 비추어 보면 1922년 시점에 경상북도가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을 창간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성이 역사적으로 최초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도정 기록물을 낳은 것이다.

1945년 이전 전국의 부(府) 혹은 도(道) 단위 행정 자료 발간 상황을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가 간행한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성부(京城府)는 1921년에 『경성휘보(京城彙報)』를 창간했지만 분량과 체제가 월 1회 발간되는 신문 정도에 머물렀고 『경북』처럼 잡지 형태를 갖춘 것은 1925년 이후이다. 평양부(平壤府)의 『평양휘보(平壤彙報)』도 1922년 창간 시점에는 월간신문 형태였고 1931년이 되어서야 월간잡지 형태로 간행되었다. 부산부(釜山府)도 1926년 7월이 되어서야 잡지 『부산(釜山)』을 창간하고, 인천부(仁川府)는 1934년이 되어서야 월간 『인천휘보(仁川彙報)』를 발행했다.³³⁴⁾

둘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13개 도(道) 단위에서 월간 형태로 발간한 유일한 근대 도정 자료이다. 앞서 살펴본 근대 시기 주요 지역별 행정 공보잡지 사례는 모두 부(府) 단위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이전에도 단위에서 근대 도정 자료를 월간 형태로 발간한 지역은 경상

334) 坂本愁一 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 釜山』(桜井書店, 2007), p.58.

북도가 유일했던 것이다. 어떻게 경상북도만 이와 같은 근대 도정 자료 발간이 가능했는지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당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조세 납부액을 내는 지역이었다는 점과 ‘경북연구회(慶北研究會)’라는 조직 체계 구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해제 집필자의 전문 영역을 벗어나 확정은 못하겠지만 도지사가 회장을 맡고 부지사가 부회장을 맡아 관내 관공리를 가입시킨 ‘연구회’를 조직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공유한 사례는 당시 도 단위 행정 기관에서 흔치 않은 사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프랑스문학도 읽을 수 있었던 저널리스트 출신 전문 편집인을 고용해 행정, 경제, 산업,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예술, 해외 정보까지 아우른 평균 100페이지 이상의 두툼한 월간지를 발간한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적용해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 『경북』은 창간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1920년대에 접어들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 자료이기 때문이다. 『경북』은 1922년 9월에 창간되었다고 소개했는데, 근대 도정 자료가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간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창간 시점은 역사적 이유와 맥락이 분명히 존재했다. 일본은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정책을 위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단위 행정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중요 조치는 1914년의 부제(府制) 시행이었다. 이 시점에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전국 12곳 부 단위 도시 지역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시야를 넓혀 보면 1910년에 시작해 1917년 무렵에 마치는 토지조사사업 또한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최우선 정책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면제(面制)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이 면제 시행은 부(府) 단위에 이은 도(道) 단위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 조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7년부터 새로운 면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도 단위 행정 정책이 토지조사사업으로 구축·재편한 토지 소유에 기초한 세금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진행한 위와 같은 정책은 ‘무단통치, 헌병경찰제도’와 같은 역사 용어가 상징하듯이 일방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1920년대 접어들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본 본토로 이주하는 조선인 숫자가 일본 본토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하는 일본인 숫자를 단숨에 따라잡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언한다. 조선총독부도 1910년대 식민지 지배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고민해야 했고 그 결과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대표되는 정책 전환이었다. 물론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정책 전환이 1910년부터 본격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오히려 부드럽게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근대 도정 잡지 『경북』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변화된 식민지 지배정책이 전국 도 단위 행정 영역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도 유일한 귀중 자료인 것이다.

2. 1923년 1월 『경북』 제2년 1호 목차별 주요 내용

1922년 9월 경상북도청 산하 경북연구회가 창간한 월간 『경북』

』은 1923년 제2년 1호로 처음 ‘신년호(新年號)’를 발간했다. 잡지 『경북』은 창간 이후 첫 신년호였던 만큼 이 전에 없던 글과 구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도입부 모든 광고에 ‘근하신년’ 혹은 새해를 축하한다는 ‘하정(賀正)’이 캡션처럼 달려 있고, 이전의 고정 광고 이외에 많은 광고가 실려 있다. 또한 편집자의 권두언은 새해를 맞이해 천황에게 받치는 인사와 칭송이 주요 내용이다. 1922년 시점에 전국 어느 지역에도 전례가 없는 분량과 체제를 갖춘 100페이지 이상의 월간잡지로 탄생한 『경북』 입장에서 처음 발행하는 신년호는 전년도 총 네 권 간행 경험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좋은 계기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경북』은 많은 잡지가 3호로 폐간되는 것을 넘어서서 경상북도 근대 도정 자료를 축적하는 중요 기록물로서 지속되었다.

1923년 1월 제2년 1호의 목차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효산운(曉山雲) 송정지사(迎正之辭) : 권두언**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 궁중에서 와카를 읊는 우타카이하지메(歌會始)가 개최되는데, 1922년의 표제어는 효산운(曉山雲)이었다. 본 호에서는 편집자가 우타카이하지메의 표제어를 빌어 신년사와 권두언을 대신하고 있다. 내용은 천황의 치세를 칭송하고 황실과 국가의 번영을 비는 동시에 천황의 은덕으로 인해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의 국가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현대 청년의 사명**

이 글은 당시 경상북도 부도지사 직위에 있으면서 ‘경북연구회’ 부회장이었던 하타 슈사쿠가 1919년 3.1운동 이후 상황에서

경상북도 지역의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상 훈화 강연을 한 기록이다. 하타는 해당 강연에서 재능있고 전도가 유망했던 청년이 독립운동에 관여하면서 어떻게 인생이 뒤틀렸는지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경북 청년들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강연은 3.1운동 이후 사상통제 혹은 훈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 국운 신장의 원천을 찾아서

이 글은 제국주의 일본의 대외적인 국운(國運) 신장의 기원을 왜구의 역사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우면서도 1920년 시점에 제국주의 일본의 대외 팽창을 역사적 측면에서 근거지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글의 저자는 1858년 미일수호조규에 대해서도 대외적 팽창, 혹은 국운 신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1905년 이후 194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식민지 팽창 정책이라는 거시적 정책이 구체적인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설파되어 갔는지는 확인시켜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예산의 순응성을 논하다

이 글은 예산이 국가와 사회의 현실에 맞게 순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글이다. 예산은 단순한 수입 지출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해야 하며, 사회의 추이와 상황에 맞춰 적절히 편성되어야 하고, 장기 예산보다는 단기 예산이 사회의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 비율이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예산은 동적인 변화에 맞춰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도지방비 사업 및 임시 은사금의 취지에 관하여

앞 권(『경북』 4호)에 이어 도 지방비에 속하는 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번 호에 제시된 지방비 사업은 주로 토목과 권업에 관한 내용이다. 토목에서는 도로, 교량, 재방, 항만 등의 수선, 관리, 개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고, 권업에서는 종묘장, 관개사업조사, 나무 묘포, 모범림, 미두검사, 잠업감독, 상품진열소, 기술원 배치, 권업보조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조선의 술

경상북도 양조품 품평회의 심사원 자격으로 구마모토에서 온 노지로(전직 히로시마 세무감독국 근무)의 강연을 정리한 것이다. 품평회 심사를 하며 관찰한 조선 청주(淸酒) 및 조선 주조업에 대한 강연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병술과 통술로 나누어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선 주조업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유망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도로 이야기

이 글은 경부선을 대표로 하는 근대 철도 인프라 구축 이후에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정책 차원에서 추진했던 근대적 도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1920년대의 제도적 상황, 경상북도 도 단위 상황, 근대적 도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된 조선총독부라는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면

(面) 단위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실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20년대 면 단위 지배정책의 내용과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통계 개론

이 글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통계 자료 수집과 편집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통계가 없으면 사업 계획이나 논의가 허풍에 불과할 수 있으며 통계는 어떠한 논거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했다.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조사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데 관찰의 시간과 장소, 관찰 양식, 관찰 실행 기관, 관찰 비용 등이 있으며 조사 오류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통계 종류도 나열하고 있는데 인구, 동태, 경제, 농업이 있으며 국세 조사를 가장 중요한 종류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 경산군의 제지

경산 제지업의 기원과 연혁을 소개하고 용성면을 경산군의 제지 본고장으로 들고 있다. 용성면에서 생산하는 종이 종류, 생산액, 제지업자들의 조합 및 현황, 제지업을 개량하기 위한 시설 마련 및 제지업 장려 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제지 원료로 쓰이는 닥나무 껍질의 연간 생산량, 제지 생산량, 생산고 등을 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 탁상유희

백양정과 흑선풍이라는 필명을 가진 두 인물을 설정하여 다양한 주제로 당시의 세태에 대해 논한 글이다. 문명의 정의, 물질

진보, 현대 문명, 빈부의 차, 생활난 등에 대해 두 인물이 교대로 자유롭게 의견과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

앞 권(『경북』 4호)에 이은 후속 원고로 도미나가 가즈지라는 경상북도 경찰부장이 1920년 11월 함경북도 제3부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관명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지방을 시찰한 후 해당지방의 정세를 기록한 시찰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군비상황,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생활상 및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본 관헌의 대응 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주와 연해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의 이름과 일명 ‘4월 참변’으로 불리는 일본군의 조선인 학살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있다.

■ 울릉도 기행

조지 윈은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며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울릉도의 자연환경과 화산지형을 묘사하며 섬이 조선보다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오징어, 동백 등 섬의 특산물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울릉도에서의 교회 방문과 성인봉 탐험, 분화구 탐사 등을 통해 섬의 독특한 모습을 소개한다. 독도를 여행했을 때는 유일하게 거주하고 있는 한 가구를 보게 되는데 세상과 격리되어 고립된 생활 속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포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 도소기언

이 글은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 나가사키에서 들어온 외국어, 특히 영어가 일본어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를 꼽고 있다. 먼저 일본어에 외국어가 스며든 예시를 들고 있는데 램프, 카보차, 텐푸라, 와이셔츠, 하이카라, 프로파간다 등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나친 외국어 사용과 이로 인한 언어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메이지 시대의 서구 문물 도입 이후 한학이 점차 밀려나는 상황을 아쉬워한다.

■ 접골술의 명인

접골술의 명인으로 후루이치 하시노스케(古市橋之助)를 소개한다. 그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접골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 분야에서 대가의 경지에 오른다. 그의 기술은 신비로운 수준으로 환자의 부상 상태를 눈 감고도 진단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항상 뛰어났다. 그의 명성은 경성 방면까지 퍼져, 야마가타(山縣) 전 총감, 하세가와(長谷川) 총독 등 유명 인사들도 그의 치료를 받았다.

■ 진중일기(2)

진중일기(2)는 1권 3권과 4권에 이어 경상북도 각 경찰서에서 간도로 파견된 응원 파견대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3.1운동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북간도 지역에서 당시 일본이 어떤 군사적 행동을 펼쳤는지를 경북의 응원 파견대 인솔자 기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2권 1호에서는 북간도 조선인 거리의 시장 물가를 기록하여 당시의 경제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0월 23일

기록에서는 250명 정도의 마적단이 일본 영사관을 대대적으로 습격해 기관총을 비롯한 다수의 무기를 탈취한 사건 경위가 자세 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지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봄의 세상

봄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사회면에서 봤을 때 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바빠진다. 부자들은 봄을 맞이하며 화려한 장식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걱정이 많고 가난한 자들은 소박하고 간단하게 봄을 맞는다. 아이들은 순수한 기쁨으로 봄을 즐긴다. 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봄을 맞이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관리들은 봄의 보너스를 통해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전반적으로 봄은 기쁨과 함께 인생의 무게와 복잡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계절로 묘사된다.

■ 경상북도의 명문가와 왕년의 흥학

양반 계급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및 고려 중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약 600년에 걸친 기간 동안 경상북도 각지에서 배출된 명문가와 인재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퇴계문하의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출신지를 거론하며 경상북도가 얼마나 대단한 인재의 보고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 휘보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1922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경상북도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산업자문회 회의 내용을 채록, 정리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로는 경상북도 각 방면에서 활약하는 한일의

주요 인사 44인으로 구성된 자문회 위원들, 후지카와 리사부로 (藤川利三郎, 1879-미상) 경상북도 도지사 이하 도청 직원, 통역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첫날의 일정으로는 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의 농업, 양잠, 축산, 임업, 수산, 상공업, 부업, 자금 등의 현황 보고 및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이 있었다.

■ 창작 : 어느 기혼자의 일기

잡지 『경북』은 사실상 경상북도 공보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설과 시 등 문예물을 게재하여 종합 교양지와 갖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중에서도 ‘어느 기혼자의 일기’는 매우 드물게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자신의 부도덕한 애정을 향한 솔직한 욕망과 심적 갈등을 일기 형식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당대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독특한 소재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해제]

경상북도 '청년수양강습회' : '우량 청년'의 양성과 '불온 청년'의 배제

최범순

1923년 1월에 제2년 1호 신년호로 발간된 『경북』은 경상북도 부지사 겸 경북연구회 부회장인 하타 슈사쿠(秦秀作)의 강연 기록 「현대 청년의 사명」으로 시작한다. 1923년 새해 들머리에서 잡지 『경북』은 ‘청년’ 문제를 첫 번째 사안으로 꼽았던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상’ 문제였다. 부지사 하타 슈사쿠의 강연은 “유럽 전란의 결과가 세상의 모든 방면, 특히 사상 방면에 큰 자극과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상의 변화가 조선에도 파급되어 혈기 왕성한 청년의 두뇌를 크게 자극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경상북도 혹은 조선총독부가 1차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의 세계 상황,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 한반도 상황에서 청년들의 사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달리 말하면 1920년대 조선 청년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 포섭 대상이었다.

경상북도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는 “기탄없이 말하자면 종래에 조선 각 지방에서 족생(簇生)한 청년회(靑年會)는 설립 동기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고 회원 가운데 자칫 불온한 사상을 품은 청년도 없지 않았다”는 말로 강연 취지를 곧바로,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3.1운동 이후 조선 및 경상북도의 ‘청년회’와 청년들

의 ‘불온한 사상’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3.1운동 이후 조선에는 각종 청년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조직되면서 1920년대에 청년 담론이 본격화된다. 예컨대 ‘문화정치’로 탄생한 신문 가운데 『동아일보』는 1920년 4월 12일부터 「지방 통신」에서 각 지역 청년회 활동을 보도하기 시작하고 잡지 『개벽』도 청년운동 담론을 다루기 시작한다.³³⁵⁾ 『동아일보』 창간이 1920년 4월 1일이었으므로 각 지역 청년회 활동 보도는 창간 직후 곧바로 게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1920년대 전반기 시대 상황과 맞물린 ‘청년’들의 움직임이 한반도 전체와 지역 단위 모두에서 핵심 사안이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청년단체 움직임은 매우 활발해서 1920년 6월 무렵이 되면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 불교청년회, 기독교청년연합회’ 등과 같은 연합단체도 출현한다. 연합단체 명칭에서 확인되듯 이 시기 청년운동은 종교와 매개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³³⁶⁾ 이러한 양상은 경상북도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안동의 경우 1920년 5월에 안동청년회가 설립되고 이후 안동부인회, 기독교청년회, 불교청년회, 금주회, 조선노동공제회 안동지부 등이 조직되고 1923년에는 안동물산장려회가 성립되었다.³³⁷⁾

한편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의 강연은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靑年修養講習會)’ 자리인데, 행사 명칭에 있는 ‘수양’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청년회 및 청년운동의 열쇳말 가운데 하나였다. 3.1운동 직후부터 확산된 청년회 및 청년운동은 ‘자주·

335) 허재영(2016) 「1920년대 초 청년운동과 청년독본의 의의」 『어문논집』 제 68호, pp.423-448.

336) 허재영 위 논문. 1924년 3월 2일에는 조선청년총동맹도 출현한다.

337) 심상훈(1996) 「1920년대 안동지역의 청년운동」 『安東史學』 2권 1호, pp.109-164.

자립적 인물, 실제적 인물, 세계적 지식을 갖춘 인물, 신념이 견고한 인물'과 같은 인물상 혹은 청년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인물이 되는 과정·방법으로서 '수양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대에 각 지역에서 '수양회'를 표방한 청년 단체가 활발하게 조직되고 "자수(自修)·자양(自養)을 중심으로 한 수양론"이 청년운동의 주된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 잡는 것으로 이어진다.³³⁸⁾ 1926년에 안창호가 조직한 '수양동우회'는 이러한 흐름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상북도가 1922년 10월에 '청년수양강습회'를 주최해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가 「현대청년의 사명」이라는 강연을 하고 잡지 『경북』이 1923년 1월 신년호 제일 첫머리에 해당 강연 필기를 게재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잡지 『경북』이 탄생한 1920년대 전반기에 '수양'은 그 내용과 방법을 둘러싸고 피지배자 조선인과 지배자 일본인의 각축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는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한 「현대 청년의 사명」이라는 강연을 추상적인 사상론 내지 수양론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강연을 진행한다. 이는 강연 취지와 효과를 염두에 둔 매우 노련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고일청(高一淸)'의 사례이다. 하타 슈사쿠가 강연에서 소개한 고일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슬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현재 처지도 자신의 독단으로 함부로 행동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결코 사회인으로서 타고난 재질이 부족한 남자가 아

338) 허재영 앞의 논문.

니었다. 오히려 태어난 마을의 또래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재주가 매우 뛰어났으며 슬기로움을 타고났다. 그는 타고난 혜민함으로 자연스럽게 향당(鄉黨) 청년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조선에서 일어난 어떤 음모 사건이 폭로되었고 그는 연루 혐의자의 한 사람이 되어 제주도로 유적(流謫)당했다. 이렇게 2년을 지내는 동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주도에서 보낸 2년의 생활은 그에게 그야말로 절호의 수양의 시간이 되었다. 그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었는지는 돌아온 이후 그가 보여준 진실한 고백과 자책적 행동에 역력히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인재가 헛되이 묻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상사에게 헌언(獻言)해 그를 도의 고원(雇員)으로 채용했고, 그의 타고난 혜민함은 과연 제반 업무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판임관(判任官)으로 등용되어 장래가 촉망되었다. 만일 그가 충실하게 직책을 유지했다면 아마도 지금은 군수가 될 수 있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천마(天魔)는 끝내 그를 흘렸다.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상하이로 갔다. 이후에 들어보니 상하이의 조선 임시정부 재무국장 자리에 낚여서 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유럽에 망명해 참담한 생활을 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가끔 편지로 자신의 가벼운 행동을 깊이 참회하면서 절절한 망향의 애정(哀情)을 보내오는데 만일 그가 항상 선배와 친구의 말을 청취할 용의가 있어서 나에게 한마디라도 자문하는 세심함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상하이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유럽으로 망명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애절한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을 것이며, 고향에 남겨 둔 처자를 비참한 생활고에 통곡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경상북도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의 강연은 고일청이 ‘때마침 조선에서 일어난 어떤 음모 사건’이라는 형태로 언급된 상황에서 취했던 행동과 그 이후 갑자기 상하이 조선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판단으로 촉망받던 장래를 망치고 유럽으로 망명하는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비참한 생활고에 빠트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판단의 원인으로 ‘정신’, 즉 사상 문제를 꼽고 있다. 1922년에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의 취지를 고려하면 하타 슈사쿠가 고일청의 사례를 소개한 목적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강연 내용이 사실을 오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재외동포사총서의 ‘3.1운동 이후 유럽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항목을 보면 고일청은 1923년의 관동대지진 당시 독일에서 유학하던 상황에서 조선인 피해 조사와 관련해 부르크하르트 박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독일에 있는 한인들의 위대한 회의’라는 형태로 관동대지진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과 조선인들의 억울한 죽음,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규탄하는 한인대회를 개최하고 선전문을 배포하는 움직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 부지사 하타 슈사쿠가 강연에서 언급한 고일청의 ‘참담한 망명 생활’은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와 강연 목적을 위해 운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기술 내용을 보면 고일청이 독일로 유학을 간 과정, 1927년 귀국 이후 평안북도 의주면장, 도회의원, 중추원 참의,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장 등을 역임한 이력은 그의 행보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지만, 적어도 하타 슈사쿠가 강연회에서 고일청을 언급한 1922년 10월 시점의 상황과 행동은

하타 슈사쿠가 소개한 것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22년에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의 취지와 부지사 하타 슈사쿠의 강연 목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는 3.1운동 이후 조선의 ‘청년회’ 활동에 대한 대응이자 식민 통치자 입장에서 이름붙인 ‘불온한 사상’을 표적으로 삼은 강습회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조선인 ‘청년회’ 활동이 활발했던 1920년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상북도 주최 청년수양강습회는 1922년 10월 14일~20일 7일간 영천군 은해사(銀海寺)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잡지 『경북』 1922년 12월호에는 청년수양강습회 기념사진이 게재된다. 해당 잡지 도입부에 게재된 사진이 총 세 장인 것을 고려하면 청년수양강습회는 중요하게 홍보해야 할 행사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1923년 9월 6일 『매일신보』 기사는 강습회의 취지와 구체적인 모습을 전해준다.³³⁹⁾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달(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예정으로 지방 청년 지도를 목적으로 관내 각 군으로부터 2명씩, 합계 48명의 청년을 우량 청년으로 소집하여 제2회 청년수양강습회를 개최코자 각 군에 회원 인선을 의뢰 중이다. 강습회 장소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금룡사(金龍寺)이고 인선 기준은 나이 30세 이하의 조선인 청년으로 일본어를 잘해서 강연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방 청년 가운데 명망이 있고 현지 청년의 지도자 또는 장래에 지도자가 될

339) 경상북도 주최 제1회 청년수양강습회 사진을 게재한 잡지 『경북』 1922년 12월호에는 강습회 관련 글이 없다. 행사가 개최되었던 달인 1922년 10월호나 다음 달 11월호에도 청년수양강습회 관련 글은 없다.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 주최 제1회 청년수양강습회 관련 글은 1924년 1월호에 실린 부도지사의 강연 기록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한 사람을 모집한다고 한다. 이번 강사는 김(金) 참여관, 하타(秦) 내무부장, 야마모토(山本) 농무과장, 유(兪) 사회과장, 다카바타케(高畠) 도축탁, 오이시(尾石) 조선은행 지점장, 다카모토(高本) 고등보통학교장, 요시다(吉田) 동척 지점장, 사토(佐藤) 일본기독교회 목사 등이다. 개최 기간에 사와다(澤田) 도지사도 임석하리라더라.³⁴⁰⁾

인용 기사는 1922년 10월 중순에 열렸던 경상북도 청년수양강습회가 1923년 9월에 제2회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해당 행사의 취지와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경상북도 청년수양강습회는 각 군 단위로 “현지 청년의 지도자 또는 장래에 지도자가 될 만한 30세 이하 조선인 청년 총 48명”을 모집해 다양한 강사들이 이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다. 그리고 행사가 지향하는, 혹은 제시하는 청년상은 ‘우량 청년’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인용 기사는 ‘우량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구체상은 잡지 『경북』 1923년 1월 신년호에 실린 하타 슈사쿠 부도지사의 강연 기록 첫머리에 등장하는 ‘불온한 사상’을 지닌 청년 즉 ‘불온 청년’과의 대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경상북도가 주최한 청년수양강습회는 표면적인 ‘수양’을 매개로 식민통치에 순응적인 ‘우량 청년’을 양성하고 ‘불온 청년’을 비판하고 배제하기 위한 장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잡지 『경북』 1923년 1월호 첫 번째 글인 부도지사 하타 슈사쿠의 강연 기록은 1920년대 조선의 청년을 둘러싼 매우 중요하고도 거시적인 움직임과

340) 해당 기사 원문의 오류는 사찰 이름 등을 포함해 인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았다. 그리고 가독성을 고려해 해제 집필자가 기사 원문 문장을 현대 한국어에 가깝게 다듬었다.

연동된 기록물, 혹은 식민지 지배 정책의 지역 단위 증거 자료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22년 9월에 경상북도가 시작한 청년수양강습회는 근대 일본의 거대한 사상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예컨대 경상북도 주최 제2회 청년수양강습회 관련 기사는 1924년 2월 14일 『매일신보』에서도 확인된다. 기사를 읽어보면 제2회 경상북도 청년수양강습회는 1923년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다가 약 5개월 연기된 1924년 2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당초 예정했던 장소에서 열렸다. 해당 기사는 행사 연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사정으로 인해”라고 적고 있지만,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이 일정 연기 이유였음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 청년수양강습회는 1925년 3월 29일 『매일신보』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제3회 청년수양강습회가 1925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경상북도 독립사범학교에서 개최되었고 참석인원은 대구에서 3명, 기타 각 군에서 2명씩 참가해 총 49명이었으며 ‘정신 수양, 농업 방면 및 일반 강연 3개’를 들었다는 내용을 전해준다. 해당 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강연자 목록에 있는 ‘수양단 조선연합회 이사(修養團朝鮮聯合會理事)’라는 직함이다.³⁴¹⁾ 기사 속 해당 직함은 1922년 10월에 시작된 경상북도의 ‘청년수양강습회’가 이후 일본 본토 및 식민지 조선을 아우르는 ‘수양단’이라는 거대 조직과 연계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일본 정부는 1923년 11월에 발표된 「국민정신작흥조서(國民精神作興詔書)」에 기초해 ‘사상 선도’ 정책을 구체화하고 1924년부터 교화단체,

341) 강연자 목록에는 우즈(宇津)라는 성(姓)만 적혀 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

종교단체, 청년단,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해서 국가주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강연회, 지방 중견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개최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하스누마 몬조(蓮沼門三)가 지도했던 ‘수양단(修養團)’은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1925년 4월부터는 중학교 이상 학교에 현역 장교를 배속시켜 군사교련 교육을 실시하고 1926년 7월부터는 시·정·촌에 청년훈련소(靑年訓練所)를 설치해 ‘군사교련과 수신 교육’을 실시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 확산을 막으면서 군국주의적 국체(國體) 관념을 양성하는 과정이었고, 이렇게 양성된 청년과 국민은 일본이 1931년~1945년까지 진행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다양한 형태로 동원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상북도 근대 공보잡지 『경북』이 기록하고 전해주는 청년수양강습회는 1922년 9월에 시작되어 1923년 9월 1일의 관동대지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일본 정부의 거시적 사상 정책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고 이후 1931년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지탱하는 사상 교육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돌아보면 제1회 경북 청년수양강습회가 제시한 ‘우량 청년’과 강연자 하타 슈사쿠가 표적으로 삼은 ‘불온 청년’이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차이를 지녔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 ‘우량 청년’은 일본의 천황제 국가주의 사상과 함께 일제강점기 상황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청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20년대에 시작된 ‘청년수양강습회’는 ‘우량 청년’의 양성과 ‘불온 청년’의 배제라는 틀에서 1930년대에 일제강점기 조선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해제]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 연해주 한인 이주의 역사와 항일운동

박승주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총 3회에 걸쳐 연재되어 있다. 이번 제5호에서는 주로 블라디보스토크 항의 군비상황과 시베리아 일대의 조선인의 생활실태 및 항일세력에 대한 정찰내용을 싣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해주 ‘4월 참변’으로 불리는 역사적 사건이 언급되고 있어 이 사건 이후의 항일세력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이 시찰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인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으로 처음 이주한 것은 두만강 너머 연추(煙秋, 현 크라스키노)부근의 지신허(地信墟, 地新墟)³⁴²⁾에 정착한 1863년 무렵이다. 두만강 주변에 살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연해주로 들어간 것은 1860년 이전부터 이미 흔한 일이었지만,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함경도 무산 출신인 최운보(崔運寶)와 경흥 출신인 양응범(梁應範)이 13가구의 농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러시아 포시예트(Posyet) 구역(그림1 참조)에 정착하여 지신허라는

342) 지신허는 원래 ‘계심허(鷄心河)’, ‘티진헤(Tizinhe)’라고 불리는 강 이름의 중국식 발음인데, 한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의 한자 발음에 따라 ‘지신허’, ‘지신하(地新河)’ 등으로 표기하였다.

마을을 개척하였다. 그 후로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이주는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특히 1869년 조선에 닥친 기근으로 국경의 6진³⁴³⁾ 지역의 주민들이 북간도와 연해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자작농이나 소작농들이었다(그림2 참조). 또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비극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수많은 의병과 민족운동가가 이들 지역으로 망명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1운동 무렵에는 이주 인구가 거의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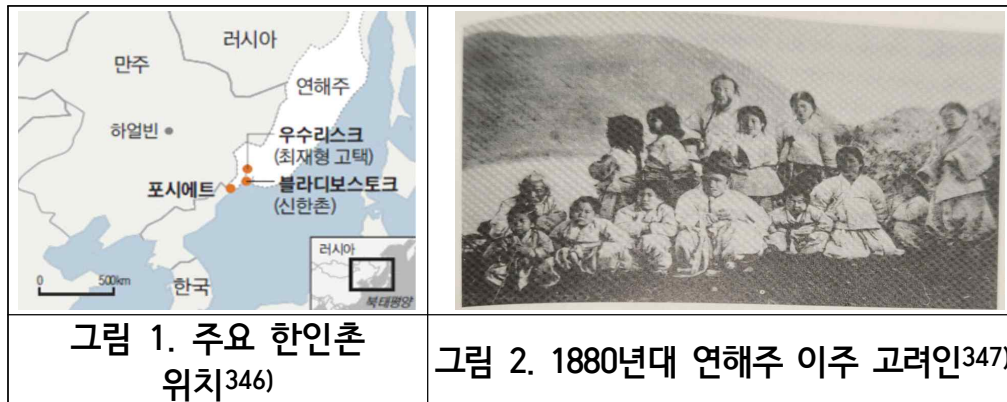
도미나가 가즈지의 시찰 기록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 한인 이주자들은 지리적인 여건 상 함경북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함경북도 안에서도 경흥(慶興)과 경원(慶源)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명천(明川)과 길주(吉州), 성진(城津) 출신이었다고 한다. 도미나가의 기록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연해주 지역 조선인 이주자의 대략적인 출신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인 이주사 자료로서 참고할 만하다.

원래 연해주 지역은 1858년까지는 청나라 훈춘령 소속이었다. 그러나 1858년에 아이훈(愛琿) 조약³⁴⁴⁾ 이후 러시아와 청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하다가 1860년 북경조약³⁴⁵⁾에 의해 러시아의 영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

343) 조선시대 동북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된 군사 행정구역.

344) 1858년 헤이룽장성의 북쪽 아무르강 연안의 아이훈에서 러시아 제국과 청나라가 맺은 불평등 조약.

345)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1860년 10월 18일에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과 체결한 조약.



이후 러시아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1873년 연해주의 중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군항을 건설하여 극동함대의 기지로 삼았다. 또 1900년에 들어서면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시베리아철도 부설사업도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베리아 전역에서 실시된 개척 사업에 한인 이주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연해주 도처에는 크고 작은 한인촌이 형성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에는 1870년대부터 한인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여 1886년에는 400명이던 한인이 1891년이 되면 두 배가 넘는 840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한인이 늘어나자, 1893년 시의 행정 당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구역을 한인 집단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카레이스키스카야’, 즉 ‘고려인 거리(한인거리)’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1911년에 페스트와 콜레라가 창궐하자 러시아 당국은 전염병 박멸을 명분 삼아 한인 집단 거주지를 시 외곽으로 옮기고 이 일대

346) 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16122800531 참고
 347) 윤병석, 『국외항일운동 I -만주·러시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07

는 기병대 숙소로 사용하였다. 한인들은 시의 서북편 외곽에 새로 형성된 새로운 거주지를 ‘신한촌(新韓村)’이라고 불렀다. 신거주지는 구거주지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아무르(Amur)만의 동쪽 해안지대로 그림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가지에 있었던 구개척지에는 움막과 돌막집 등 조선식 가옥이 많았지만, 신한촌은 러시아풍 목조 건물로 지어졌고 도로망도 러시아식으로 구획되었다. 한인들이 러시아식 생활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이랄 수 있는데, 추위 탓인지 가옥 내부는 온돌을 깔아 조선식 생활방식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신한촌의 가옥구조나 생활방식은 도미나가의 시찰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도미나가는 당시 그곳에 거주한 조선인은 약 7백 가구였다고 구체적인 세대수까지 밝히고 있어 일본관헌이 한인들의 동향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림 3.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³⁴⁸⁾

348) <https://www.khan.co.kr/article/201603082115475> 참조

한편, 도미나가 가즈지의 시찰기보다 2년 정도 빠른 1918년 9월 20일자 『매일신보』에도 “해삼위(海參威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이라는 기사(그림4)와 함께 조선인 여인들이 흰옷을 입고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신한촌’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의 아우를 비롯하여 배일사상이 강한 항일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일본인들이 함부로 드나들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그림 4. 매일신보 1918년 9월 20일 4면 4단 기사

신한촌은 도미나가의 시찰기에서도 ‘배일사상의 제일 근거지’로서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로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신한촌에는 망명해 온 민족운동가가 많이 몰려들어 왔다. 의병운동에서 애국계몽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노선을 지닌 민족운동가가 대거 이주해 와 권업회, 노인동맹단, 한민학교(韓民學校), 고려극장 등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또 3·1 운동 직전에는 대한민국의회가 설립되어 조선인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신한촌은 그야말로 해외독립운동의 중요기지이자 상징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 이에 일본은 외곽 약 1km 지점에 영사관을 설치하여 신한촌을 중심으로 한 항일 독립운동 세력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였다.

그러나 신한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항일민족운동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제정 러시아의 압박을 받았고, 이후에는 민족운동의 중심지는 북간도로 옮겨지게 되었다. 도미나가의 시찰 기록에는 당시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항일 민족운동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동휘(李東輝), 김하석(金夏錫), 문장범(文章範), 최재형(崔才亨), 홍범도(洪範圖), 이범윤(李範允), 구춘선(具春先), 서일(徐一) 등이 바로 그들이다.

1917년 러시아에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 시베리아가 혼란에 빠지자, 1918년 4월 일본은 시베리아에 재류하는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시베리아출병을 단행한 후 이 지역 한인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20년 3월 아무르강 하구 니콜라옴스크에서 러시아와 조선독립군 약 380명이 가담한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섬멸하는 사건이 있었다.³⁴⁹⁾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4월에 신한촌을 기습하여 한민학교와 한민보관(韓民報館) 등 주요건물을 불태우고 무고한 한인을 학살했다. 일명 '4월 참변'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일본인의 기록이다 보니 도미나가의 시찰기에는 '4월 정변'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 사살된 최재형(崔在亨)의 이름과 더불어 체포된 한인의 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여 명, 니콜리스크에서 70여 명이었다고 한다. 도미나가는 최재형 외에도 3명의 사살자가 더 있

349) 니콜라옴스크를 일본어로 니항(尼港)이라 표기했기 때문에 일명 니항사건으로도 불린다.

었다고 적고 있는데,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3명의 사망자는 김이직(金理直), 엄주필(嚴柱弼), 황경섭(黃景燮)이다.

도미나가의 기록에 “작년 4월 정변 후에는 민회를 만들고 헌병출장소도 설치되어 최근 표면적으로는 확연하게 평온해 졌다”고 나와 있듯이 ‘4월 참변’ 이후 일본군은 신한촌에 헌병출장소를 설치하여 한인들을 감시하는 동시에 회유정책도 실시했다. 도미나가에 따르면 무직자에게는 직업을 알선하고 구매조합을 만들어 생활의 안정을 보증했으며 학교를 원조하여 교육을 시키는 일 등을 했다고 한다. 또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민회라는 친일조직도 만들었다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신한촌에 설립된 친일조직인 조선인거류민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독립운동가 출신이 주요 구성원을 되었는데, 이는 일제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주요 간부로 삼아 한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회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은 적극적인 친일보다는 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공급이나 병원 설치, 그리고 한인사회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보수하거나 재건축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처럼 ‘블라디보스토크 시찰기’는 연해주 지역 한인의 이주 실태는 물론이고 ‘4월 참변’ 과 같은 역사적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시찰자인 도미나가가 관명을 받은 경찰간부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기록은 연해주 지역 항일세력에 대한 일본관헌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1차 사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잡지 『경북』은 경상북도도정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부분인 재외 한인의 이주사 및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해제]

어느 기혼자의 일기: 잡지 『경북』에 가시화된 여성의 욕망

윤경애

잡지 『경북』의 성격과 편찬 목적은 발행 주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경상북도의 행정 관리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총독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잡지 『경북』은 매우 독특하게도 교양 잡지나 종합 잡지의 성격 또한 갖추고 있는데, 그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를 비롯하여 번역 소설이나 창작 소설을 게재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2권 1호에 실린 ‘어느 기혼자의 일기’는 앞서 발행된 네 권에 실린 소설들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이라는 점이다. 이 글의 제목은 ‘어느 기혼자의 일기’이다. 따라서 일기를 쓰는 주체인 A는 기혼 여성이다. 그런데 이 여성은 교사라는 직업과 겉으로는 번드르르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속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며 그 이유는 T로 지칭되는 사람과의 관계이다.

그렇다! 나는 무엇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었던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길로 돌진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연애는 종교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괴롭다. 괴롭더라도 멈출 수 없는 마음! 그것은 종교다. 나는 돌진할 것이다.

(「어느 기혼자의 일기」 본문 중)

두 번째 특징으로, 일기 형식이면서도 A와 B가 주고 받은 편지를 통해 마치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연상케 하는 전개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순결하고 순진한 A는 세상의 온갖 경험 특히 성적 경험과 타락을 경험한 B와의 우정과 상호 영향을 통해 달관적 세계관에 도달하고 있다. A와 편지를 주고받는 B는 성적 욕망에 충실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당신은 깨끗한 처녀입니다! 나는? 아아 나는, 그러나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녀라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당신이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 생각은 변했습니다. 악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더러운 육체의 찬미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향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가슴에 강렬한 큐피트의 화살을 꽂겠습니다. 그때 당신은 무어라 말할까?... 나는 그 말이 듣고 싶네요...” 라고. 이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기혼자의 일기」 본문 중)

위와 같은 B의 편지는 A에게 세상의 비난에 더 이상 휘둘리기 보다 자신을 둘러싼 속박을 끊고 자신의 행복에 충실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세 번째 특징으로, A와 B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동

성애적 코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에서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에게 보다 좋은 내 몸의 절반을 주었더라면 하고.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웠던 것이다. 그 넘치는 정열을 쏟아낼 곳이 없었던 것이다. '교사라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품어라'라는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이었다. 그런 말은 가증스러운 위선자의 말이다. 젊고 섬세한 영혼을 가진 여자 - 처녀에게 그런 거칠고 난폭하며 야비한 아이들을 유일한 애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닐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이들은 그 여자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뿐이야. 가혹한 일이다. (「어느 기혼자의 일기」 본문 중)

젊고 정열 넘치는 A에게 보다 깨끗한 자신의 몸 절반을 내주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B의 말은 단순히 친구 사이의 보다 깊은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솔직한 묘사와 가시화는 1920년대 초반이라는 시기로 볼 때 대단히 도발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당시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 특히 성적 욕망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문학적 묘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대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9세기부터 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1875년 애쉬튼(J. Ashton)의 *The Book of Nature* (1860)를 번역한 『조화기론 (造化機論)』(1875)이 서구의 성 담론으로서 처음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조화기'는 생식기를 의미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본과는 달리 성과 생식기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번역본이다.³⁵⁰⁾ 번역자 지바 시게루(千葉繁)

는 이 책이 성공한 뒤 『통속조화기론 (通俗造化機論)』 연작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당시 ‘통속’이라는 접두사는 전문적 지식을 쉽게 풀어쓴 대중 지침서를 의미했다. 통속을 표방한 성 서적들은 성기의 해부적 특징과 교합의 문제,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만드는 실천의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개인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³⁵¹⁾

1920년대 들어오면서 성을 둘러싼 담론은 더욱 다양한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특히 성욕에 대한 지식은 개인의 일상 지침서이자 사회를 이해하는 학문이었으며 이러한 지식의 변화 속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성욕학자 사와다 준지로(澤田順次郎, 1863-1944), 하부토 에이지(羽太銳治), 야마모토 센지(山本宣旨, 1889-1929) 등을 들 수 있다. 사와다 준지로의 경우 1904년 『남녀의 연구』를 시작으로 『인생의 활로』(1908), 『성욕에 관해 청년 남녀에게 답한다』(1919), 『처녀의 심리와 위기』(1919), 『신비의 동성애 상, 하』(1920), 『색정광』(1920) 등 1900년대부터 30여 년간 수십 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육체에 대한 탐구로부터 여성의 성욕, 동성애를 비롯해 심지어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욕과 성적 위생, 성교육, 피임, 화류병, 성욕 범죄 등 성과 관련해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로 활발히 출판되었다.

그런데 1910년대 중반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과 관련된 서적과 잡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변태적인 성’이 자주 언급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성적 욕망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태 심리’, ‘변태성욕’과 같이 ‘변태’를 전면에 내세운 서적과 잡지가

350) 赤川学, 『セクシュアリティの歴史社会学』, 1999, 勁草書房, p.81.

351) 배홍철, 「일제강점기 성욕 관리의 담론 -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2021,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38-40.

다수 출판되었다. 예를 들어, 『변태성욕론 變態性欲論』(1915), 『변태심리 變態心理』(1917-1926), 『변태성욕강화 變態性欲講話』(1921), 『변태성욕연구 變態性欲の研究』(1921), 『일본변태심리 총서 日本變態心理叢書』(1921), 『변태심리학강의록 變態心理学講義録』(1921), 『변태성욕 變態性欲』(1922-1926), 『변태 12사 變態十二史』(1925), 『변태자료 變態資料』(1926-1928) 등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변태’의 정의 및 분류에서 주목할 만한 잡지로 1920년대 성욕학 및 변태성욕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 하부토 에이지(羽太銳治)가 창간한 잡지 『변태성욕연구』(1921)와 다나카 고가이(田中香涯)가 창간한 잡지 『변태성욕』(1922-25)을 들 수 있는데, 두 잡지에서는 사디즘과 마조히즘에 이어 ‘동성애’를 변태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변태성욕』의 경우 ‘독자의 편지’란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고백하고 답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독자들의 편지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들의 고백이며 스스로 ‘동성애=비정상적 성욕’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⁵²⁾

352) 한정선, 「근대 일본의 성과학 수용과 1920-30년대 남성 동성애 문학」, 2023, pp.267-272.



그림 1. 매일신보(1924년 5월 6일) 기사



그림 2. 매일신보(1926년 1월 19일) 기사

그림 1과 2의 기사를 통해서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변태시하고 죄악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살하는 남녀 동성애자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923년에 출판된 잡지 『경북』 2권 1호 ‘어느 기혼자의 일기’는 유교적 관념이 뿌리 깊은 한국에서 여성의 욕망과 성욕, 게다가 동성애적 관계로도 추측해볼 수 있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게재글이라고 할 수 있다.

B가 말한 “여자의 길, 행복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A가 진정 갈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 남성과의 평범한 결혼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A가 마침내 도달한 “눈부시게 행복한 아침”의 일상은 “가시덤불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단히 파격적으로, 유교적 사회 분위기와 자칫 ‘변태’로 취급받는 동성애로 추측될 수 있는 모호한 결합을 ‘이상’을 향한 행복한 출발로 결말짓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진보적인 서사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